신앙과 학문

제24권 제4호 (통권 81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4권 제4호 (통권 81호), 2019년 12월호.

발행일/2019년 12월 30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총신대학교)

편집, 제작/석종준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일반 논문

기독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조지혜 · 5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Healing Dialogue
with Christian Women | Ji-Hye Jo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 라영환 · 51
A Study on the Art of Vincent van Gogh and His Calling
| Young Hwan Ra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책임지수와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 황인태 / 조인영 · 75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 In-Tae Hwang / In-Young Cho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 허계형 · 1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Early Childhood Supportive Environments in
Church Schools | Kay Heoung Heo

「룻기」에 나타난 다성성과 그 함의 | 김철수 · 129
Polyphony in “the Book of Ruth” and It’s Implications
| Cheol-soo Kim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통일과 평화' 주제를 중심으로 - | 오의석 · 157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 Focusing on the Theme of Reunification and Peace - | Eui Seok Oh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 최용준 · 185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Based on Revelation 21:1-4 | Yong Joon (John) Choi

애도의 방법 :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론 | 조경덕 · 207
The Method of Mourning : Study on Lee Cheong-Jun's *A Worm's Story*
| Kyoung-Duk Ch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탐색 | 김영숙/이지연 · 231
Exploration of the Core Competencies of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Youngsook Kim / Jyi-yeon Yi

『신앙과 학문』. 24(4). 5-49.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5

기독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Healing Dialogue with Christian Women

조지혜 (Ji-Hye J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qualitatively understand the lived-experiences in dialogues with three married women in the fellowship of christian faith from 2013 to 2018. The study considers the phenomenological meanings of 'dialogue', and analyzes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it.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and restoring the encounter with three women in my personal life, I have understood the uniqu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alogues toward inner healing. By restoring the dialogues in the past through the researcher's retrospective diary record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I could find the position and meaning of the dialogues in the context of their life stories. Then, I have studied the meaning of 'dialogue' which finds an origin of deep wounds, by applying the concepts of phenomenology.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I provisionally conceptualized a series of dialogues as 'healing dialogue'.

Healing dialogu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was realized in the depth of 'personal relationality'. The process of 'healing dialogue' was built upon the interest toward the face of the other in pain. Interest to the other led to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 inner pain shaping the emotions and atmosphere of her. Respecting the 'temporality' of waiting and hesitation, and through deep dialogues, the other could open her wounded existence. The listener tri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by responding to her who confessed the wounds. Through such a dialogue of confession and response, the other could acquire the 'hermeneutic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er life totally. In essence, based on the personal relationalit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healing dialogue' was realized by the interrelated characteristics—interiority, deepness, narrativity, sympathy, and ethicality.

Key Words : healing dialogue, lived-experience, face of the other, origin of wounds, inner healing, personal relationality

---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wisdomj2@snu.ac.kr
2019년 07월 31일 접수, 10월 09일 최종수정, 11월 0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 05. 11)에서 '새로남 청년학술논문상'을 수상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학위논문: 조지혜 (2019).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Ⅰ. 서론

인격적 관계성이 결여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은 지난 7년간 신앙과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세 기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던 세 여성들과 나는[1]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아픔을 지닌 자녀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깨어진 가족 관계의 상처를 가진 이들, 부모의 폭력 속에 노출된 이들,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움 속에 있는, 서로 다른 현실 속에 처해있는 다음 세대들을 마주하면서, 30~40대 중간 세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한 배에 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요청과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과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지역 교회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던 세 기혼여성들과 나의 대화는 교회나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책임 있는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지면서 점차 성숙한 대화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우리들은 타인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에게로 향하는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세 여성들과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온 생애사 속에서 지금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여성들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는 타인의 아픔

1) 본 논문에서는 필자나 연구자라는 표현 대신 연구를 수행하게 된 체험적 맥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체험적 주관을 가진 존재자로서 연구자의 실존적 위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과 그들의 고유한 인격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체험임을 깨달았다.

연구의 참여자가 된 세 여성들과 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앙과 삶에 대한 내밀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에 깊이 참여하는 대화를 체험하였다. 세 여성들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은 상처로 깨어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대화의 과정으로 나아갔다. 자신이 체험한 부모-자녀 관계를 생애사 속에서 성찰하는 대화를 통해, 유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 한 사람의 존재와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발생적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최초의 타자'라고 볼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세 여성들과 나의 대화는 이러한 '존재의 발생적 근원'을 찾아가는 탐구의 여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자기 발견과 이해는 부모 세대와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본 연구는 유년시절부터 체험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던 세 여성들과의 대화가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여성들과 함께 나눈 대화 체험의 과정과 성격에 담긴 현상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형성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둘째, 참여자별 대화가 갖는 독특성과 공통점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존재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깊이 있게 전개된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상호 관련을 맺는가? 나는 대화 체험의 맥락을 살린 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대화를 어떠한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개인적 체험으로 존재하는 만남과 대화를 연구자적 관심으로 탐구함으로써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내면의 치유' 사이에 있는 내적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깨어진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내면의 치유와 대화에 관한 논의는 정신분석학과 상담학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간호학, 문학, 미학, 교육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각 학문 분야에서는 대화를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며, 대화 그 자체의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치유의 결과를 얻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내면의 치유와 대화의 관련성이 어떻게 탐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학문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상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생활세계 속의 만남과 대화였음을 염두하며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1. 정신분석학과 상담학에서 본 치유적 대화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적인 내면세계의 갈등이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병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내면세계를 치료해 왔다. 대화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며, 환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전개한다.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게 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의 목적이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심층적인 의식을 '무의식'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병리적인 증상을 넘어 인간 일반의 무의식과 비합리성의 바탕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로 확장되었다. 정신분석학자 융(Jung, 1920)은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성의 영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험의 심리적 연관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때 무의식이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의식의 역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심리적 사건들의 총체"(Jung, 1920, 김성환 역, 2016: 225-226)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내면세계의 심층에 자리한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할 수 있을까? 정신분석학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한 주의 깊은 경청

과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Jung, 1920).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생애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기 성찰과 분석이 이뤄지며, 의사는 환자 스스로 의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생의 에너지를 환자 자신이 주체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돕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학은 대화와 내면의 치유의 관련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일상적 고민이나 내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두루 다루게 된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내적, 심리적 문제를 찾아가고자 한다. 상담자는 주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조력한다. 기본적으로 상담 관계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전문적 지식, 심리적 조력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와 진실성, 전문성은 상담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치료 기법에 중점을 둔 심리상담도 있지만, 상담은 본질적으로 상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라포(rapport)' 형성을 토대로, 내담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담자 중심의 대화 관계가 중요시 된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상담 원리와 방법들은 신학, 철학, 간호학, 미학, 교육학 등 다른 학문 영역과의 접목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로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던 신학에서도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목회상담이나 상담신학 영역이 구축되고 있다. 한 예로, 노승수(2018)의 연구는 핵심 감정들이 몸과 영혼을 추동하는 무의식적 동기로 내담자의 내면에 인격화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그는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와 같은 핵심 감정들이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본다. 노승수(2018)는 핵심 감정의 '찾기(naming)'→'보기(mapping)'→'지우기(erasing)'→'인격주체 세우기(rebuilding)'의 과정을 통해 핵심 감정을 치료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과 핵심 감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핵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핵심 감정은 주로 상처의 근원이 위치한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생성되며, 핵심 감정에 직면하는 과정은 의식화되지 않은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연관된다.

한편, 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대화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면서 대화를 통해 내면의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다. 최근 개척되고 있는 철학상담 분야는 철학을 심리치료나 상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강조한다. 철학자와 내담자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함께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철학적으로 숙고한다. 삶에 대한 '철학하기'를 수행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구현하는 대화로 나아가게 된다(김선희, 2015).

한 예로, 김선희(2015)의 연구는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세우는 철학상담의 방법을 제시한다. 철학자는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경청과 이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형성하면서, 고착된 삶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얻는다. 박병준(2017)은 철학상담의 한 방법으로 철학교육과 철학상담을 결합한 '현상학적 철학상담'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현상학적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이 겪은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숙고하도록 돕는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을 시도하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체험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를 밝혀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대화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체험을 주제적으로 반성함으로써 과거의 체험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철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문제나 체험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철학활동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하기'로서의 대화를 시도한다. 철학적 대화를 구현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해석'의 힘을 기르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내면세계와 사고를 건강하게 정립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철학상담에서 추구하는 치유적 대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과 상담학 및 철학상담 영역에서 추구하는 치유적 대화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포함한 내면세계에 주목하면서, 내면세계의 상처를 언어적 대화를 매개로 의식화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치유적 대화는 언어적, 이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감성적, 관계적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성과 더불어 언어화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 관계 등의 차원을 어떻게 대화 주체의 인격

안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 비언어적 예술 활동 및 간호학에서 본 치유적 대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담은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예술 활동에서는 신체와 감성의 영역으로 확장된 비언어적 대화를 심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표현 활동들은 내면세계를 보다 질적으로 표현하고 성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 활동을 매개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상처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억압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과 병행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은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치유적 대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심리치료의 한 기법이 아닌 예술 활동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치유적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등장한 '고백미술(confessional art)'은 주로 자전적인 요소를 담은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상처에 직면하는 창작 활동을 보여준다. 고백미술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은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종종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을 한다. 한 예로, 김수연(2013)의 연구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의 억압된 상처를 표현하고, 이를 관객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예술가의 내밀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백미술은 표현 활동을 매개로 예술가의 상처 입은 내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삶에 대한 자전적 서사를 시각화하는 일종의 '시각적 내러티브'의 성격을 갖는다.

상처 입은 내면을 자각하고 표출하며 성찰하도록 돕는 다양한 표현 활동은 비단 언어라는 형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 속에서 우리는 대화가 가진 비언어적, 감성적 측면을 발견한다. 실제로 대화의 형태는 발화된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정이나 정서 등의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매개로 형성된다. 이러한 대화의 비언어적 측면들은 대화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화된 언어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예술기반 연구들은 비언어적 표현 활동과 내면의 치유와의 관련 속에서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간호학에서는 환자와 맺는 인격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 주목하여 돌봄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Edwards, 2001; 공병혜, 2017). 돌봄과 치유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연관시키는 간호철학의 흐름들은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관계의 본질적 의미 속에서 고찰한다. 대화와 돌봄, 치유에 대한 사유 또한 '대화 주체들 간의 만남'이라는 본질적 관계 맺음 속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공병혜(2017: 89)는 돌봄과 대화의 의미 연관을 탐구하면서,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상호 돌봄의 과정"으로서 대화를 정의한다. 상호 돌봄의 과정인 대화를 통해 오고가는 정서적 교류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비판적인 대화와는 차이를 갖는다. 상호 돌봄의 대화는 언어로 발화된 측면보다 대화가 구현되는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공병혜(2017)에 따르면, 나와 너라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우정 관계 속에서 정서적 참여를 통한 돌봄의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구현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간호사와 환자는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로 표현되는 고통과 결핍에 응답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상호적인' 돌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윤리적, 정서적 차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 활동 및 간호철학에서 보는 치유적 대화는 대화가 갖는 비언어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대화가 서사 구조를 갖는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 활동은 내러티브가 가진 비언어적 차원과 그것이 시각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또한 간호학에서 강조하는 치유적 대화는 환자와 간호사라는 두 인격 사이의 돌봄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된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라 할지라도, 간호사는 환자를 "삶의 이야기를 지닌 고유한 인격체로"(공병혜, 2017: 114) 존중함으로써, 돌봄을 바탕으로 한 대화 관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치유적 대화'는 심리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대화 관계의 본질적 의미와 존재론적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화 체험의 언어적 차원과 함께 비언어적 차원 또한 비중있게 다루고자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를 수행하면서, 주체-타자의 인격적 관계 맺음을 통해 실현되는 치유적 대화 체험의 현상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Ⅲ.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방법: 현상학적 체험연구

본 연구는 현상학의 문제의식을 철학적 토대로 하여 두 인격 사이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수행한 현상학적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현상학의 철학적 문제의식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후설(Husserl)을 시작으로 전개된 현상학의 흐름은 현대 사회의 병폐가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성찰한다. 이는 실천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후설은 사태의 본질구조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문화적 측면의 인간 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이남인, 2004: 29-30). 그는 실증주의에 기초한 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철학의 위기에서 현대 과학 일반의 위기, 더 나아가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가 유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이남인, 2004: 26). “특정한 사태 영역에만 타당한 존재 및 인식원리를 일반화시켜 모든 사태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태 자체를 총체적이며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남인, 2004: 25).

한편, 레비나스(Levinas)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여 타자에게로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의 타자 철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윤리적 관계 맺음을 통해, 주체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강영안, 2005: 176-184). 이처럼 현상학자들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숙고할 수 있도록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의 기반을 놓고자 한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세계 속의 체험들은 다양한 의미와 본질이 현출하는 장(場, *champ*)이다. 현상이나 체험 자체는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텍스트로서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관심으로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학문적 의미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앙과 삶의 맥락에서 이뤄진 생활세계의 체험으로부터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발견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상학적 분석은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상학의 방법적인 원리를 토대로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맥락에 위치해 있다(이남인, 2014). 한 예로, 밴 매넌(van Manen, 1990)은 현상학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험 자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탐구하는 '체험연구'의 방법을 제안한다. 체험연구는 우리가 반성을 거쳐 개념화하고 범주화한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을 먼저 개념화하기보다는 되도록 생활세계의 맥락을 살려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특징짓는 중심 주제들을 반성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세 여성들과의 대화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생활세계 속 체험이었으며, 이는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참여자들과 나 사이에 체험적이고 질적으로 존재하는 대화였다. 나는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나누었던 개인적인 대화 체험을 연구자적 관심으로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참여자가 되어준 세 여성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체험의 의미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나는 체험연구의 맥락에서 대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애 안에서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각 참여자들의 대화 체험을 내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상학자들의 개념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가 전개된 과정과 양상 및 성격을 중심으로 주제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인격적인 대화의 형식을 '치유적 대화'로서 잠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내면의 질적인 변화나 치유와 관련을 맺는지를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및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연구 절차: 연구 수행 및 분석 과정

연구의 참여자로 함께 한 세 여성들과의 만남은 2013년 무렵 한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 20~40대 기혼여성들이 모인 교회의 소그룹과 전도회에 참여하면서, 몇 명의 기혼여성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내밀한 마음의 상처를 나누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타인,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근원적인 상처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 여성들과 나의 만남은 연구의 맥락이 아닌, 일상적인 삶과 신앙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연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달리, 삶 속에서의 질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적 관심과 물음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이를 갖는다. 상담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대화 체험을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세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과 나는 생활세계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과 구술의 방법을 통해 '복원'하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갔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역사학자들의 작업과도 유사한 생애사적 탐구의 과정이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회상과 구술을 통해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작업과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 중심의 면담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중심 자료를 만들어갔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연구화 단계에서 먼저 참여자들의 1차 동의를 받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연구자의 회상일지'라는 형식을 통해 2013년 봄부터 2015년 봄까지 지난 2년간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을 일차적으로 복원하였다. 참여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수첩에 남아있는 메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화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 분위기, 느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상일지로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각 참여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담은 인물별 회상일지로 재구성한 후,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세 여성들의 삶의 내러티브를 살린 일대일 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수행하기 전, 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2차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개인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연구인만큼, 참여자들이 계속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

택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회상일지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 체험과 그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구술을 해 주었다.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 면담은 연구자의 체험과 참여자의 체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중심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무엇보다 참여자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되도록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구술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 체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의미 있게 조명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체험들을 의미 있는 삶의 스토리로 재구성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면담이 단순히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한 방법적 도구를 넘어, 삶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구성과 해석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면담은 우리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 체험과 분절된 연구 방법이 아닌, 대화적 관계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그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공동 연구'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체험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공감적 교류를 담아내며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화 체험을 자료화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이후의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별 면담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생애사 속에서 대화 체험의 맥락을 살려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은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월코트(Wolcott, 1994)는 기술, 분석, 해석을 개념상으로 구분하면서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삶의 실존 맥락에서는 내가 본 것 그대로를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상학적 기술을 통해 체험의 본질을 독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상학적 기술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기억 뒤편으로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과거의 체험을 현재의 의식 안에 포착하는 의식적인 기억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몸에 새겨진 체험을

기술하고, 체험의 본질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일차적으로 기술한 체험을 재구성하는 글쓰기 작업이 병행된다.

나는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과거의 대화 체험을 재구성한 후, 밴 매넌(van Manen, 1990)이 제안하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실존 범주들을 분석틀로 하여 대화 체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시간(시간성), 체험적 인간 관계(관계성 혹은 공동체성)”라는 실존 범주를 통해(van Manen, 1990, 신경림・안규남 역, 1994: 139), 참여자들의 체험을 구성하는 네 차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실존 범주가 참여자들의 상처의 근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 분석하였다. 특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의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치유적 대화가 인격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어떠한 내적 관련이 있는지를 실존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고찰하였다. 세 참여자들의 체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차이를 갖는지,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상처의 근원이 어떻게 관계성의 차원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참여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족관계’와 ‘내면의 상처’를 주제로 한 대화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대화가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는 과정으로 전개된 공통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갖는 과정과 양상을 고찰하고, 내면의 치유로 연결되는 대화의 속성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비나스(Levinas)의 “타인의 얼굴”을 중심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후설(Husserl), 하이데거(Heidegger), 셸러(Scheler), 부버(Buber)의 현상학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식의 심층과 존재, 주체와 타자의 관계, 주체의 정립 등에 관한 현상학의 개념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체험과 현상학적 이론이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는지 적용해보고, 실제적인 대화 체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

Ⅳ.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

1.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참여자들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기술은 100페이지 정도의 심층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중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거나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원자료(raw data)'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4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다. 세 여성들과 나의 관계에서 일대일로 이뤄진 만남과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인 참여자 '다니엘'(가명, 40대 초반 기혼여성)은 2013년 당시 디스크로 휴직 중이었다. 직장과 육아, 교회 사역을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지나온 다니엘이 잠시 쉬어가던 시기에, 나는 다니엘과 교회의 전도회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컸던 다니엘과 함께 우연한 계기로 교제를 나누며, 다니엘과 나는 정기적인 기도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그녀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휴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여러 교회 사역들을 맡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이 강박적으로 일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유년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유년시절부터 가족관계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가 신앙 안에서 다뤄지고 치유된 여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 대화를 계기로 다니엘은 유년시절 겪은 아버지의 부재와 그로 인해 찾아온 가난의 문제가 그녀의 마음에 강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사우디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폐암으로 여의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소녀"와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다니엘은 학창 시절에도 자주 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었다. 너무나 좋았던 아버지가 꿈에서 깨어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녀는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정서는 그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강박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근원적인 상처와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자 하는 그녀의 강박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존재에 형성된 외로움과 두려움의 정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인 '마리아'(가명, 40대 중반 기혼여성)는 우리가 만난 지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었으며, 재혼과 동시에 시부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2013년 당시 마리아는 시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건강의 악화, 과중한 교회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는 고난 중에 있는 마리아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과정에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었다.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있던 전남편에게서 도망치면서 아들을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갔다. 이후에도 암에 걸린 아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그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 속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을 견뎌내고자, 성도들 사이에서 더욱 인정받기 위해 교회 사역에 힘쓰고 있었다.

'사회적 가면'을 쓰며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했던 마리아의 내면에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양가적인 감정들이 오랜 시간 공존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에 대한 우정과 질투의 마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기대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원망의 마음,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속박된 마음 등 마리아의 내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들이 그녀의 존재와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유년시절부터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녀를 방치하고 때로는 학대했던 어머니에 대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돌봄을 받지 못한 마리아의 청소년기는 일탈로 이어졌고, 이는 원치 않는 임신과 결혼이라는 굴레로 그녀를 빠져들게 했다. 가난이라는 물적 조건과 부모로부터 방치된 상처, 그리고 타인의 편견어린 시선 속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마리아의 내면에는 단단한 응어리가 형성되었다. 마리아와 나는 서로를 향한 돌봄의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의 벽을 차차 허물 수 있었다. 안전한 관계 속에

서 그녀는 자신의 얼룩진 삶을 열어 보이며,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고백과 수용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마리아는 반복되는 고통과 상처의 굴레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마지막 참여자인 '안나'(가명, 40대 중반 기혼여성)는 매일 같이 고된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시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맡고 있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물질적인 부담감과 비가 새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전 교회의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복합되어 안나는 신앙의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다. 2013년 교회의 소그룹에서 안나를 만났을 당시 그녀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안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말 못할 고난과 상처의 무게들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뼛속 깊은 고통이 그녀의 창백하고 그늘진 얼굴로 표현되고 있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던 안나가 상처의 근원을 마주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의 만남과 기다림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나는 기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머뭇거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뼈아픈 고통의 근원을 타인에게 열어 보일 수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공장에서, 그리고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고된 노동을 했던 안나의 삶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처와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나는 존재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타인에게 고백함으로, 그녀의 마음에 맺힌 한(恨)의 정서를 벗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깨어진 조각과 같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의 그림으로 재해석하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내면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이는 용기 있는 소통의 과정이었다. 타인과 함께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 고통을 나눠지는 대화는 오랜 시간의 만남을 필요로 했으며, 우리의 대화는 점차 내면 깊은 곳을 향해 가면서 상처의 근원이 있는 존재의 심층에 다다랐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남아있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의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대화로 나누었을 때, 상처 난 마음에 지배받던 존재는 막연한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내면의 치유는 참여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뤄졌으며, 나는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체험들은 어떠한 의미구조를 갖고 상처의 근원으로 형성되었는가? 불안이나 강박, 신체적 아픔, 관계의 갈등이나 신앙의 침체와 같이,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면의 근원적인 상처와 겹쳐지면서 표출된 현상이기도 했다. 나는 참여자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생존과 실존 차원의 문제가 어떻게 상처의 근원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실존적 상처와 가난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는 그들의 존재에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체험들이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거주의 불안정, 노동의 애씀을 특징으로 하는 근원적 체험들이 실존적, 생존적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처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참여자들이 체험한 일상성의 깨어짐은 친밀했던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이라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일어났다. 고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타자'[2]는, 일상을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실존적 물음이 뒤얽힌 장(場)으로 그들을 밀어 넣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상실되는 체험을 통해 존재의 결핍과 불안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이라는 타자 체험은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진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존재에서 '관계성

2) 레비나스(Levinas)에게 '타자'는 고통, 죽음, 미래, 또는 고아와 과부의 얼굴을 한 타인과 같이 주체가 내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 즉 '외재성'을 본질로 한다(강영안, 2005: 104-112).

(relationality)'의 차원이 얼마나 근원적으로 자리한 '실존 범주'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가 상실되는 가장 큰 체험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경우일 것이다. 특히 의식주를 공유하며 오랜 시간 삶의 행복과 고난을 함께 겪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 친밀함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존재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나 이별은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존재의 상처로 각인된다. 무엇보다 가족을 통해 생존을 함께 유지하기 때문에, 생계를 부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 또는 이별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일상의 불안정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은 '없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관계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과 불안정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의 생존은 부모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죽음이나 떠남은 자녀들의 생존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이들이 겪는 이러한 '빈자리'의 체험은 생존적인 불안정과 함께 실존적인 아픔을 수반하는 사건이다. 이는 존재자는 부재하나 존재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 현존하는 '모순의 체험'이기도 하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참여자 다니엘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늦둥이 아들이라 곱게 자랐던 아빠. 농사를 하기 싫어했던 아빠는 사우디로 일을 하러 가셨다. '저 집은 사우디에 안가도 되는데, 저 아들은 갈 애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는 게으른 아빠가 사우디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 엄마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낳아놓고, 농사일은 하나도 안하고 사우디로 간 아빠를 원망했다.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나쁜 아빠... 그런데 나에게는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아있다. 아빠가 사우디에서 돌아올 때면, 아빠는 나를 번쩍 안아 비행기를 태워주셨다. 그리고는 신기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셨다. 3D 낙타 사진, 호랑이 사진... 오늘도 어?!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아빠~!" 나는 아빠에게 힘차게 달려가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꿈이었다.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신기루처럼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깨고 나면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의 꿈에 자꾸만, 자꾸만 나온다.
>
> (참여자 다니엘의 회상 중에서)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자는 '부재' 그 자체의 공허를 느끼며,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를 키워가게 된다. 친밀함을 공유하는 신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짐은 존재자의 빈자리를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상실과 외로움의

체험이 된다. 이는 지향의 대상이었던 타인이 사라지고, 타인을 향한 지향성만이 방향을 잃고 덩그러니 남게 된 관계 상실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타인의 부재는 그리움을 넘어, 외로움과 상실감, 버려진 느낌과 같은 실존적 차원의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특정한 존재의 정서와 분위기, 더 나아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거주의 불안정

레비나스(Levinas, 1947・1979)에게 '거주(居住)'란 존재자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며 자기를 정립하는 삶의 형태 중 하나이다. 존재자는 거주를 통해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피난처를 삼는다. 그리고 친밀성의 공간 안에서 좀 더 깊은 자기의식을 형성하고자 한다(강영안, 2005: 33-34). 그런 의미에서 '거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안에 살고 머무르는 것 이전에, '자신 안에' 살고 머무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거주'라는 것은 존재자가 자신의 신체 안에서 자기를 정립하며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체의 안정감을 얻는 '거주'라는 삶의 형태가 타자 체험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나는 대화를 통해 세 참여자들 모두가 유년시절에 '거주의 불안정'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물리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관계의 불안정을 내포하는 체험이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내밀한 가족관계가 살아 숨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체험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자녀가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부모로부터 먹거리를 제공받고,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책임있고 친밀한 돌봄의 관계를 전제한다. 하지만 자녀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돌봄이 결여된 가족관계는 자녀에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 안나가 유년시절에 체험한 방치와 배고픔은 가족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거주'의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비중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내가 6학년 때 이사 왔을 때 동생은, 큰 집에 있었어. 큰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하니까... 큰 집에 있다가, 근데 6학년 때, 거의 아빠가 집에 안계셨어.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 되게 많은 시간들을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맨날 굶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것도 주인집에서 얹혀서.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그때는, 주인집에서 얹혀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가 오지도 않고, 등록금도 낼 수도 없고. 그 근처에 작은 집이 살아서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작은 엄마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아빠 아는 분을 통해서 서울로 가게 된 거지. 공장으로.

(참여자 안나와 나눈 면담 중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한 가족관계의 깨어짐은 생존과 실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존재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추운 기억들로 각인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의 깨어짐에 가난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의 유년시절은 돌봄의 부재와 방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은 '존재의 불안정과 결핍'을 야기했으며, 무엇보다 먹거리가 부재한 상황 속에 방치된 경우는 뼛속 깊은 곳까지 고통이 각인되는 상처를 만들기도 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기본적인 먹거리와 돌봄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존재자는 집안에서도 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주의 불안정은 존재자가 세계로부터 잠시 피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체험이기도 하다. 불안정함 속에 놓여있는 존재자는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외부와 고립된 채 더욱 힘을 주고 애를 쓰는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내면의 방어벽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켜내고 보호하고자 애써왔다.

(3) 노동의 애씀

레비나스(Levinas, 1947・1979, 강영안 역, 1996: 65)는 자연과 먹거리 등 주변세계를 "향유(*jouissance*)"하면서 존재자는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맺고 세계를 이해해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여전히 존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환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는 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세계의 위협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을 갖고자 노력한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존재자의 노력이 바로 '거주'와 '노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강영안, 2005: 34). 참여자들은 가족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장으로서의 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나눠져야 했다. 자본이나 학력과 같은 소유 양식이 밀접하게 맞물려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Fromm, 1976), 참여자들은 가난으로 인해 겪어야했던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가난으로 인한 수치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고투했다.

폐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찾아왔다. 가난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만들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대학교 때, 나는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혼자 과외로 돈을 벌어서 새벽 같이 수영도 다니고 운전면허도 땄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내 눈 앞을 쭉 지나가기 시작한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모습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참여자 다니엘의 회상 중에서)

근데 나는 뼈에 금이 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 그런 생각하면 또 엄마에 대한 생각이 욱하고 올라오긴 해. 어. 내가 다리가 짝 다리가 심한 경우도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냥 동네에서 피만 빼고 병원 한번 안 갔잖아. 분명히 사람들이 인대가 늘어나고 뼈 검사도 해야 된다는데, "됐어. 됐어." 학교도 못 갔거든. 다음날. 그러면 다른 엄마 같으면 데리고 갔을 거야. 근데 "그냥 하루 쉬어! 그러면 돼."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렇게... …(중략)… 돈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방 한 칸에 살고 이랬으니까. 내가 요강도 비우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렵게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다시 가난에 가난하게 되고, 우리 아이를 또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어.

(참여자 마리아와 나눈 면담 중에서)

참여자들에게 노동의 애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의 애씀은 소유나 성취를 통해 존재자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가난의 수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존재자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즉 기본적인 쉼과 여유를 상실한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존재자는 자신을 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존재와 삶의 무게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Levinas, 1947・1979, 강영안 역, 1996: 74). 가난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노동의 무게 아래에서 존재자는 오히려 주체의 소외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낯선 타자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다. 죽음, 이별, 가난,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침범한 낯선 타자는 그들의 존재와 삶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가족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을 겪으면서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잃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거주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불안정해졌다. 불안정한 거주와 가난의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쉼과 여유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참여자들은 타자로부터 자신의 내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형성해갔던 것이다. 타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실존적 몸부림과 애씀, 이를 통해 형성된 거칠고 방어적인 존재의 결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초월하여 타인을 만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러한 대화는 어떠한 과정과 성격을 갖는 것일까?

Ⅴ.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손봉호(1995: 57)는 “고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스케리(Scarry, 1985)는 고통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 더 언어로 객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다(손봉호, 1995: 63 재인용). 이처럼 상처의 고통은 존재자에게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외롭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객관화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한 만남과 대화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존재자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상처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며,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었다.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우리의 대화가 상처의 근원을 향해 가는 ‘지향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실현되는 대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잠정적인 개념화를 통해 보다 주제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 체험에 접근하면서,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치유적 대화의 과정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은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수심이 가득한 타인들의 낯빛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 무엇일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심이 담긴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타인을 향한 일종의 '말 건넴'과도 같았다. 타인의 얼굴로 표현된 느낌이나 인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주체가 타인을 향한 '무관심' 속에 있을 때는 타인을 향한 '지향성(intentionality)' 자체가 결여된다. 그것은 일종의 '비지향적' 체험으로서 대상과의 관계가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은 타인을 향한 '지향적'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조용환(2012c: 13)은 관심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맺기"라고 말한다. 이때의 관심은 존재자와 타자 사이의 표면적 관계를 넘어선 존재적 차원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가능하다. 존재자들은 서로를 향한 다양한 관심의 깊이 속에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은 가장 깊은 차원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과 그의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나는 타인이 얼굴을 통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들의 얼굴 너머에 있는 오래된 존재의 고통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 있던 참여자들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책임과 무게를 느낄 때가 많았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마음 쓰임이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고통에 함께 사로잡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였다. 참여자 마리아가 청력이 손상되어 입원을 했을 때, 나는 타인을 향한 아픔과 연민으로 가슴을 앓는 '긍휼'의 감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마

리아와의 만남에서 체험한 긍휼이라는 사건은 타인의 존재를 향한 강력한 관심과 지향성 속에서 타인의 몸과 마음의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일종의 타자 체험이었다. 나는 그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2013년 8월 31일, 나는 우연히 마리아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마리아의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모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 충격으로 마리아는 청력에 손상을 입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았던 소중한 친구가 아픈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나의 마음에 밀려왔다. 나는 무작정 마리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마리아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집사님의 가슴과 귀에 손을 대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마리아는 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 주었다. 나의 왼손은 마리아의 가슴에, 오른손은 마리아의 귀에 가만히 대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나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지혜야, 고마워. 내 마음 답답한 거 어떻게 알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진다." 나는 마리아에게 성경 구절을 적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 병원비에 도움이 되고자 헌금을 담았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2013년 9월 1일, 병문안을 갔다 온 다음 날, 마리아와 나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로 마리아의 귀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
> (연구자의 회상일지 중에서)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내면에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을 호소하며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얼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호소에 주목함으로써 주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책임적 존재"로서 타인 앞에 세워지게 된다(강영안, 2005: 185-186). 나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그 호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돌봄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쓰임과 돌봄의 책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대화는 존재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고립된 주체의 내면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대화 관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 나눈 치유적 대화는 관심과 돌봄의 행위를 통한 감성적, 정서적 차원의 교감이 대화 관계의 근원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에서는 언어적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의 교감이 깊은 대화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돌봄을 통해 깨어지

고 결핍된 실존 범주로 존재하던 '관계성(relationality)'의 차원이 새롭게 채워짐으로,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맺으며 자신의 내면을 열어갔다.

(2) 상처에 대한 자각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타인의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은 나에게 막연한 느낌이나 분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타인의 존재로부터 오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마음의 답답함이나 무거움 같이 나의 신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막연한 양상에서나마 그들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과 나는 아직 상처의 근원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상처의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상처의 고통이 자리한 의식의 심층과 체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대화가 필요했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받은 상처는 자각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면서 특정한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는 무의식을 포함한 의식의 전체 흐름 속에서 존재자를 사로잡고 에워싸고 있는 그 무엇, 즉 '존재함'의 독특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3)]

셸러(Scheler, 1923)는 인간이 타인을 인식하는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한 존재자의 감정을 다른 이가 함께 느끼게 되는 '공감' 현상에 주목한다. 타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비자의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감정 현상은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 기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현상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분'이 존재자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실제적인 느낌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자 안에 거하면서도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존재자가 어떠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타인을 향해 표현되거나 발산됨으로써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 상태를 드러낸다.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의 근원적인 상처와 고통을 타인에게 막연하게나마 표현하는 존재자의

---

3) 레비나스(Levinas, 1947・1963, 서동욱 역, 2001: 32-42)에 따르면, 존재 상태는 내용이나 명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존재한다. 그는 권태나 무기력과 같은 '기분'이 존재자의 존재함 자체를 동사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본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1972)의 "기분잡혀 있음"이라는 현상 또한 존재자를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존재의 상태와 분위기를 동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존재 방식인 것이다.

나는 참여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막연한 분위기와 정서가 그들의 상처의 근원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점차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 다니엘에게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답답함과 초조함의 분위기는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온 상실감과 외로움에 근원적인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니엘에게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자 하는 강박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 그때 내 상태가 어땠냐면,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내 눈 앞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때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운동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 성경을 혼자 읽어. 기도를 해. 그럼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성경을 펴 들어. 무슨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자꾸 반복을 하는 나의 모습이... 아~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기쁘고 즐겁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처럼 계속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야. …(중략)… 그때 그래서 고백을 한 거야. 그때 지혜한테 고백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내가 돌아서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지혜가 아버지의 부재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연관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 …(중략)… (눈물이 고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랑 끝 아닌가?' 이런 생각.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지혜가 해 준 얘기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붙들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틀리구나[다르구나].' 이제 이런 정도의 지각을 했던 것 같아.
>
> (참여자 다니엘과 나눈 면담 중에서)

정서와 분위기라는 것은 뚜렷하게 자각할 수는 없지만, 유년시절에 형성된 존재의 상처와 막연한 형태로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상처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 지향적 관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관련은 자기 성찰을 통해 존재자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의 근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타인의 조력과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참여자들의 경우 신앙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과정 모두를 통해 상처의 근원에 직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와 분위기가 향하고 있는 대상, 즉 존재 깊숙이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막연한 존재의 분위기가 과거의 상처들과 어떠한 지향적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인식의 빛 아래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연관을 찾게 되었을 때, 존재자는 때때로 자신을 엄습하고 지배하던 막연하고 익명적인 분위기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점차 회복해갔다.

(3) 상처의 고백과 응답

상처는 왜 고통 받는 이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표현되려는 것일까? 상처와 고통이 존재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와 대화로써 타인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처와 고통을 타인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손봉호(1995: 78)는 “고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며, 철저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이 되려는 충동을 가진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통은 언어를 거부하고 파괴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유와 언어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험”이라고 말한다(손봉호, 1995: 78). 고통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강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공감 받고자 하는 ‘소통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갈망은 나의 고통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넘어 존재자가 타인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촉구한다.

일상적인 함께 있음의 상태에서 깊은 차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존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더불어 놓여 있다. 참여자들에게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이 상처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존재(*Mitsein*)”로서의 현존재(*Dasein*)가 처한 실존에 기반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Heidegger, 1927・1972, 이기상 역, 1998: 168). ‘더불어 있음’이 결여된 ‘혼자 있음’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은 주체 안에서 깊어지며, 이러한 갈망은 주체를 자신의 내면 ‘바깥에’ 서도록 촉구한다. 참여자들은 ‘자기 보호’와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내적 갈등과 이중의 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머뭇거리며 깊은 상처를 나

누기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타인에게로 한걸음 다가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기까지 존재자가 보여주는 이 '머뭇거림'의 시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었다.

참여자 마리아는 자신의 얼룩진 삶을 열어 보였던 고백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서 난방을 할 수 없었던 마리아의 거실에는 텐트가 세워졌고, 나는 텐트 안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를 늘 따라다니던 타인들의 정죄와 판단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숨겨둔 가족관계, 전남편과 항암치료 중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마리아: 지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한 번 나의... 어떻게 보면 그거를 허물 아닌 허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너무 추운 가운데 그 텐트가 세워지고 그 텐트 안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혼자 그랬던 거야. …(중략)… [지혜가] "집사님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데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어. 그래서 "그럼 와 볼래?" 그랬지. 근데 입김은 허~ 나는데.

연구자: (웃음)

마리아: "진짜 춥다."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그러고. "저기 안에는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확 밀려왔어. 왜냐하면 너라면 어... 그냥... (밝고 명랑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정적이 흐른다.)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 사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불쌍한 사람. 내 아이인데도 내가 기르지 못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 기도를 하면, '지혜가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했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 내가 얘기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도 그냥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뿐이었지, 그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또 예민하니까 다 알잖아. '아. 쟤 저런 애' 이런 시선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들을 안다고 해도 '기도해주세요' 말도 못했어. 내가 먼저 정죄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정죄당하고 있는 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정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한테 고백을 했던 거야.

(참여자 마리아와 나눈 면담 중에서)

치유적 대화는 신뢰하는 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는 '고백적 언어'를 통해 무르익었다. 참여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열어

고백하게 된 이 대화의 순간은, 존재자가 '사회적 형식'을 벗고(Levinas, 1947・1963) 자기성에서 나아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상실과 깨어짐, 불안정과 결핍, 어두움과 갈등이 혼재하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있는 상처와 약함을 타인에게 진정성 있게 열어 보임으로써, 자신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던 방식에서 나아와 비로소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존재자가 자기성을 뚫고, '나와 너 사이'에 마주 서는 존재의 체험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Buber, 1923). 타인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는 타인을 '너'라는 존재와 인격으로서 마주하게 한다. 이는 두 인격 사이의 '관계'에 들어서는 순간이며, 사회적 형식을 벗은 '나와 너'의 질적인 만남이 무르익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안나와 나눈 대화 또한 타인을 깊은 존재의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참여자 안나가 오랜 머뭇거림 끝에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사를 나의 집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안 나: 성인이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너무 삶에 찌든 모습인 거야. 내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생한 엄마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흐느끼는 안나의 마음에는 엄마를 향한 연민과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친척 분에게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내가 전화하면 아빠는 왜 전화했냐고 화만 내시고... 아빠가 나를 매몰차게 밀어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안나는 숨죽여 울었다.)

연구자: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아파왔다.)

안 나: 못 배운 게 그렇게 한이 돼. 내가 더 배웠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안나는 한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연구자: (나는 흐느끼는 안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안 나: (안나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울었다.)

연구자: (나도 안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사랑한다. 안나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 품에서 이제 쉬렴.' 안나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가져왔다.)

안 나: (안나는 이불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구자: (안나가 누워있는 동안 나는 기타를 연주하며 조용히 한 찬양을 불러주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안 나: (울고 있던 안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연구자: (나도 잠잠히 안나의 곁에 누워 쉬면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연구자의 회상일지 중에서)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대화의 순간에, 참여자들의 존재에 '응답하는 이'로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타인의 고백을 향한 나의 응답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눈의 마주침과 진지한 표정, 기다림의 침묵,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는 끄덕임, 함께 아픔을 느끼는 눈물과 안아줌의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측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대화라는 구분이나 경계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나에게 상처의 아픔을 호소하며,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비대칭적'으로 서 있는 '타인의 얼굴'로 다가왔다(Levinas, 1947・1979; 강영안, 2005: 151).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타인으로부터 또 다시 상처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서도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타인 앞에 서 있었다. 이때 '고백하는 이'와 '응답하는 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인 관계의 구도에 놓이며, 관계의 무게중심이 상처를 고백하는 타인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다. 상처를 고백하는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주체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통의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답은 자신의 주체성을 깨고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의 존재로 향하는 '타인 지향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상처의 고백'과 '존재를 기울인 응답'은 나와 너 모두가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는 존재사건 속에서 이뤄지는 존재적 차원의 만남과 대화라고 볼 수 있다.

(4)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의 회복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열어 보이는 고백적 대화와 상처를 고백하는 이에게 온

존재를 기울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내면의 치유를 체험하였다. 나는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존재의 모순을 견뎌내는 내적인 힘을 갖고 지나온 삶을 의미있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깨어진 실존 범주가 회복되는 실제적인 변화들 속에서 내면세계가 점차 안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과 고통을 느낀다. '살아 있음' 자체는 죽음과 고통을 함께 떠안고 있는 모순적인 사태로서, 존재자에게 그 의미를 물어오며 존재자의 살아 있음을 괴롭히기도 한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1972)는 존재자가 존재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함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을 현존재의 실존으로 본다. 현존재의 실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타인을 포함한 타자는 가족의 죽음이나 헤어짐, 질병이나 물질적 고난과 같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와 존재자의 존재와 삶에 상처를 입힌다. 존재자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타자의 엄습은 의미의 깨어짐과 혼란 속에서 존재의 모순을 일으킨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처의 고통 속에서, 존재자는 부정의 긴장과 상처로 아파하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상실하기도 한다.

헤겔(Hegel)은 모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순을 견뎌내며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생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준수, 2012: 327). 존재자는 존재의 모순을 떠안고 실존하면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모순적인 삶의 조각들을 총체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동성을 가질 수 있다. 참여자들과 깊은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상처를 고백하며 지난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의미 있는 전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애에 대한 구술을 통해 참여자들는 타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존재와 삶의 모순을 견뎌낼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생의 의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 내 기억 속에, 삶 속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존재인데, 그냥 존재 자체를 내가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우리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아빠는 한량이었고, 도박했고, 먹지도 못하는 술 먹어서 맨날 토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를 구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요. (웃음) 근데 감사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사우디 가서 선물 사 가지고 오시는 아빠. 나를 [안아서] 비행기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비행기 태워주던 아빠. 자전거 뒤에 새우깡 실어갖고 오시던 아빠. 그 모습이 남아있어. 나한테는. 그리고 병풍 뒤에서 피 토하시던 아빠. 그러니까 나는 좀 아빠가 가여우신 분. 그냥 나 사랑해주시던 장면 장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략)… 나이로는 한 다섯 살? 그때 기억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나를 낳아주신 아빠가 있다는 거. 내 아빠가 나에게 소중한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더듬더듬 더듬거리면서 내가 찾아갔던 기억들이. 그냥 아빠의 모습이, 그런 기억을 남겨주신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빠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중략)…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신 아빠인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내게 뭐 부족해 갖고 나에게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주고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냥 너무 부요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가 눈물을 흘린다.) 다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빠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서른아홉에 곱게 자라서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될 지도 모르는 아빠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주신 기억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요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냥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참여자 다니엘과 나눈 면담 중에서)

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크게 막 역사하고 이런 게 없는데, 없는 거 같은 (웃음), 다니엘처럼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랬던, 다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었구나.' 지금 내가 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물론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웃음).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음.

(참여자 안나와 나눈 면담 중에서)

참여자 다니엘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타자와의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존재의 결핍을 채워갔다. 참여자 안나는 흩어졌던 기억의 퍼즐을 맞춰가며 지나온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고통이나 수치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스토리로 승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해석'과 '자유'라는 실천적인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치유적 대화는 모순적으로 엄습하는 상처나 고통과 같은 타자의 의미를 총체적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이해함으로, 점차 상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존재론적

해석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여자들은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깨어졌던 실존 범주들을 균형적으로 회복해 갔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삶에서는 깨어진 시간과 관계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유년시절의 체험은 참여자들의 존재에 깊은 상처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현재가 과거의 시간에 속박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 속박된 현재는 "자신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강영안, 2005: 101)를 상실한 채, 그들의 삶이 혼란과 절망 속에 머물고 정체되도록 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존재자 안에서 현재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지며 소망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동력으로서 그 의미를 재형성하게 되었다. "과거와 미래가 살아있는 현재"(조용환, 2012b: 27)를 되찾음으로 깨어진 시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타자와의 관계성의 회복과 뗄 수 없었으며, 관계의 회복은 시간의 회복을 이뤄가는 계기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상처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인격적인 대화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타자'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깨어지고 결핍된 실존 범주에 안정적인 의미의 기반을 놓는 총체적인 회복의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주요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ormation of the personal relationality	Interest towards the inner pain of the other. Caring relationship.
↓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 inner pain	Awareness of the deep wound shaping the emotions and atmosphere of the other.
↓	
Confession and Response to the wound	Confessional narrative of the wounded life story. Participation in the pain of the other. Sympathic listening based on love.
↓	
Understanding of the life, Recovery of the wounded existenc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wound by building up the hermeneutic ability in the life. Recovery of the broken existential themes.

Figure 1. Process of healing dialogue

2. 치유적 대화의 성격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생활세계의 대화 체험이라는 '현실태'를 기반으로 치유적 대화가 전개된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고, 치유적 대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통해 구현되는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정리해보았다.

(1) 내면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유적 대화는 타인이 표현하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두 인격 간의 만남은 타인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런데 타인의 내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체나 표정, 정서나 분위기 등을 매개로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타인의 얼굴'은 그의 존재를 막연한 전체로 나타내면서 존재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 중 하나이다. 홀로 질 수 밖에 없는 상처와 고통은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갈망하며 존재자의 얼굴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존재자는 '얼굴'이라는 표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소통을 갈망하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호소, 즉 '타인의 얼굴'을 통해 타인과 인격적, 윤리적 관계 맺음이 시작된다고 말한다(강영안, 2005). 이러한 얼굴의 "벌거벗음"과 "자기 표현, 곧 말 건네옴은 얼굴이 타자로서 나에게 현상하고 나에게 소통 관계를 터옴을 뜻"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180). 타인의 얼굴을 통해 발화된 깊은 고통에 주목할 때, 타인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나 외적 행위에 대한 관심은 그 내면을 향한 실존적 관심으로 전환된다. 궁극적으로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 자리한 타인의 총체적인 내면세계에 있으며, 타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2) 심층성

인간 내면의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 존재의 심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존재의 심층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연관된다. 후설(Husserl)은 그의 후기 현상학에서 기분이나 정서를 '무의식적인 지향성'의 한 형태로 설명한다. 후설은 "사랑, 비굴함, 원한 등의 정서와 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동기 지워진 행동방식"이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적 지향성"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남인, 2004: 310 재인용). "체험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저 어두운 지향성의 심층", 다시 말해 "근원질료적인 것"(이남인, 2004: 383)에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의식적 지향성이 놓여있는 것이다. 이렇듯 막연한 분위기와 정서의 형태로 표현되는 상처의 근원은 아직 의식과 대상, 즉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의 상관관계가 불명료한 존재 상태에 놓여있다. 존재자를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는 존재의 심층에 자리한 상처와 무의식적인 지향성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발산한다. 또한 내면에 있는 상처의 근원은 존재자가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관계 맺도록 추동하게 된다.

그러나 막연한 양상으로 느껴지는 존재의 심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마치 '고고학적 탐구'(Freire, 2000)와 같이 타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상처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고통의 발생적 연원을 찾아가며, 존재의 심층에 자리 잡은 상처의 근원에 마주하게 된다. 이는 의식의 표층에서 심층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론적 발생의 토대와 구조'(이남인, 2004: 403-404)를 이해하는 심층적인 대화 과정을 의미한다.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의 토대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통해 현재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의 발생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가 생애사적으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내러티브성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은 단지 상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열어 보이는 자전적이며 자기 고백적인 내러티브는 존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개시하는 행위로서, 주체와 타자의 존재적 차원의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상처 입은 존재를 타자와 진정성 있게 나누는 대화의 과정에서, 존재자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간다.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대화 체험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의 단계에 놓여있다.

상처의 체험과 지나온 삶을 대화를 통해 구술하는 내러티브는 표현적, 구성적, 해석적 성격을 가진다. 막연한 아픔과 고통으로 밀려오는 존재의 상처를 이야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존재자는 상처에 직면하고 억눌린 내면의 아픔을 표출한다. 또한 조각난 상처의 체험들을 회상하고 구술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아픔을 유발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존재자는 대화를 통해 상처의 체험들과 자신의 삶을 연결된 스토리로 구성하면서, 조각난 과거의 체험들을 현재적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내러티브는 과거의 상처를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4) 공감성

셸러(Scheler, 1923)는 다양한 차원의 느낌의 나눔을 '유사 공감'과 '본래적 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유사 공감' 현상들은 타자의 상태에 전염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자에 종속된 감정 상태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감정 전염'과 같이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상태들이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셸러가 말하는 '본래적 공감'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분리된 의식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아중심적인 방향을 초월하여 타인의 고통 또는 기쁨으로 향하는 지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본래적 공감'에는 함께 기뻐함, 함께 슬퍼함, 연민, 긍휼, 체휼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공감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긍휼과 체휼은 타인을 향한 심층적인 공감의 차원을 표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겪

는 고통에 대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신체적인 차원까지 느껴지는 이러한 공감 현상은 주로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처럼 공감은 다양한 깊이와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공감은 단순히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로 나타난다.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향한 전인격적인 참여로 나아가면서, 타인의 뿌리 깊은 상처와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자 하는 공감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셸러는 공감이 "사랑에 의존"할 때, "그 한계선을 뚫고서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 영역으로 돌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Scheler, 1923, 조정옥 역, 2006: 160-169).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더 인격적이고 지향적으로 타인의 심오한 인격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사랑에 기반한 공감'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치유적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 사랑과 공감은 상대방의 존재에 참여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향한 적극적인 귀 기울임과 응답의 자세를 표현하고자 한다.

(5) 윤리성

레비나스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윤리의 개념이 생성된다고 본다. 그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를 중심으로 타자를 규정하던 기존의 주체/타자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과 짐을 대신 짊어지며, "타인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구성"되는 윤리적 주체성이다(강영안, 2005: 228). 그에게 주체됨은 라틴어 '수브옉툼(sub-jectum)'의 뜻처럼, 타인의 고통을 아래에서 떠받치며 타인을 위해 '대속적 고통'을 감내하는 윤리적 책임 속에서 형성된다(강영안, 2005: 228-229). 레비나스(Levinas, 1947)는 주체의 남성적인 힘과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타인을 향한 돌봄의 행위와 타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대속

적 고통이 모두 나타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단순한 끄덕임을 넘어 그 고통의 깊이로 내려가 상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를 의미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이러한 참여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처 입은 타인을 관계의 중심으로 놓으며, 기존의 주체/타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타자/주체의 비대칭적 관계로 재설정한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듣는 이와 함께 나누고, 듣는 이는 타인의 존재를 떠받치며 그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치유적 대화 관계의 윤리성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다섯 가지 속성－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은 서로 내적 관련성을 맺으며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 상처 입은 내면에 대한 발견과 이해를 지향하면서, 각 속성들은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라는 존재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치유적 대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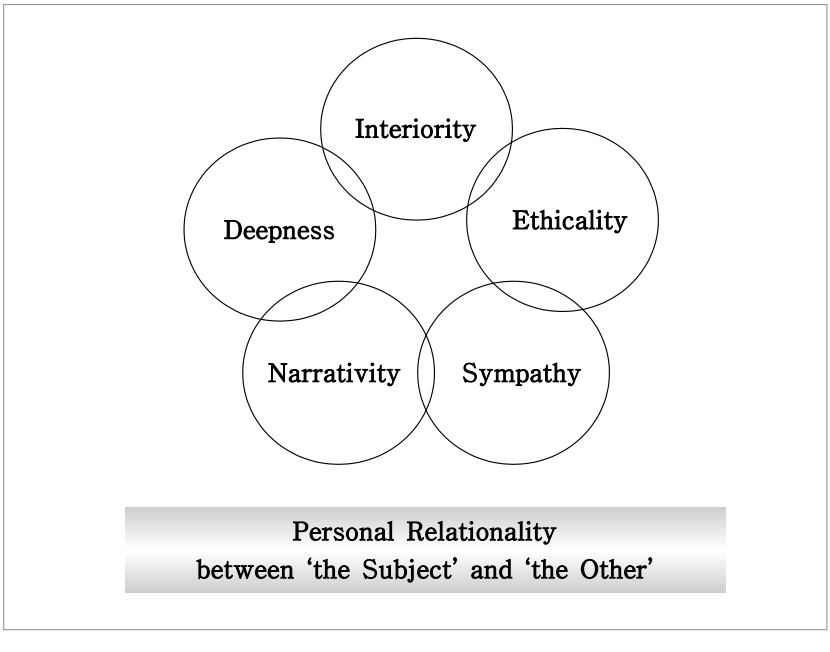


Figure 2. Characteristics of healing dialogue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을 개념화하기 전에,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돌아가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의 문제의식(이남인, 2004: 38-42)을 철학적 토대로 수행하였다. 나는 실제적 체험을 바탕으로 세 여성들과의 대화를 질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처의 발생적 근원을 이해하는 총체적인 대화 과정을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또한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활용하여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주체-타자의 근원적 관계 안에서 고찰하면서,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대화가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탐구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성이 살아있는 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상처 입은 존재의 치유와 회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찰하였다.

앞서 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정신분석학과 상담학, 철학, 미학, 간호학 등의 영역에서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탐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고 내면세계의 균형적인 힘을 회복하려는 치료적 관점의 대화는 내담자나 환자의 의식의 심층에 주목한다.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심층적인 대화의 과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내면세계의 발생적 연원을 검토하는 과정은, 치유적 대화와 내면세계의 탐구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의식이나 심리치료에 초점을 둔 대화는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근원적인 만남을 토대로 한 생활세계의 대화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대화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핵심 감정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심리치료의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 이처럼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남과 대화는 의사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를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와 기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치유적 대화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구현된 깊이 있는 대화 체험에 주목하여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대화와 치유의 존재론적 의미와 그 내적 연관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치료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 입은 존재의 발생적 연원을 고찰하는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존재와 의식이 주체 안에 고립된 상태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체적'으로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치유적 대화에서 주체가 타자와 맺은 최초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존적 토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성찰이 담긴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인식할 수 없었던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식과 감정의 구조가 주체-타자의 체험적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갔다.

또한 치유적 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가는 총체적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과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대화를 통해 주체와 타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서로의 존재를 열어 보였다.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공감적 연대를 바탕으로, 주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숙고할 수 있었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에서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대화의 과정은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체험이었다. 치유적 대화는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만남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받은 주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타인을 향해 나아갈 초월의 동력을 얻게 된다. "사랑이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라면 그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서로를 요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박찬국, 2001: 255).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둔 대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재정립해가는 과정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과 인격적 관계성을 구현하는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에 작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Kang, Y. A. (2005). *The Face of the Other: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Seoul: Moonji.]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Kong, B. H. (2017). *Philosophy of Caring and Aesthetic Practi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김선희 (2015). **철학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 경기: 아카넷.

[Kim, S. H. (2015) *Philosophical Counseling*. Gyeonggi: Acanet.]

김수연 (2013). **자전적 서사의 시각화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작업 연구: 본인의 <가족 시리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Kim, S. Y. (2013). *A Study on the Healing Trauma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Autobiographical Narrations: Based on the Work Family Serie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김준수 (2012).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71, 305-34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Kim, J. S. Der Widerspruch und die Dialektik in der Hegelschen Philosophie. *Cogito*, 71, 305-342. Institute of Human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노승수 (2018). **핵심감정 (탐구): 핵심감정의 치유와 성화의 길**. 서울: 세움북스.

[Ro, S. S. (2018). *Nuclear Feeling (Exploration): Healing of Nuclear Feeling and Way of Sanctification*. Seoul: Seumbooks.]

박병준 (2017). 현상학과 철학상담: 행복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의 방법론 모색. **철학논집**, 50(Aug), 9-4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Park, B. J. (2017). Phenomenology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The Methodological Search of Philosophical Counseling for 'Happiness Class'.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50(Aug), 9-41. Research Institute for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박찬국 (2001).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Park, C. K. (2001). *Dialogue with Erich Fromm*.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So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남인 (2001).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후설과 레비나스. **현상학과 현대철학**, 18, 13-63.

한국현상학회.

[Lee, N. I. (2001). Phenomenology of Intersubjectivity: Husserl and Levinas.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18, 13-63.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Lee, N. I. (2004).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경기: 한길사.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Gyeonggi: Hangilsa.]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Jo, Y. H.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ase. Seoul: Kyoyookbook.]

조용환 (2012a).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3-15.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Jo, Y. H. (2012a). What Changes Do We Need?.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New Public Education*, 3-15. Seoul: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조용환 (2012b).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19-3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Jo, Y. H. (2012b).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Reform in the Essence of Education.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New Public Education*, 19-34. Seoul: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조용환 (2012c).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한국교육인류학회.

[Jo, Y. H. (2012c). Educational Anthrop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5(2), 1-21.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한숭희 (2004).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Han, S. H. (2004). *Lifelong Education Theory*. Seoul: Hakjisa.]

Buber, M. (1923). *Ich und D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표재명 역. (1977).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Pyo, J. M. (1977). I and Thou. Seoul: Moonye. Trans. Buber, M. (1923). *Ich*

und D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Buber, M. (1943・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Heidelberg. 윤석빈 역. (2007). **인간의 문제**. 서울: 길.

[Yoon, S. B. (2007). The Problem of Human Being. Seoul: Gil. Trans. Buber, M. (1943・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Heidelberg.]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공병혜・홍은영 역. (2004). **돌봄과 치유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Kong, B. H., Hong, E. Y. (2004). Philosophy of Caring and Healing.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Trans.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Freire, P. (2000).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교육문화연구회 역. (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Institute of Education and Culture (2002). Pedagogy of Hope. Seoul: morning dew. Trans. Freire, P. (2000).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Fromm, E. (1976・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최혁순 역. (1988). **소유냐 존재냐**. 서울: 범우사.

[Choi, H. S. (1988). To Have or to Be?. Seoul: Bumwoosa. Trans. Fromm, E. (1976・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Heidegger, M. (1927・1972).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GmbH. Co.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Lee, K. S. (1998). Being and Time. Seoul: Kachi. Trans. Heidegger, M. (1927・1972).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GmbH. Co.]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이종훈 역. (2008).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서울: 지만지.

[Lee, J. H. (2008). Philosophy as a Rigorous Science. Seoul: Zmanz. Trans.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김성환 역. (201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경기: 연암서가.

[Kim, S. H. (2016). What is Unconsciousness?. Gyeonggi: Yeonamseoga. Trans.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Levinas, E. (1947・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서동욱 역. (2001).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Seo, D. W. (2001). From Existence to Existents. Seoul: Minumsa. Trans. Levinas, E. (1947・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Levinas, E. (1947・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Kang, Y. A. (1996). Time and the Other. Seoul: Moonye. Trans. Levinas, E. (1947・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onn: F. Cohen.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Cho, J. O. (2006). The Essence and Form of Sympathy. Seoul: Acanet. Trans.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onn: F. Cohen.]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김성동 역. (2002). **현상학적 대화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Kim, S. D. (2002). Phenomenological Philosophy of Dialogue.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Trans.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신경림・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Shin, K. R., An, K. N. (1994). Lived Experience Research. Seoul: Dongnyok. Trans.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Wolcott.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논문초록

기독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지혜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눈 세 기혼여성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대화 체험에 담긴 현상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세 여성들과의 만남을 연구의 맥락에서 다시 복원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치유를 향한 대화가 갖는 고유한 과정과 성격을 탐구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통해 세 여성들과 나눈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후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대화의 과정을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고통 속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연결되면서, 막연하게 다가오는 타인의 정서와 분위기가 상처 입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타인이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기까지 그 머뭇거림을 존중하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온전히 열어 보이는 고백과 수용의 대화를 통해 무르익었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에게 존재를 기울여 경청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타인은 자신의 깨어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다섯 가지 속성이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었다.

주제어 : 치유적 대화, 체험, 타인의 얼굴, 상처의 근원, 내면의 치유, 인격적 관계성

『신앙과 학문』. 24(4). 51-74.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51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t of Vincent van Gogh and His Calling

라영환 (Young Hwan Ra)*

Abstract

The paper puts forward a new perspective on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Although many studies on the works of van Gogh exis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s of van Gogh and his life story. Many people think of van Gogh as an artist who tragically succumbed to madness, poverty and depression, and eventually ended up killing himself, without the recognition of his contemporaries. This often told story about van Gogh hinders us from seeing him as a Christian painter that pursued God's calling. The fact that van Gogh had once desperately wanted to be a pastor, and that painting was actually his second calling that he found following his failure to become a pastor, is much lesser known to the public. In the many studies on van Gogh,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van Gogh's early life. They tend to focus on the period that he spent an active painter, from the age of 27 until his death. However, to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his artwork we must first examine the years before he became a painter.

Vincent van Gogh's journey to be a painter provides a crucial hermeneutical key to understand his work. In his early twenties, he gave up his comfortable job to find a meaningful life and found his calling as pastor. In England and Belgium, he saw the misery of human beings and had great compassion for them. This is evident from the drawings and paintings that he created and the letters in which he wrote about them. He sympathetically depicted miners, workers and peasants, on whom he looked with compassion in the same way that Jesus did. Just as Jesus devoted himself to the poor, van Gogh wanted to serve the poor through his art. Just as Jesus was with those that had been isolated from the society, He wanted to heal the people who were suffering and alienated. He looked at the poor through God's eyes and wanted to reveal the beauty in them. In his first sermon, on quoting the text from Psalms 119:19, van Gogh said "we are pilgrims, our life is a long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신학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yhr1988@hanmail.net
2019년 09월 26일 접수, 11월 13일 최종수정, 11월 21일 게재확정

walk or journey from earth to heaven". The motif of pilgrimage appeared frequently in ㅍan Gogh's works. Van Gogh himself always felt like a pilgrim that was living for another destination.

Key Words : van Gogh, calling, the pilgrimage, the eternity, the peasant paintings

Ⅰ. 서론

서양 미술사에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처럼 작품보다 개인의 삶이 주목을 받은 화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예를 들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 모네(Oscar-Claude Monet, 1840-1926),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베르나르(Émile Henri Bernard, 1868-1941) 등의 경우 개인의 삶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반 고흐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광기와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이었다. 노무라 야스씨, 나탈리 에니히(Nathalie Heinich), 주디 선드(Judy Sund), 데이빗 스위트만(David Sweetman) 앙드레 크라우스(André Krauss), 스티븐 나이페(Steven Neife), 마이어 사피에(Meyer Sapir), 잉고 발터(Ingo Walter), 안톤 베셀스(Anton Wessels)와 같은 학자들은 반 고흐의 광기에 초점을 맞추어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였다.[1] 에니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 고흐 불행과 광기에 관한 신화들은 점차로 성인전(聖人傳) 형식으로 발전되었다(Heinich, 1998: 76-91).

반 고흐가 한때 목회자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화가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후에 찾게 된 소명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비극적인 신화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 고흐의 작품세계를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라영환, 서성록, 심양섭, 안재경, 클리프 에드워즈(Cliff Edwards), 캐터린 에릭슨(Kathleen Erickson)과 같은 이들은 반 고흐의 작품 속에 깔린 기독교 세계관에 주목하였다.[2] 이러한 시도들은 광기 어린 천재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1) 노무라 아쓰시(2004); Heinich (2006); Sund(2002); Sweetman (2003); Krauss (1983); Neifeh (2011); Sapir (1980); Walter (2013); Wessels (2013).

2) 라영환 (2015b:69-90); 라영환 (2015c:69-85); 라영환 (2015a); 라영환 (2017:89-131); 서성록 (2013:7-13); 심양섭 (2011:147-172); 안재경 (2014); Edwards (2007); Erickson (1998).

비운의 예술가라는 신화로 인해 가려진 반 고흐와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연관성을 재조명하게 하였다.[3)]

반 고흐에 관한 글들을 보면 주로 그가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27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10년의 세월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반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 고흐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Borinage)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흐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반 고흐의 소명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일차적인 자료로 반 고흐의 서신들을 검토할 것이다. 반 고흐는 살아 있는 동안 동생 테오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서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나누었다. 반 고흐의 편지에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세간에 알려진 반 고흐와 편지 속에 나타난 반 고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그의 작품들이다. 반 고흐의 예술세계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 반 고흐가 자신의 화풍을 완성했던 1888년 이후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를 떠나 아를에 정착한 이후로 반 고흐는 자신만의 화풍을 형성하였다. <해바라기>,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사이프러스 나무>, <아몬드 나무>, <까마귀 나는 밀밭>, <선한 사마리아인>, <낮잠(밀레 작품 모사)>, <오베르의 거리>, <오베르 교회> 등과 같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 고흐의 초기 작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크롤러 뮐러 미술관에는 179개의 반 고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1880년부터 1883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을 보면 초기 반 고흐를 사로잡은 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반 고흐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화폭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

3) 반 고흐의 광기와 죽음에 대해서는 라영환, 『반 고흐, 삶을 그리다』(서울: 가이드포스트, 2016), 107-125를 보라. 라영환은 반 고흐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본다. 스티븐 나이페(Steven Naifeh)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Gregory White Smith) 역시 반 고흐가 총기 사용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점과 권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알이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통과한 사실을 들어 그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본다. (Naifh, Steven: 2011, 869-879)

까?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화가가 되기 이전의 반 고흐의 삶의 여정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룸으로써 반 고흐의 예술은 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II. 화가가 되기까지의 여정

반 고흐는 1853년 3월 네덜란드의 준데르트(Zundert)에서 삼대째 개혁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Neifeh, 2011: 23). 준데르트는 네덜란드의 남부에 있는 '북부 브라반트(North Brabant)'주(州)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이다.[4] 1849년 당시 준데르트는 주민이 6,000명 정도였는데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114명이었다.[5] 반 고흐의 아버지 도루스 목사는 이곳에서 1849년부터 1871년 1월까지 사역을 했다.[6]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프로테스탄트 주민 가운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략 50여 명 정도였다(Sund, 2002: 13). 비록 가톨릭 주민이 대다수였지만 도루스는 주민 대부분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동네 구멍가게에 돈을 놓아 가난한 사람이 간단한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Meedendorp, 2016: 13). 반 고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 호의와 종교적인 헌신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들은 중산층이었는데, 덕분에 반 고흐와 그의 형제들은 준데르트의 아이들과 달리 비교적 여유롭게 살았다. 서재에는 책이 많이 있었고, 저녁에

4) 준데르트가 네덜란드 남부에 있음에도 북부 브라반트라 불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브라반트의 북쪽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1183년 건국된 브라반트 공국(Hertogdom Brabant은 벨기에 남부로부터 지금의 네덜란드 남부에 이르는 땅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베스트팔리아 조약(The Peace of Westphalia, 1648)에 의해 지금의 네덜란드에 속하게 된다.

5)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 (검색일 2019.7.22.)

6) 반 고흐의 아버지 테오도르 - 가족들은 그를 도루스라 불렀다 -는 위트레흐트 대학(Utrecht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네덜란드 개혁파(칼빈주의) 목사로 준데르트(Zundert)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 참고.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XVIII.

는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었다. 가족의 일과는 책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책을 가까이하고 살았는데 그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어린 시절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평생을 가까이했던 책이었다. 그는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반 고흐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반 고흐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20대 초반 런던과 파리에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고 화가로서 길을 걸어갈 때도 성경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1877년 3월 16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편119: 105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썼다. 성경은 언제나 그의 삶의 안내자였다.

>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고 있는지 너는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1887.3.16.)[7]

> 무엇보다도 성경과 복음서를 읽어야 해. 성경은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게 할 거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사고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1880년 7월)[8]

반 고흐는 성경에서 그 시대가 겪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화가로서 자신의 사명은 성경에서 삶을 변화시킬 힘을 찾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반 고흐가 평생토록 영감을 받은 책이다. 1890년 베르나르(Bern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은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였다. 성경은 반 고흐가 평생 가까이하고자 한 책이었다.[9]

---

7) Van Gogh, 2000a: 98.

8) Van Gogh, 2000a: 198.

9) 훗날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반 고흐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의 영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한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억제해 왔습니다. 당신이 모세나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점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나 바울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 내가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것은 들라크루아(Delacroix)와 렘브란트(Rembrandt)뿐입니다. 그리고 밀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아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외의 종교적인 그림들은 약간

1869년 여름 반 고흐는 16세의 나이로 헤이그(Den Haag)에 있는 구필 화랑(Goupil & Cie)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했다. 반 고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숙부 빈센트가 화랑의 공동소유자였다(Naifh, 2011: 67). 182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구필 화랑은 판화와 복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곳으로 날로 번창해서 런던, 브뤼셀, 베를린, 헤이그, 뉴욕 그리고 파리에 지점을 세 곳이나 가지고 있었다. 구필 화랑은 초기 판화와 복제 그림을 취급하였지만,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복제품이 아닌 그림을 사고파는 화랑으로 발전했다. 지분은 구필이 40%, 숙부 센트가 30%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인 레옹 부소가 30%를 소유했다(Meedendorp, 2016:27). 비록 수습사원이었지만 반 고흐는 구필 화랑에서 일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했던 그는 미술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미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에 대한 반 고흐는 안목은 점점 더 깊어졌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들과 스페인의 궁정 화가들,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17세기 네덜란드 미술, 라파엘전파(Pre-Raphaelelite Brotherhood), 바르비종파(Barbizon School), 헤이그 파(Hague School)[10]에 이르기까지 미술사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각 작품의 주제와 양식, 색채와 뉘앙스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신진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van Gogh, 2000a: 18; Sund, 2002: 22).[11]

은 냉소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티첼리(Botticelli)와 같은 르네상스 초기 화가들이나 플랑드르 화가(the Flemish), 반 아이크(van Eyck) 와 크라나흐(Cranach) 등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삶이 근본적인 원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마음의 평안과 헌신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입니다. 그분은 모든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로서 살아 있는 육체로 일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술가는 인간의 아둔한 현대인의 머리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늘과 땅은 사라지더라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1888.6.28.)" 참고. Van Gogh, 2000c: 495-496.

10) 당시 헤이그는 프랑스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모여 헤이그파라는 새로운 화풍을 수립하고 있었다. 안톤 모베(Anton Mauve), 요제프 이스라엘스(Joseph Israels)와 같은 화가들은 야외에서 자연을 직접 관찰하며 그리고자 했다. 야외에서 자연을 직접보고 그리려는 시도는 바르비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위에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의 특징이었던 일상성을 추가하였다. 일상성과 대상을 직접보고 그리는 사실주의의 결합은 17세기 황금시대의 네덜란드 미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 놓았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11) 반 고흐는 테오필 토레-뷔르제르(Théophile Thoré-Bürger: 1807-1869)의 『네덜란드의 미술관들(Les Musés de la Holande)』을 즐겨 읽었다. 뷔르제르는 프랑스 예술 비평가이며 저널리스트로 1848년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는 혁명을 지지하는 『진정한 공화국(La Varie République)』

반 고흐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는 월급도 올랐고 특별 수당도 받았다. 그리고 스무 살 되던 해에는 정식 화상으로 승진하여 구필 화랑의 런던지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그가 받는 월급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3배인 90파운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반 고흐가 런던에 머물 당시 런던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1873년 런던의 인구는 330만 명이었고 면적은 파리의 두 배였으며 암스테르담의 15배였다.[12] 거리마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도로들이 확장되고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활기가 차 있었다. 런던에 있는 중요한 미술관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13] 19세기는 중산모(Top Hat)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남자들은 높고 챙이 작은 검정 견섬유(絹纖維, silk)로 된 중산모를 쓰고 다녔다. 반 고흐 역시 런던의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산모를 쓰고 런던에서의 삶을 즐겼다.

그러던 반 고흐의 눈에 산업화의 그늘진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반 고흐는 출근길에 스트랜드(Strand) 거리 가판대에 놓인 『그래픽(The Graphic)』과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에 실린 목판화들을 구경하곤 했다. 『그래픽』과 『런던 뉴스』는 화려한 런던 이면에 감추어진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들을 삽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Pickvance, 1974: 28). 반 고흐는 잡지에 실린 삽화들을 통해서 성장 이면의 어두운 면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van Gogh, 2000a:56). 런던에서 반 고흐는 영미문학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Pickvance, 1974: 20). 이 시기 반 고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영미문학작품들로는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1819-1880)의 『목사 생활 풍경(Scenes of Clerical Life)』, 헤리엇 비처 스토(Harriet Elizabeth Beecher Stow, 1811-1896)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의 『크리스마스 캐롤(A Christmas Carol)』이 있다(van Gogh, 2000a: 48, 87-91,196). 『천로역정』을 통해서 반 고흐는 순례자의 영성을 배웠다(van Gogh, 2000a: 87-91). 존 번연에게서

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지만 폐간당하고, 망명길에 오른다. 네덜란드에서 지내는 동안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미술 작품이 가진 일상성에 대한 강조에 매료된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 예술 작품들에 반영된 민주적인 특징들이 가톨릭과 군주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12)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검색. 2019.7.2.)

13) 1824년에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가 설립되었고, 1851년에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 그리고 1856년에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이 개관했다.

받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순례자의 영성은 훗날 반 고흐가 턴햄 그린 교회(Turnham Green Church)에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특별히 디킨스의 책을 좋아했는데 19세기 영국의 모습을 충실히 그려내면서 당시 영국 사회가 직면한 빈곤, 아동학대, 노동 및 교육의 현실과 같은 문제들을 예리한 필치로 써 내려갔다. 조지 엘리엇과 헤리엇 비쳐 스토의 작품도 디킨스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당시 반 고흐는 스펄전(Charles Spurgeon, 1834-1892) 목사가 사역하는 런던 남부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Metropolitan Tabernacle) 교회에 출석하였다. 스펄전은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다. 수천 명의 사람이 매 주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다(van Gogh, 2000a: 56).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은 반 고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설교와 성경이 자주 인용이 된 것으로 보아 영국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Sund, 2002: 79-80). 복음을 통해 위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 반 고흐는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당시 그는 남들과 비교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숙부가 구필 화랑의 공동 창업자였기에 화상으로서의 장래도 밝았다. 하지만 그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반 고흐는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그가 타버나클 교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좋았다.[14] 일에 대한 열정은

14) 반 고흐의 전기 작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 고흐가 갑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진 이유를 유지니 어설라(Eugenie Ursula) 에게 찾는다. 유지니는 반 고흐가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숙을 했던 집의 딸이다. 반 고흐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고, 용기를 내 청혼을 했지만, 바로 거절당했다. 이 첫사랑의 거절이 그를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Naifh, 2011: 95-9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반 고흐가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에 유지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평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서술하는 반 고흐의 스타일로 볼 때 만약 그가 유지니와 사랑에 빠졌거나 혹은 청혼한 것이 거절되었다면 언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유지니의 거절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견해는 지지받기가 어렵다. 반 고흐는 런던을 좋아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보았던 안개가 자욱이 낀 웨스트민스터 다리(Westminster Bridge),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 국회 의사당(House of Parliament)이 그립다고 1875년 7월 24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할 정도였다. (참고, Van Gogh, 2000a: 30) 파리에서 일 년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간 곳도 영국이었다. 만약 실연의 상처가 그를 힘들게 하였다면 런던에 대한 추억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좋지는 않았을

식어갔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구필 화랑 런던 지점장은 반 고흐가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잃은 것을 알고는 그를 파리로 전출시킨다.

하지만 파리에서도 일에 대한 반 고흐의 열정은 회복되지 않았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파리 지점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림을 파는 일은 그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삶은 윤택해졌지만,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 같았다. 반 고흐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했다. 당시 그는 몽마르트르(Montmartre) 근교에서 직장동료였던 헤리 글레드웰(Harry Gladwell) 과 함께 지냈다(van Gogh, 2000a: 40).[15] 둘은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 성경을 함께 읽었다(van Gogh, 2000a: 40). 얼마나 성경을 탐독했는지 이 시기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혹 미술작품들을 관람하기 위해 미술관에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테오에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거듭났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라고 강조한다((van Gogh, 2000a: 32,33,36). 반 고흐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 즈음이었다.

> 우리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이야. (1877.3.23)[16]

반 고흐는 끓어오르는 종교적인 열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van Gogh, 2000a: 102). 반 고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다. 그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야 하며,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굳게 믿었다(van Gogh, 2000a: 32). 토마스 아 켐피스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상당했고 열정적이었던 반 고흐가 갑자기 무기력해진 이유를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런던에서 근무하던 어느 시점에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를 느꼈고, 그 이후 성경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15) 당시 열여덟 살이던 글래드웰은 파리 구필에서 수습사원으로 지내고 있었다. 글래드웰의 아버지는 런던 구필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했고 자신의 아들을 화상으로 키우기 위해 파리로 보냈다.

16)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99.

(Thomas á Kempis, 13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는 당시 반 고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았다. 1875년 9월 27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van Gogh, 2000a: 38).

헤이그에서 화상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반 고흐는 숙부와 같이 성공한 화상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스물한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능력도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다. 일이 이렇게만 되어 간다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추구하던 일들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반 고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화랑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1876년 1월 자의 반 타의 반 해고를 당한다.

1876년 4월 반 고흐는 열정을 불사를 일을 찾아 영국 남동부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램스게이트(Ramsgate)에 있는 기숙학교 보조교사로 간다. 학생들의 부모는 가난한 노동자들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런던에서 일해야 했다(van Gogh, 2000a: 52).[17] 기숙학교 교장인 윌리엄 스톡스(William Stockes)는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수업 환경은 열악하고 음식 또한 양이 적었고 맛도 없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만 그나마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정도였다. 반 고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유대감을 키워 나갔다. 반 고흐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van Gogh, 2000a: 60-61). 1874년부터 시작된 삶의 의미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반 고흐는 렘스게이트 기숙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찾게 된 것이다. 지난 2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그래픽』과 『런던 뉴스』의 삽화들, 디킨스와 엘리엇, 비처 스토의 글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반 고흐는 런던선교회 같은 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고 싶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

17) 학교에는 열 살에서 열네 살까지의 남자아이들 스물 네 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정교사는 없었고 열일곱 살 된 보조 교사가 한 명 더 있었다. 반 고흐는 이곳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수학을 가르쳤다.

보기 위해 런던 시내에 있는 선교 단체를 두세 번 정도 방문하기도 했다(van Gogh, 2000a: 61). 하지만 아직 그에게 선교사로서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길이 열릴 때까지는 보조교사로 일을 해야 했다(Sund, 2002: 32).[18]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성경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기도 했다. 반 고흐는 또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다.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지냈다(van Gogh, 2000a: 66). 그는 이사야 61장 1절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van Gogh, 2000a: 66).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반 고흐의 모습을 본 존스(Rev. Jones) 목사는 반 고흐에게 학교보다는 교회 일에 더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존스 목사의 청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 고흐는 삶에 큰 전환기를 맞는다. 드디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은 없다(van Gogh, 2000a: 74)." 1876년 11월 10일 테오에게 한 말이다. 반 고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1878년 8월 반 고흐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벨기에 남부 몽스(Mons)에 위치한 보리나주(Borinage)의 가난한 탄광촌에 수습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다(van Gogh, 2000a: 183).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반 고흐는 이곳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선교위원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의 일과는 병자들을 돌보는 일로 시작해서 병자를 돌보는 일로 마무리되었다(van Gogh, 2000a: 187). 반 고흐는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광부들의 집을 방문해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다(van Gogh, 2000a: 183) 반 고흐는 광부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좋았다. 1878년 12월 26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자신에게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van Gogh, 2000a: 183).

당시 반 고흐가 본 광산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했다. 광부들은 새벽에 갱도에 들어가 열네 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탄광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것은 아이들만이 석탄을 캐기 위해 막장의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들도

18)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69. 당시 반 고흐는 감리교 목사인 존스(Thomas Slade-Jones)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했다.

예외는 아니었다. 아내들은 석탄을 등에 지고 옮겨야 했다.

> 어디를 둘러보아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탄이 광구 주변에 쌓여 있다. 광부들은 모두 여위었고, 열병으로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쇠약하여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에다가 겉늙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었고 지쳐 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그을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 울타리, 똥 더미, 잿더미, 쇠 부스러기에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이 즐비하다. (1879.4.16)[19]

이것이 그가 바라본 탄광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한번은 이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탄광인 마르까스(Marcasse) 갱도 지하 700m 깊이까지 들어가 여섯 시간을 돌아보았다(van Gogh, 2000a: 187). 이곳은 폭발과 붕괴, 누수, 오염된 공기 등으로 수많은 광부들이 죽어 나간 곳이었다. 탄광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3곳은 더 이상 석탄이 나오지 않아 이미 폐쇄되었고 그 아래로 두 개의 갱도를 더 파 내려가 석탄을 캐고 있었다. 그렇게 채취된 석탄은 어린아이들에 의해 카트(Cart)에 옮겨져 지상으로 올려져 나갔다(van Gogh, 2000a: 186-187). 형편없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을 본 반 고흐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탄광은 낙반 사고와 가스 폭발 등이 자주 발생했다. 반 고흐는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심지어는 옷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며 성장한 아들이 광부들과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을 본 도루스가 반 고흐에게 숙식은 편안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로 반 고흐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한 채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했다(van Gogh, 2000a: 185).

사람들은 이러한 반 고흐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그가 속한 선교회는 반 고흐가 목회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van Gogh, 2000a: 172). 성직자는 고귀하고 청결하며 세속인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당시 성직자들의 눈에 비친 고흐의 모습은 정결하지 못했다(Sweetman, 2003: 210-218). 반 고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노무라 아쓰시, 2004: 106-110). 그는 설교자와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van Gogh, 2000a:195).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

19)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186.

Ⅲ.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

1. 그림은 눈에 보이는 설교

화가로서의 반 고흐의 소명은 그가 성직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 후에 발견한 두 번째 소명이었다. 반 고흐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그림은 목회자가 되지 못한 후 차선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성직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반 고흐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설교와도 같았다(van Gogh, 2000a: 195). 그는 설교자가 하는 일과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Figure 1. Van Gogh, 〈The bearers of the burden〉, 1881, pencil, pen in brown and black ink, white and grey opaque water color on blue laid paper, 47.5 × 63cm,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반 고흐의 초기 작품들(1880-1885)을 보면 직조공과 농부와 같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반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삼은 것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van Gogh, 2000a: 416). 20대 초반 반 고흐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

다. 그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가 1881년에 그린 <부대 자루를 나르는 여인들(The bearers of the burden)>은 화가로서 고흐의 사명이 잘 나타난다. 전경에는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들이 보인다. 맨 앞에서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의 손에 램프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하루의 고단함이 느껴진다. 후경에는 탄광촌과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 오른편에 커다란 고목이 있다. 나무 하단에는 두 자루의 삽이 놓여있고, 나무 중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形像)이 걸려있다. 반 고흐는 석탄을 이고 가는 여인들 곁에 삽과 예수님을 그려 넣음으로써 노동과 안식 그리고 고통과 위로를 표현하였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자들이 즐겨 그렸던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농민들을 그릴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van Gogh, 2000b: 362).” 반 고흐는 자신을 농민 화가라 여겼다. 당시 파리의 주류화단을 지배하던 신고전주의적인 주제들도 반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보리나주 탄광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이후 줄곧 반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광부와 농부 그리고 직조공들이었다. 반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삼은 것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

>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이나 장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이들이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1880.9.24)[20]

반 고흐에게 그림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내미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당시 농민과 같은 사람들은 그림의 소재가 되지 못했다. 밀레와 같은 농민 화가들이 농부의 삶을 그리기는 하였지만 반 고흐처럼 농부의 실제 삶을 표현하지는 못했다. 반 고흐가 보기에 그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농민들의 삶은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인들의 눈에 익숙한 농민이었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농민은 아니었다. 반 고흐는 농민의 삶을 농민의 시선이 아닌 도시 여행자의 시선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농부를 그릴 때는 농부 중 한 사람이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van Gogh, 2000b: 362).”라고 말하였다. 반 고흐는 광부들과 농부 그리고 직

20)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206.

조공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자 했다.

1883년 12월부터 1885년 11월까지 누에넨(Nuenen)에서 지내는 동안 반 고흐는 31점의 소묘(Drawing), 25점의 수채화, 195점의 유화 그리고 19점의 삽화를 그렸다. 2년간 그가 그린 552점의 작품들 가운데 인물을 그린 것들은 대부분 농부와 직조공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주로 소재로 삼은 농부나 직조공 그리고 광부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그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들이었다. 만약 그가 사람들에게 팔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소재들을 화폭에 담아야 했다. 그가 이렇게 대중의 기호와 동떨어진 그림을 그린 것은 화가가 되고자 한 동기가 다른 화가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반 고흐의 작품들 가운데 팔린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1882년만 보아도 반 고흐는 구필 화랑의 헤이그 지점장인 테르스테이흐(Tersteeg)에게 한 점을 팔았고, 미술 서적과 화구(畵具)를 파는 코르 숙부에게는 3점의 작품을 각각 2.50 길더에 팔았다. 코르 숙부는 추가로 12개의 작품을 더 주문하였다(van Gogh, 2000a: 315-324). 구필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했던 반 고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보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때 더 행복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van Gogh, 2000b: 105). 반 고흐는 광부와 농부 그리고 직조공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라영환, 2015c: 79-81).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반 고흐도 그림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반 고흐가 농부와 광부 그리고 직조공들을 화폭에 담은 이유였다.

2. 순례자의 영성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흐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Turnham Green Church, Isleworth)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반 고흐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119:19)"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향하는 긴 여행입니다(van Gogh, 2000a: 87).

런던에서 한 그의 첫 설교는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천로역정』은 반 고흐가 즐겨 읽었던 책이다. 20대 초반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던 그에게 『천로역정』은 밤하늘을 비춰는 섬광과 같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안락함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며,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영원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반 고흐는 『천로역정』을 읽고 또 읽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 다음으로 추천할 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van Gogh, 2000a: 79). 반 고흐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보았다. 이러한 순례자의 영성은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였다. 박홍규 역시 삶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는 『천로역정』의 메시지는 반 고흐의 삶을 평생토록 지배하였다고 보았다(박홍규, 2013: 100). 반 고흐는 자신을 언제나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처럼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다른 곳, 다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처럼 느껴 (van Gogh, 2000b: 605)."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타라스콘으로 가는 화가의 모습>은 반 고흐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반 고흐는 자신을 화구를 들고 먼 길을 떠나가는 여행자처럼 묘사하였다.[21]

영원을 향한 여정이라는 반 고흐의 모티브는 <영원의 문(At Eternity's Gate)>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순례자의 영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1882년에 목탄화로 그린 <슬픔>이라는 작품을 다시 유화로 그린 것이다. 화면 중앙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절망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절망에

---

21) https://www.vincentvangogh.org/the-artist-on-the-road-to-tarascon.jsp (검색. 2019.7.11.).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2차대전 중 소실되었다. 프랑스의 조각가 브루노 카탈라노(Bruno Catalano)는 반 고흐의 <타라스콘으로 가는 화가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반 고흐를 여행자로 묘사하였다. 참고. https://alchetron.com/Bruno-Catalano (검색. 2019.7.11.).

빠진 노인의 모습에서『천로역정』의 한 장면이 연상 된다.

>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하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해주었다. 그전에는 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누가복음 8장 13절)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 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 난 아무 데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세상의 정욕이 제 목을 얽매였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 아! 영원한 고통!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John Bunyan, 2008: 67-70)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영원의 문 앞에서 절망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마치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절망하는 이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고 한 것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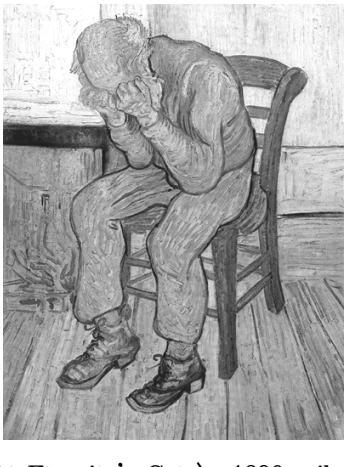


Figure 2. Van Gogh, 〈At Eternity’s Gate〉, 1890, oil on canvas, 80 × 64cm,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3:15).”라고 말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반 고흐를 평생 지배했던 중심 주제였다. 반 고흐가 1889년 6월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도 영원에 대한 반 고흐의 갈망이 나타난다. 이 그림의 주제는 별이다. 반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는 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나를 꿈꾸게 하지. 왜 우리는 프랑스 지도 위에 있는 점들과 같이 저 별에 갈 수 없을까? 타라스콘(Tarascon)이나 루앙(Rouen)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저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겠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1988. 7. 10)

반 고흐를 꿈꾸게 한 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반 고흐에게 별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영원의 세계였고, 그 ‘영원’이 반 고흐를 꿈꾸게 한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해바라기>에도 나타난다. 해바라기는 꽃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는 꽃이다. 반 고흐는 해바라기가 갖는 이러한 상징성과 해바라기의 색채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특성을 영원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갈망을 표현했다(라영환, 2015b: 77-78).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거듭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van Gogh, 2000a: 90).”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888년 6월 18일 베르나르(Emil Bern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는 씨를 뿌리고 밀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설명한다(van Gogh, 2000c: 488).

> 잠시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더 높은 것을 가르쳐주십니다(van Gogh, 2000a: 91)

여기서 반 고흐가 말하는 매일의 의무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 고흐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림이었다.

Ⅳ. 맺는말

본 논문의 목적은 신화에 가려진 참된 반 고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고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화가가 되기 이전의 반 고흐의 삶의 여정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룸으로써 반 고흐의 예술은 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 고흐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흐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화가가 되기까지의 반 고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화가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소명이었다. 그는 설교자가 하는 일과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에게 그림은 설교였다. 반 고흐가 광부와 직조공 그리고 농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화폭에 담은 것도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흐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이 설교는 반 고흐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 고흐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영원을 향한 순례라는 모티브는 반 고흐를 평생 사로잡은 주제였다. 반 고흐가 1882년에 그린 <슬픔>이라는 작품과 1890년에 그린 <영원의 문>이라는 작품은 순례자의 영성을 모티브로 그린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그림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설교였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반 고흐의 작품과 기독교 세계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 진행된다면 소명을 따라 살았던 화가 반 고흐가 더 많이 조명되었으면 한다. 미술사적으로도 반 고흐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전통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에 관

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미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확실히 반 고흐의 작품은 19세기 프랑스를 휩쓸었던 신고전주의, 바르비종 그리고 인상주의와 구별된 반 고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반 고흐가 서양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술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라영환 (2015a). **반 고흐, 삶을 그리다**. 서울: 가이드포스트.

[Ra. Y. H. (2015a). *Van Gogh, Drawing the Life*. Seoul: Guidepost]

라영환 (2015b).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 **신앙과 학문**, 20(2), 69-90.

[Ra. Y .H. (2015b). Van Gogh's Calling in light of <Still-life with Open Bible>. *Faith & Scholarship*, 20(2), 69-90]

라영환 (2015c).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앙과 학문**. 20(4), 69-85.

[Ra. Y. H. (2015c). The life and Art of Van Gogh: The Spirit of Prostantism in the Works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20(4), 69-85]

라영환 (2017). 폴 고갱과 반 고흐의 기독교 이미지 사용에 관한 연구. 서성록 (편저). **이미지와 비전** (pp. 89-131). 서울: 예서원.

[Ra. Y. H. (2017). A Study on the Use of Christian Images by Paul Gauguin and Van Gogh. Seo. S. R (Eds.). *Image and Vision* (pp. 89-131). Seoul: Yeseowon.]

박홍규 (2013).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서울: 해너머.

[Park. H. K. (2013). *A Book loved by van Gogh*. Seoul: Henemer.]

서성록 (2013).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연구. **예술과 미디어**, 12(3), 7-13.

[Seo. S. R. (2013). A Study of Van Gogh's Potato Eaters. *Art and Media*, 12(3), 7-13.]

심양섭 (2011). 빈센트 반 고흐 미술의 기독교적 의미. **신앙과 학문**, 16(3), 147-172.

[Shim. Y. S. (2011). The Christian Meaning of the Art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16(3), 147-172]

안재경 (2014). **고흐의 하나님**. 서울: 홍성사.

[Ahn. J. K. (2011). *van Gogh's God*. Seoul: Hongsungsa.]

<번역서>

김소운 역 (2004). **반 고흐, 37년의 고독**. 노무라 아쓰시 (1998). ゴッホ紀行. 서울: 큰결.

[Kim. S. W. (2004). *Van Gogh, 37 Years of Solitude*. Seoul: KunGyul. Trans. 野村篤 (1998). ゴッホ紀行. Tokyo: Kyuryudo Art Publishing.]

이동진 (역) (2008). **천로역정**.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1999). 서울: 해누리.

[Lee. D. J. (2008). *The Pilgrim's Progress*. Seoul: Henuri. Trans. John Bunyan(1999), *The Pilgrim's Progress*. Iwoa: International Outreach.]

이세진 역 (2006). **반 고흐 효과: 무명화가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Hein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서울: 아트북스.

[Lee. S. J. (2006). *van Gogh Effect: From unknown Artist to Cultural Icon*. Seoul: Art Books. Trans. Hein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Paris: Les Derniers Publications.]

이종옥 역 (2003).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Sweetman, David (1990).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서울: 한길 아트.

[Lee. J. O. (2003).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Seoul: Hangil Art. Trans. Sweetman, David (1990).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New York: Crown.]

최문희 역 (2007). **하나님의 구두.** Edwards, Cliff (2002). A Spiritual and Artistic Journey to the Ordinary: The Shoes of van Gogh. 서울: 솔.

[Choi. M. H. (2007). *The Shoes of God*. Seoul: Sol. Trans. Edwards, Cliff (2002). A Spiritual and Artistic Journey to the Ordinary: The Shoes of van Gogh. New York: Crossroad.]

<해외도서>

Gogh, Vincent (2000a).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1. London: Thames & Hudson.

Gogh, Vincent (2000b).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2. London: Thames & Hudson.

Gogh, Vincent (2000c).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3. London: Thames & Hudson.

Gogh, Vincent (2007). *Drawings and prints by Vincent van Gogh in the Collection of the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the Kröller-Müller Museum.

Krauss, André (1983). *Vincent Van Gogh: Studies in the Social Aspects of his Work*. Tel Aviv, Zmora Bitan.

Meedendorp, Teio (2016). *The Vincent Van Gogh Atlas*. Amsterdam: van Gogh Museum.

Neifeh, Steven. & Smith, Gregory W (2011). *Van Gogh: The Life*. New York: Randon House.

Pickvance, Ronald (1974). *English Influences on Vincent van Gogh*. London: Balding & Mansel Ltd.

Riner, Maria Rilke (1985). *Letters on Cézene*.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Publishing.

Sapir, Meyer (1980). *Van Gogh*. New York: Doubleday.

Sund, Judy (2002). Van Gogh. New York: Phaidon.

Wessels, Anton (2013), *Van Gogh and Art of Living*. London: Wipf & Stock.

<인터넷자료>

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 (검색일 2019.7.22.)

https://www.vincentvangogh.org/the-artist-on-the-road-to-tarascon.jsp (검색일 2019.7.11.)

논문초록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라영환 (총신대학교)

반 고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기 어린 천재와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반 고흐에 관한 글을 보면 대부분 광기 어린 천재로서의 반 고흐의 신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신화는 화가 반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 고흐가 한때 목회자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화가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후에 실패에서 발견한 소명이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반 고흐에 관한 글들을 보면 주로 그가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27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10년의 세월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반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 고흐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흐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흐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반 고흐의 첫 번째 설교는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 고흐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영원을 향한 순례라는 모티브는 반 고흐를 평생 사로잡은 주제였다. 반 고흐의 작품들, 특별히 초기 작품들을 보면 초기 반 고흐를 사로잡은 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반 고흐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화폭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그림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설교였다.

주제어 : 반 고흐, 소명, 순례자, 영원, 농민화

『신앙과 학문』. 24(4). 75-100.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75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책임지수와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황인태 (In-Tae Hwang)(주저자/lead author)*
조인영 (In-Young Ch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Research samples were selected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RT system(dart.fss.or.kr) during 2014 and 2016.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ESG Index was develop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The samples were 168 firm. 168 companies were able to measur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firms good at social responsibility are good at ROA and ROE. Second,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OA and ROE. Finally, it is shown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has a positive(+) influence on firm's financial performance. And it was analyzed to influenc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in the order of social responsibility index, TAT(total asset turnover), and SGR(sales growth rate). This is a result that shows that the general company also considers social responsibility important.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compani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ocial responsibility. Encouraging these activities would entail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irms.

Key Words : ESG Index, social responsibility, christian responsibility management, financial performance

* 협성대학교(Hyupsung University) 금융세무학과 교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ithwang@uhs.ac.kr
** 용인대학교(Yongin University) 경영정보학과 강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jju95@hanmail.net
2019년 10월 21일 접수, 11월 14일 최종수정, 11월 2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5월 11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Ⅰ. 서론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저성장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존립과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윤추구를 통한 과거의 기업목표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평등, 공의, 나눔 등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안정 및 소득향상 등의 경제적 책임영역이나 고객만족 및 투명성, 윤리경영 등을 표방하는 사회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선교적 기업(BAM; Business as Mission)은 비즈니스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업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선교적 기업은 비즈니스가 곧 선교이므로 선교와 비즈니즈가 함께 공존하는 기독교적 가치의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전개 시켜 나갈 때 경영성과를 향상 시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지배구조원은 한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ESG지수를 개발하였다. ESG지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지침과 관련 법규 등을 반영하여 한국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모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기독교세계관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성경은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던 차원에서 이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안연식, 2016: 65). 또한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내 것이 없는 청기지의 삶을 통하여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자선적 행위를 하도록 일깨우고 있다(안연식, 2016: 66). 기업은 성경 마태복음처럼 고객 만족의 경영과 투명성, 윤리경영 및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임태순, 2011: 140). 최근 기독교세계관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방안 및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창원은 앞으로 기업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평등, 공의, 나눔을 실천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기업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이창원, 2010: 91), 안연식은 복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의 우선순위를 법률적책임, 윤리적 책임, 복음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의 형태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안연식, 2016: 67). 김홍섭과 김정진도 성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성 고찰을 기초로 추진 방향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민주적 계획 입안과 운영, 수요자 중심, 공존공생의 가치 실현, 이웃사랑과 인간다운 삶의 추구, 주민참여 등을 제안하였다(김홍섭・김정진, 2014: 71).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살펴보면, 먼저 사회공헌활동(CSR)과 기업성과는 서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김형구・최종윤, 2011: 83; 천미림・김창수, 2011: 351; 마윤주・장성희, 2016: 135). 최근 ESG지수와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SG통합지수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되며 ESG통합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욱・김용현, 2013: 131; 손호철・박성규, 2015: 123). 장승욱과 김용현은 ESG통합등급(AA등급과 E등급)의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Q 등을 비교하고 ESG통합등급을 더미변수(AA등급 1, E등급 0)로 사용하여 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장승욱・김용현, 2013: 131). 손호철과 박성규의 연구는 ESG통합지수와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는데 ESG통합지수와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가 모두 더미변수이므로 영향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특히,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와의 기업

의 재무성과를 살펴보기에는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다(손호철・박성규, 2015: 141-143).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책임지수와 재무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높은 사회적책임지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비재무적지표인 ESG통합지수 중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ESG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ESG사회적책임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ESG사회적책임등급점수를 사용하여 ESG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차이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SG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의미가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ESG의 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사회적책임지수 등급과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ESG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ESG사회적책임지수로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재무성과는 총자본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사용하였고,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사회적 책임의식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인식의 제고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검토

(1)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고용, 유효수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과 법과 제도 및 규범 등 사회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법적 책임' 그리고 점차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Carroll, 1991: 39-48). 사회적 책임의 목표는 기업 및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말씀은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던 차원에서 이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안연식, 2016: 65). 또한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선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나에게 행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자선이란 행위가 담고 있는 시혜적인 성격자체가 없음을 일깨우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래 내 것이 없는 청기지의 삶을 통하여 가난한 이웃에 대해 자선적 행위를 하도록 일깨우고 있다(안연식, 2016: 66)." 기업은 마태복음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객 만족의 경영과 투명성, 윤리경영 및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임태순, 2011: 140).

김홍섭와 김정진(김홍섭・김정진, 2014: 71-72)에 의하면, "기업의 성경적 경영원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창조 명령을 통해 기업 이윤 창출의 기본원리를 정의하였고 모세오경 및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였다. 특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과 황금률 및 선교명령에서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원리를 제시하였다(김홍섭・김정진, 2014: 71-72)."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기업과 경영활동에 적용할 때 이를 성경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적 경영을 기존 기업경영과 차별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김홍섭・김정진, 2014: 71-72)."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생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

는 성경적 경영은 사회정의와 도덕적 실현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치 지향 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접근방법이나 실천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홍섭・김정진, 2014: 71-72)."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성 고찰을 기초로 추진 방향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민주적 계획 입안과 운영, 수요자 중심, 공존공생의 가치 실현, 이웃사랑과 인간다운 삶의 추구, 주민참여 등을 제안하였다(김홍섭・김정진, 2014: 71-72)." 또한, "추진 주체의 영리성 추구 여부와 성경적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의 추진방법에 따라 추진유형을 구분(김홍섭・김정진, 2014: 71-72)."하였다. "추진주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경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범위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김홍섭・김정진, 2014: 71-72)."

기독교세계관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안 및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창원(이창원, 2010: 103)에 의하면, "과거처럼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의 목적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평등, 공의, 나눔을 실천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기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평등, 공의, 나눔을 상호작용하여야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실질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특히 오늘날의 기업은 나눔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눔은 평등과 공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연식(안연식, 2016: 57)에 의하면, "복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의 우선순위를 법률적책임, 윤리적 책임, 복음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책임활동의 방향성은 일반기업의 활동이 순수 공익형 및 마케팅 접목형인데 비하여 복음적 기업의 활동은 자산의 유익함을 추구하거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복음 전파에 기여하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책임활동 모형으로 정의하였다(안연식, 2016: 57)."

아울러 이윤석(이윤석, 2016: 269)에 의하면, "우량기업이 가진 탁월함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우량기업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여러 특징이 기독교세계관에 충돌되지 않으며,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지혜로운 잠언처럼 사용될 수 있다(이윤석, 2016: 269)."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업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은 일의 세 가지 의미인 '개인의 성장', '이웃 섬김', '피조물의 잠재력 현실화' 등의 영역에서 그 대상

과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으며 우량기업들은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때에도 타당한 원리들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이윤석, 2016: 269)."

(2)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경영(CSR)과 재무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맥과이어(McGuire) 등은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은 차기 연도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McGuire et al, 1988: 854). 워독(Waddock)과 그레이브스(Graves)의 연구도 기업의 재무성과가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재무성과에 각각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Waddock and Graves, 1997: 303). 강현수의 연구에서는 ISO14001 인증 전·후, 수익과 비용의 변동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무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순이익증가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영업비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등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강현수, 2001: 68-69). 위평량의 연구도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가치에 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회공헌활동(CSR)이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공헌의 규모에 따라 기업가치와 다른 영향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위평량, 2006: 97). 최운열 등은 금융기업들을 제외한 12월 결산 일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기업가치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과 기업가치 간에 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성립되며 기부금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최운열 외, 2009: 407). 장지인과 최헌섭 은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책임활동지수(KEJI Index)을 이용하여 CSR와 기업가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책임활동(CSR)은 ROA, 토빈Q 등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인·최헌섭, 2010: 633). 김형구와 최종윤은 전년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 당해 연도의 수익성 지표인 ROA, 매출액순이익률,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김형구·최종윤, 2011: 98). 천미림와 김창수의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수행할 경우 ROA와 토빈Q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천미림・김창수, 2011: 369). 서승주의 연구에서도 CSR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기업의 잠재적 매출 증대를 가져오며, CSR활동은 비용감소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증대한다고 주장하였다(서승주, 2016: 40-43).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사회적 책임경영(CSR)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CSR)과 사회적 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신민식 외, 2011: 99). 이처럼 일반기업들이 복음적 기업과 함께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적 책임영역이나 고객만족 및 사회 기여의 자선적 책임영역에서 사회책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안연식, 2016: 57).

(3) ESG지수와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

ESG지수는 대표적인 비재무적 지표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지침과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여 한국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모형이다. “ESG지수는 한국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한국지배구조원이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전략 및 조직, 환경경영-관리, 환경경영-활동,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등 환경경영과, 종업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책임, 주권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 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개요 및 목적을 인용함).”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UNPRI(유엔사회책임투자원칙)에서 투자의사 결정 시 고려하는 핵심요소이다. ESG지수는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로 기업의 가치 판단에 중요한 지표이다(손호철・박성규, 2015: 124). 후세인(Hussain)과 호크(Hoque)의 연구에 의하면,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에 대한 성과예측에 유용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영자들이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Hussain and Hoque, 2002: 162-183). 즉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기업의 목표를 전략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지표인 비재무적 성과지표와 후행지표인

재무적 성과지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Hussain and Hoque, 2002: 162-183). 결국, 기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와 재무적 성과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Hussain and Hoque, 2002: 162-183). 조상구와 이충섭의 연구에서도 기업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무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평가에 포함하여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조상구・이충섭, 2010: 47).

ESG지수와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근혜 등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와 ESG평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오근혜 외, 2012: 3). 분석결과, 윤리경영은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에 모두 유의인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선・후관계를 분석한 결과, 윤리경영이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상호간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계로 확인되었다(오근혜 외, 2012: 3). 나영 등의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의 KOSPI200에 포함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평가등급(점수)과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ESG평가등급(점수)과 타인자본비용으로 회사채평가등급을 사용한 경우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ESG평가등급(점수)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사채 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었다(나영 외, 2013: 453). 그리고 타인자본비용으로 부채이자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ESG평가등급을 B+이상인 기업집단과 B+미만인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ESG정보와 타인자본비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ESG평가등급(점수)과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은 ESG평가등급(점수)이 높은 기업집단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ESG평가등급(점수)이 낮은 기업집단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나영 외, 2013: 453). 장승욱과 김용현은 연구에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통합등급(AA등급과 E등급)의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Q 등을 비교하고 ESG통합등급을 더미변수(AA등급 1, E등급 0)로 사용하여 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SG등급이 높은 AA기업군은 등급이 낮은 E기업군에 비하여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Q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시장가치/장부가치, 기업규모, 등급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짧고 표본 수가 작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장

승욱・김용현, 2013: 131). 이정은과 김진섭의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의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주가를 대상으로 ESG통합지수와 지배구조, 사회활동, 환경경영 등 개별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SG평가지수와 각각의 ESG개별평가지수 모두 토빈Q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 연도(t) ESG평가지수와 차기 연도(t+1)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이 역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당해 연도(t) ESG평가지수와 차기 연도(t+1)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결과는 연구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이정은, 김진섭, 2013: 81). 손호철과 박성규의 연구는 ESG통합지수와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하였으며 ESG통합지수와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ESG통합지수와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가 모두 더미변수이므로 영향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ESG개별지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와의 기업의 재무성과를 살펴보기에는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다(손호철・박성규, 2015: 141-143).

2. 가설설정

후세인(Hussain)과 호크(Hoque)의 연구에 의하면,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에 대한 성과예측에 유용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영자들이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Hussain and Hoque, 2002: 162-183). ESG지수는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로 기업의 가치 판단에 중요한 지표이다(장승욱・김용현, 2013: 131; 손호철・박성규, 2015: 124).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공헌활동(CSR)과 기업성과는 서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위평량, 2006: 97; 장지인・최헌섭, 2010: 633; 김형구・최종윤, 2011: 98; 천미림・김창수, 2011: 369; 마윤주・장성희, 2016: 149). 또한 ESG통합지수와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ESG통합지수와 기업의 경영

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되며 ESG통합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욱・김용현, 2013: 131; 손호철・박성규, 2015: 143).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사회공헌활동(CSR)과 사회적책임활동지수(KEJI Index) 그리고 ESG통합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ESG부문별지수의 경우, ESG부문별지수 우수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하거나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재무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ESG통합지수 중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ESG사회적책임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책임등급점수를 사용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ESG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와의 연구모형

1. 연구모형

(1)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오차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이분산성은 T-test의 분산 동질성검정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자기상관성은 회귀분석의 Durbin Watson을 이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VIF 값은 1.017로써 모든 변수들의 VIF 값이 다중공선성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인 10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문제는 극히 미미함을 Table 1에서 확인하였다. 이처럼 연구 자료의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 그리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pooling 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Independent Variable	Tolerance limit	VIF
Social Responsibility Rating(S_Rating)	.985	1.015
LEV	.988	1.012
TAT	.983	1.017
SGR	.986	1.014

a. Dependent variable : ROA, ROE

본 연구는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식(1)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Y_{it} = \propto + dummy_i + \beta_1 x_{it}^a + \beta_2 x_{it}^b + \beta_3 x_{it}^c + \beta_4 x_{it}^d + e_{it} \qquad \text{식(1)}$$

i = 기업 1, ..., N

t = 2014년~2016년

Y_{it} = ROA: 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산총계)

ROE: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계)

$\propto$ = 상수항

$dummy_i$ = YD: 연도더미

x_{it}^a = S_Rating : 사회적책임지수등급 (등급점수)

x_{it}^{b} = LEV: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

x_{it}^{c} = TAT: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자산총계)

x_{it}^{d} = SGR: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e_{it} = 오차항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ROA(총자본순이익률)과 ROE(자기자본순이익률)은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이다. ROA는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이 최종적으로 당기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ROE는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해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독립변수

ESG지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지침과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여 한국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모형이다. ESG지수는 환경경영, 사회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ESG통합지수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ESG통합지수와 ESG부문별 지수가 우수하면(B+이상) 1, 아니면(B이하) 0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손호철・박성규, 2015: 131). 또한 사회공헌활동(CSR) 또는 사회적책임활동지수(KEJI Index)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들도 다수이다(위평량, 2006: 97; 장지인・최헌섭, 2010: 633; 천미림・김창수, 2011: 358-359).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용치로 기업지배구조원이 공시하는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ESG사회적책임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영 등과 육근효의 연구와 같이 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나영 등의 연구에서는 ESG통합지수와 ESG환경, ESG사회, ESG기업지배구조지수들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는데 ESG통합지수는 ESG통합정량평가 총점을 사용하였고 ESG부문별지수는 ESG부문별 총점을 사용하였다(나영 외, 2013: 462-463). 또한, 육근효의 연구에서도 ESG등급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최소 2.50에서 최대 4.50까지 ESG등급지수를 점수로 균등하게 변환하여 사용하였다(육근효, 2018: 264-265). 본 연구의 사회적책임지수 등급별 변환점수(S_Rating)를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Table 2 Independent Variable Social Responsibility Rating(S_Rating) Conversion score

A+ Rating	4.5
A Rating	4.0
B+ Rating	3.5
B below Rating	3.0

(3) 통제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선정된 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ESG사회적책임지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타인자본 의존도, 자산의 효율성, 기업 매출성장, 연도 등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총자산회전율과 매출액증가율(장승욱・김용현, 2013: 131; 신민식 외, 2011: 107) 그리고 부채비율과 연도(오근혜 외, 2012: 22-24; 나영 외, 2013: 453; 손호철・박성규, 2015: 131; 육근효, 2018: 253)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시장가치대장부가치비율, 체계적위험, 영업현금흐름, 최대주주지분율, 배당률, 기업규모, 일별수익률표준편차, 산업더미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부채비율(LEV)은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총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재무성과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총자산회전율(TAT)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비율로 보유자산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출액증가율(SGR)은 외적 성장성을 분석하는 비율로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 매출액증가율은 당기매출액에서 전기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증감분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아울러, 연도별 경제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YD(연도더미)를 포함하였다.

3.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ESG의 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최초표본 180개 기업 중 사회적책임지수 등급과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12개 기업을 제외한 168개 기업을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ESG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지수로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재무성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표본대상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Table 3 Sample Selection

Original sample	180
A company without ESG Index	1
Companies unable to measure financial performance	11
Analysis sample	168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108
Wholesale and retail	24
Transportation and warehouse	1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
Service	18
Electric gas supply	3
Analysis sample	168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

Table 4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표이다. 종속변수인 ROA는 최소 -67.650부터 최대 20.20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0.323이며 표준편차는 11.261이다. ROE는 최소 -112.990부터 최대 123.8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0.771이며 표준편차는 23.702이다. 종속변수 모두 양(+)의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독립변수인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의 최소 3.000부터 최대 4.50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3.536이며 표준편차는 0.620이다. 표본기업의 S_Rating은 평균 3.536으로 사회적책임지수 등급이 평균 B+등급임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LEV은 최소 3.680부터 최대 991.23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130.756으로 부채비율의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크며 평균 130%를 보인다. TAT 최소 3.830부터 최대 278.46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84.454이다. SGR 최소 -67.600부터 최대 941.330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17.774으로 부채비율과 같이 매출액증가율도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크며 평균 17%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N	Min	Max	M	SD
S_Rating	168	3.000	4.500	3.536	0.620
ROA	168	-67.650	20.200	0.323	11.261
ROE	168	-112.990	123.080	0.771	23.702
LEV	168	3.680	991.230	130.756	140.935
TAT	168	3.830	278.460	84.454	48.693
SGR	168	-67.600	941.330	17.774	96.954

2. 차이분석

Table 5는 독립표본 T_test 검정결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평균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등분산이 가정됨). ROA와 ROE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사회적책임지수가 부실한 기업의 ROA와 ROE는 서로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Responsibility Index

Variable	All			Company with a good social responsibility index			Company with a bad social responsibility index			t-value (p-value)
	N	M	SD	N	M	SD	N	M	SD	
ROA	168	0.32	11.261	80	3.85	5.423	88	-2.88	13.957	4.050** (.000)
ROE	168	0.77	23.702	80	6.95	11.272	88	-4.84	29.932	3.318** (.001)
LEV	168	130.75	140.935	80	142.15	145.728	88	120.39	136.437	0.999 (.319)
TAT	168	84.45	48.693	80	89.48	48.237	88	79.87	48.927	1.280 (.202)
SGR	168	17.77	96.954	80	14.29	82.987	88	20.94	108.484	-0.443 (.658)

$^{**}p < .01$

3. 상관관계 분석

제3변수의 통제여부에 따라 통제하지 않을 때는 피어슨(Pearson)상관분석을 사용하고 제3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는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한다. 피어슨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 두 가지 모두 분석한 결과, YD(연도더미)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YD(연도더미)를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상관관계분석으로 사용하였다. Table 6은 편상관분석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종속변수 ROA와 ROE는 독립변수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 TAT(총자산회전율)와 0.0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이 기업의 재무성과인 ROA와 ROE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ROA와 ROE는 LEV(부채비율), SGR(매출액증가율)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은 ROA, ROE뿐만 아니라 TAT(총자산회전율)과 0.0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이 ROA와 ROE에 비해 TAT와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	S_Rating	ROA	ROE	LEV	TAT	SGR
S_Rating	1					
ROA	.288**	1				
ROE	.246**	.897**	1			
LEV	.037	-.033	-.018	1		
TAT	.135*	.236**	.231**	.019	1	
SGR	-.032	.122	.098	-.100	-.039	1

$*p < .05$, $**p < .01$

4. 회귀분석

(1) 사회적책임지수과 RO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Table 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R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2은 0.144이며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와 TAT(총자산회전율)은 0.01수준에서 SGR(매

출액증가율)은 0.05수준에서 종속변수 ROA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책임지수와 총자산회전율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인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순서로 ROA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ROA(ROE)

Dependent variable	ROA		ROE	
Variable	β	t	β	t
Constant		-4.286		-3.580
S_Rating	.267**	3.653	.217**	2.912
LEV	-.032	-.439	-.016	-.215
TAT	.208**	2.839	.210**	2.821
SGR	.134*	1.831	.107	1.434
N	168		168	
R^2	.144		.111	
F	6.841**		5.107**	

*p < .05, **p < .01

(2) 사회적책임지수과 ROE

앞의 Table 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RO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2은 0.111이며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S_Rating(사회적책임지수)와 TAT(총자산회전율)은 0.01수준에서 종속변수 ROE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책임지수와 총자산회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인 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 총자산회전율 순서로 ROE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 총자산회전율, 매출증가율 순서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비재무적 지표인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성장과 재무성과에 유용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 목표설정에 있어 반영해야 할 지표임을 증명할 결과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ESG의 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ESG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지수로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하였다. 재무성과는 사회적책임지수 등급과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비재무적 지표인 ESG통합지수 중 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검증한 결과,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YD(연도더미)를 통제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적책임지수는 ROA 및 ROE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결과,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책임지수와 총자산회전율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인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책임지수와 총자산회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인 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성경적 경영 즉, 수요자 중심, 공존공생의 가치 실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재무성과보다 이해관계자들과 공존하며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재무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책임지수,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순서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기독경영에서 시작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경쟁사,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각각 안정성, 투명성, 공정거래, 지역참여, 지역 소통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인식의 제고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기업은 기독교의 섬김, 공의, 나눔을 실천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기업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에서처럼 고객 만족의 경영과 투명성, 윤리경영 및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현수 (2001). **ISO14001인증취득이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Kahng, H. S. (2001). *Analysis of Impact of Earning the ISO14001 Certificate on Financial Ratios.*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김형구・최종윤 (20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9(2), 83-102.

[Kim, H. G. and Choi, J.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9(2), 83-102.]

김홍섭・김정진 (2014). 성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 및 관계와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9(1), 37-76.

[Kim, H. S. and Kim, J. J. (2014). A study on the conception, relationship and execution directions of the biblical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Faith & Scholarship*, 19(1), 37-76.]

나영・임욱빈・김명서 (2013). ESG 정보와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31(1), 453-487.

[Na, Y., Leem, W. B. & Kim, M. S. (2013). An empirical analysis on ESG performance information and cost of debt capital.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1(1), 453-487.]

마윤주・장성희 (2016). CSR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장기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14(4), 135-152.

[Ma, Y. J. and Jang, S. H. (2016). A study of CSR activity 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long-term orientation. *Logos management review*, 14(4), 135-152.]

변상민・김재환・남인우 (2013). 기업별 마케팅 활동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2(5), 1289-1313.

[Byun, S. M., Kim, J. H. & Nam, I. W. (2013). Long term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firm value accounting for marketing and industry factors. *Korean management review,* 42(5), 1289-1313.]

서승주 (2016). **CSR활동이 재무성과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KEJI Index 세**

부항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Seo, S. J. (2016). *The Effects of CSR Activities on the Cost of Capi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Details KEJI.*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outh Gyeongsang, Korea.]

손호철・박성규 (2015). 환경, 사회책임, 가버넌스 통합지수(ESG)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 48(2), 123-146.

[Son, H. C. and Park, S. K. (2015).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environmental activities, corporate governance and ESG Index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Business economy*, 48(2), 123-146.]

신민식・김수은・김병수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10(1), 99-125.

[Shin, M. S., Kim, S. E. & Kim, B. S. (2011).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penditure on firm valu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Engineering*, 10(1), 99-125.]

안연식 (2016). 복음적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에서의 사회책임활동 모형. **로고스경영연구**, 14(2), 57-70.

[Ahn, Y. S.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odel in the evangelical firms. *Logos management review*, 14(2), 57-70.]

오근혜・윤평구・강승모 (2012).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이 기업가치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 10(3), 3-27.

[Oh, G. H., Yun, P. G. & Kang, S. M. (2012). The effects of ethical management on firm value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Journal of finance & knowledge studies*, 10(3), 3-27.]

위평량 (2006). 상장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연구**, 21(4), 97-125.

[Wi, P. R. (2006).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 of corporate value and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1(4), 97-125.]

육근효 (2018). CEO의 사회적 책임 메시지와 지속가능성 성과의 관계: Text Mining 접근법의 활용. **회계저널**, 27(1), 253-279.

[Yook, K. H. (2018). CEOs talk about social responsibilities and sustainable performance : Applications of text mining approach. *Korean accounting journal*, 27(1), 253-279.]

이윤석 (2016). 우량기업의 특징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고찰. **신앙과 학문**, 21(3), 269-298.

[Lee, Y. S. (2016).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companies in terms of the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1(3), 269-298.]

이정은・김진섭 (2013). 기업지배구조, 사회 및 환경평가지수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분석. **회계연구**, 18(4), 81-99.

[Lee, J. E. and Kim, J. S. (2013).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alues and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index.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4), 81-99.]

이창원 (2010). 평등, 공의, 나눔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8(1), 91-106.

[Lee, C. W. (2010).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equality, justice, and sharing. *Logos management review*, 8(1), 91-106.]

임태순 (2011). 성경적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9(1), 131-146.

[Im, T. S. (2011). A study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 *Logos management review*, 9(1), 131-146.]

장승욱・김용현 (2013).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30(1), 131-152.

[Jang, S. W. and Kim, Y. H. (2013). Corporate ESG and long-run financial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0(1), 131-152.]

장지인・최헌섭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3(2), 633-648.

[Jang, J. I. and Choi, H. S. (2010).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2), 633-648.]

조상구・이충섭 (2010). 경영혁신기법의 활용정도와 비재무적성과지표 속성이 중소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0(2), 47-67.

[Cho, S. G. and Lee, C. S. (2010). The effect of utilizing management innovation techniques and attributes of non financial performance indic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 10(2), 47-67.]

천미림・김창수 (2011). CSR의 지속성이 CSR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9(3), 351-374.

[Chon, M. L. and Kim, C. S. (2011). The effect of sustai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financial performance.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9(3), 351-374.]

최운열・이호선・홍찬선 (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부금지출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8(2), 407-432.

[Choi, W. Y., Lee, H. S. & Hong, C. S.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value: Focused on corporate contribu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38(2), 407-432.]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Horizons*, 34(4), 39-48.

Griffin, J. J. and A. Prakash (2010). Corporate responsibility: Initiatives and mechanisms. *Business Society*. 49(1), 179-184.

Hussain, M. and Z. Hoque (2002). Understanding no-financial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in Japanese banks: A new institutional sociology perspectiv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5(2), 162-183.

McGuire, J. B. et al. (198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4), 854-872.

Robert, S. et al. (1996). *The Balanced Scorecard Translating Strategic into Ac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Waddock, S. A. and S. B. Graves (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4), 303-3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http://www.cgs.or.kr/)

논문초록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책임지수와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황인태 (주저자/협성대학교)
조인영 (교신저자/용인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ESG의 사회적책임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ESG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지수로 ESG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하였다. 재무성과는 사회적책임지수 등급과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책임지수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ROA와 ROE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책임지수는 ROA 및 ROE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책임지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책임지수,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순서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독경영에서 시작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끝으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장인식의 제고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ESG지수, 사회적 책임, 기독교적 책임경영, 재무성과

『신앙과 학문』. 24(4). 101-128.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101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Early Childhood Supportive Environments in Church Schools

허계형 (Kay Heoung Heo)*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for analyzing supportive environments that church schools should build to effectively fulfill the miss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with established content valid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wo hundred twelve early childhood church ministers and teacher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item discrimination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reliabil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4 factors: establishing worship routine and rules of early childhood church schools; program and curriculum materials for early childhood church schools; establishing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God and people/ between people;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for early childhood church schools. Second, results on correlations among the items, item response distribution, and the item discrimination showed to be appropriate, and the reliability was hig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early childhood church schools were discussed. A follow up action research on establish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early childhood church schools, and developing home based supportive environments were proposed.

Key Words :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ive environment, instrument development for measuring early childhood environment in Church, validity study

본 연구는 2019년 총신대학교 교내학술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kayheo@hanmail.net
2019년 11월 03일 접수, 11월 21일 최종수정, 11월 22일 게재확정

Ⅰ. 서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지원적 환경은 유아에게 안전하고, 반응적이며, 긍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 시키는 환경을 의미한다(Heo, 2019). 유아는 지원적 환경 속에서 정서발달과 정서조절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능률과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Hemmeter, Ostrosky, & Fox, 2006). 반면에, 비지원적 환경에서의 유아는 불안정한 정서가 유발될 확률이 높고, 학습능률이 떨어지고, 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김경철・이인선, 2017). 유아에게 제공되는 환경이 지원적인지, 비지원적인지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매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Kostalnick, Soderman, & Whiren, 2015).

기독교 유아교육에서도 유아의 신앙발달을 도모하고자 할 때 지원적 환경제공은 일반적인 유아발달에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 결정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지원적 환경은 유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라가도록 돕는 모든 인적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Heo, 2019). 교육은 교육의 내용을 직접 교수함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될 수 있으나(예, 직접적 성경 교수), 교육받은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적 환경을 제공함으로 기독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허계형, 2017, 2019).

허계형(2019)은 천지창조, 십계명, 구원의 통로 및 삶과 행동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성령의 사역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지원적 환경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앞서 외적인 지원적 환경으로 세상을 만드심으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을 미리 구비하셨다는 것이다(Calvin, 1554).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외적인 지원환경을 구비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유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외적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 양육자의 기본적인 책임이 된다. 유아기의 안정적 양육환경은 주양육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민감하고 세심한 양육환경이 유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환경이 될 것이므로 주양육자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명확한 행위경계로서의 지원적 환경으로 율법 -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하게 제시하셨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

거나, 인간 개인의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신 것이다(출 24:12, Calvin, 1554). 양육자가 유아를 교육, 양육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대치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양육자와 교사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연계된 활동에서 유아의 행동에 기대하는 바를, 유아들이 추정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유아가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동을 강화하여 이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교회학교와 기독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경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키어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기독인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델로 지원하신다(Calvin, 제3권 6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회복해야 할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 자기 부인과 제자도의 실제를 스스로 모범으로서 보여주셨다. 교회교육의 사명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엡 4:16) 가르치는 교회학교의 순기능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유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독교인 교사와 부모가 교회학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향해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기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사랑과 섬김으로 실현되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적 환경으로서의 성령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완성하도록 지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도우시는 성령(Calvin, 제3권, 1장 5절),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II, ii, 20)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할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기독 유아의 삶에서도 이런 노력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긍정적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닮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의 매일 일과를 구성할 때 경건

생활을 포함하고, 이 경건 생활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일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제시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발달결과가 나타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은(강영선, 정길순, 노진아, 2015; 김미혜, 노진아, 2016: 문회원, 박지연, 2008; 이효신, 김은영, 2012; 최미점, 2016; Knight, Sartini, & Spriggs, 2015) 발달에 적합하고 측정 가능한 경건 생활 일과를 매일 일과 속에 포함하여 실행을 돕고 모니터하는 노력이 유아와 양육자에게 경건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고, 안정감을 심어주어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성원, 2012; 정희영, 최영해, 정희정, 방승미, 이정규, 유희진, 2014; 함영주, 2013)는 사실에 동의한다. 자기 조절력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성인의 도움을 통해 그 조절 능력이 성숙해진다(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12). 양육자의 상호 조절(co-regulating)로 시작된 유아의 경건 생활은, 유아가 스스로 조절하고 독립적으로 경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지원적 환경을 통하여 양육하는 목표를 두고 구성된 유아의 일과는 신앙성숙과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돕는 지원적 환경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성경 교육을 실행할 때,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실현하여,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던 잃어버린 모습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힘입고 성령이 도우시는 사역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지원적 환경을 유아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원적 환경의 구비가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과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음에도 지원적 환경에 관한 연구가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희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인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하고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지원적 환경개발을 위한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척도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을 시도하는 측정도구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의 환경이 어떠한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교회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미흡한 교회학교 환경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하게 지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

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양한 교회학교 유아부·유치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부 교역자의 연락처를 취합 후, 전화 혹은 이메일로 연락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 배포를 동의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링크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먼저 참여한 유아부·유치부 담당 교역자들은 연구자의 가이드에 따라 유아부·유치부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자발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들에게 작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지링크를 배포하였다. 연구결과는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212개로, 모든 설문지는 빠트린 문항 없이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도시형태, 교회 규모, 교단, 교역자 경험을 나타낸다. 성별은 여성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령은 40대가 35%로, 학력은 4년제(32%)와 대학원졸(39%)이, 지역은 수도권에서(45.8%), 도시형태는 대도시(70.8%)가, 교회 규모는 중형교회(43.4%)와 대형교회(40.6%)가 비슷하게 표집 되었고, 교단은 장로교 합동 측(78.8%)이 상대적으로 높게 표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Category		*N*		계(%)
Gender (성)	Male (남성)	21	9.9	212(100.0)
	Female (여성)	191	90.1	
Age (연령)	20's (20대)	49	23.1	212(100.0)
	30's (30대)	46	21.7	
	40's (40대)	75	35.4	
	50's and more (50대이상)	42	19.8	
Educational background (학력)	High school (고등학교졸업)	30	14.2	209(98.6)
	2-year college (전문대학졸업)	27	12.7	
	4-year college (대학졸업)	68	32.1	
	Graduate school and more (대학원이상)	84	39.6	
Region (지역)	Seoul area (서울특별시)	97	45.8	212(100.0)
	Incheon area (인천광역시)	12	5.7	
	Daejeon area (대전광역시)	17	8.0	
	Gyeonggi-province(경기도)	69	32.5	
	Others(기타)	17	8.0	
Size of the city (도시형태)	Metropolis(대도시)	150	70.8	212(100.0)
	Small and Medium cities(중소도시)	48	22.6	
	Urban farming (도농) (a mixture of urban and rural areas)	13	6.4	
	Rural area(농어산촌)	1	.5	
Church size (교회규모)	Large(대형)	86	40.6	212(100.0)
	Medium(중형)	92	43.4	
	Small(소형)	34	16.0	
Denomination (교단)	Presbyterian church (Hapdong) (장로교_합동)	167	78.8	212(100.0)
	Presbyterian church (Tonghap) (장로교_통합)	17	8.02	
	Christian Presbyterian (기독교장로회)	7	3.3	
	Methodist church (감리교)	6	2.83	
	Holiness church (성결교단)	1	0.47	
	Baptist church (침례교단)	8	3.77	
	Others (기타 교단)	3	1.41	
	Don't know (표기하지 않음)	3	1.41	

2. 연구도구

체크리스트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근거중심실제(evidence based practice)에서 의미하는 지원적 환경 개념의 영역을 포함하였고(Hemmeter et al., 2006; Fox, Hemmeter, Snyder, Binder, & Clarke, 2011; Sailor, Dunlap, Sugai, & Horner, 2009).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성경적 관점의 지원적 환경을 고찰하여 1차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구축된 1차 체크리스트는 전문인 6인으로 구성된 전문인집단(기독교 유아교육 분야 박사 3인, 신학/기독교 사회복지 분야 전문인 1인, 현장 전문인 2인)의 내용 타당도 구축과정을 거쳤다.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지원환경으로 영역이 적절한지, 영역별 문항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각 문항은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우리나라 유치부 지원적 환경을 위해 문화적으로 타당한 문항인지가 심도 있게 토의되었고, 이의 토의와 피드백에 따라 문항의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정된 문항은 이후 유치부 교역자 3인에게 보내져,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예비문항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치부에서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유치부실의 물리적 환경’, ‘유치부 프로그램, 교재・교구’, ‘유치부의 예배일과’, ‘유치부의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대치’의 6가지 영역이며,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자문자답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점수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Category 범주	Item numbers	Content 내용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1-10	Know who God is Attitude of people who worships Appropriateness of worship environments for worshiping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예배하는 자의 태도, 유치부 예배실의 예배 적합성
Establishing positive relationships in church school 유치부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11-19	Relationships in people including children-teacher, children-minister, and minister-teachers 유아-교사, 유아-사역자, 사역자-교사 관계를 평가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유치부실의 물리적 환경	20-27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visual cues to support young children's faith -space structure to prevent challenge behaviors of young children in church schools in worshiping.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 유아의 적절한 신앙 행동을 지원하는 시각적 자료 구비 및 유아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공간구성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of church school 유치부의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28-40	Readiness and adequacy of curriculum, materials, teaching aids, lessen activities, developmentally appropiate sermon, and home activities linked to lesson activities. 유치부 프로그램, 교재・교구, 공과 활동, 유치부 설교, 공과 활동과 연계된 가정 활동의 준비도와 적절성
Worship procedure of church school 유치부의 예배순서	41-49	Self explaining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worship procedures that has visual material for worship sequence, and managing transitions effectively from worship to lesson activity. 예배순서를 알리는 시각적 단서, 예배에서 공과로 넘어가는 전이 시간 관리와 같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예배 절차 안내
Rules and expectations for behaviors in church school 유치부의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대치	50-56	Set and follow through rules and expectations for behaviors of worshiping in church school for young children 유치부 유아의 예배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대치 설정 및 수행

3. 연구절차

설문지는 초기문항 개발 이후, 전문인과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들의 피드백을 근거로 설문내용을 수정한 뒤,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온라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먼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문자 혹은 이메일 가운데 참여자의 선호도에 따라 배부되었다. 모든 대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의 개인적 자료는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설문동의 및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 간 상관분석을 통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알아보아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문항반응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문항변별도 검증을 위해 연구대상을 평균에 따라 상·하위 27% 집단으로 구분한 뒤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문항들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요인의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명확화하여 해석이 가장 용이한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11). 요인분석 결과, 예비문항개발과정에서 56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던 도구는 보통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이 .30 이상이면 적재량의 유의성이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백영균, 1993),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12개(Q11, Q13, Q16, Q17, Q18, Q19, Q29, Q39, Q40, Q43, Q44, Q49)의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4요인으로 수렴되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요인은 13개의 문항으로 요인 부하량은 .468에서 .680으로 분포되며 고유값은 11.615, 전체변량의 26.397%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유치부에서 정한 규칙은 유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규칙판)와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까?', '유치부 규칙을 유아들과 함께 작성하였습니까?', '예배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시각적 자료를 보면서 예배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등으로 유치부 유아의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대치 및 예배 절차에 대한 지원사항을 평가하는 문항들이다. 둘째, 2요인은 9개의 문항으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573에서 .764로 분포되며 고유값은 3.966, 전체변량의 9.013%를 설명한다. 요인 적재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연계 활동을 위한 교수 자료, 색연필, 가위, 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설교 본문은 유아가 이해하기에 적절하게 구성하였습니까?', '설교에 사용하는 교수 매체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합니까?' 등으로 유치부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셋째, 3요인은 10개의 문항으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410에서 .719로 분포되며 고유값은 2.743, 전체변량의 6.234%를 설명한다. 요인적재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유아들이 예수님 본받기를 좋아합니까?', '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까?', '귀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유치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등으로 유치부 내 유아와 하나님, 사역자와 하나님,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 관계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4요인은 12개의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4.57에서 .685로 분포되며 고유값은 2.565, 전체변량의 5.829%를 설명한다. 요인적재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성인이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있습니까?', '월이나 주별 설교 그림 자료 및 공과 활동 결과물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등으로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이상의

요인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1요인은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의 기대치', 2요인은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3요인은 '유치부 내 유아-사역자-교사-하나님 간 긍정적 관계형성', 4요인은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최종 구성된 44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와 Barrlett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는 .849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Barrlett 구형성 검정 값 또한 4666.922(df=946,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Kaiser, 1974).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Factor / Item Number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의 기대치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Establishing relationships 유치부 내 관계 형성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Q51	.680			
Q46	.666			
Q54	.661			
Q50	.648			
Q53	.648			
Q52	.648			
Q55	.645			
Q56	.623			
Q47	.588			
Q41	.541			
Q42	.510			
Q48	.471			
Q45	.468			
Q36		.764		
Q30		.758		
Q33		.733		
Q35		.726		
Q37		.713		
Q32		.696		
Q34		.672		

<continued>

Factor / Item Numbers	Factor 1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의 기대치	Factor 2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Factor 3 Establishing relationships 유치부 내 관계 형성	Factor 4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Q31		.618		
Q38		.573		
Q4			.719	
Q2			.681	
Q6			.629	
Q5			.600	
Q1			.574	
Q7			.557	
Q3			.539	
Q14			.507	
Q12			.440	
Q15			.410	
Q27				.685
Q9				.651
Q10				.631
Q8				.574
Q23				.572
Q22				.553
Q20				.548
Q24				.515
Q26				.493
Q25				.476
Q21				.467
Q28				.457
고유값	11.615	3.966	2.743	2.565
설명분산	26.397	9.013	6.234	5.829
누적분산	26.397	35.410	41.644	47.474

(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로서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 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부 예배일과 및 규칙과 기대치는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r=.493, p<.01),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 형성(r=.448, p<.01),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r=.527,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어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는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 형성(r=.500, p<.01),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r=.412,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은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 형성(r=.338,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모든 하위요인 간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요인 간 상관계수가 .338에서 .527 수준으로 변별력 또한 만족됨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reas

Factor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유치부 예배일과 및 규칙과 기대치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Establishing relationships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형성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1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493**	1		
Establishing relationships	.448**	.500**	1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527**	.412**	.338**	1

**p<.01

2.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도구의 문항 양호도

(1) 문항 반응분포

측정도구의 문항별 반응에 대한 정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마다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후 정규성 위배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통 왜도의 절대값이 3.0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8.0 미만일 때 정규분포가 가정된다는 기준(West, Finch, Curran, 1995)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문항들은 정규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Mean, standard deviation, Skew, and Kurt of the items

Factor	Item numbers	Items	*M*	*SD*	*Skew*	*Kurt*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Q51	Are the rules set by church school posted with visual materials for children to follow? 유치부에서 정한 규칙은 유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와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까?	2.28	.68	.50	.37
	Q46	Do you teach worship procedures to young children using visually guiding worship sequence? 예배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시각적 자료를 보면서 예배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2.56	.76	.35	-.45
	Q54	Have the church school rules decided with discussion with young children in the setting? 유치부 규칙은 유아들과 함께 토론하여 결정했습니까?	2.20	.63	1.01	1.76
	Q50	Does the church school set rules to follow? 유치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2.97	.57	-.16	.60
	Q53	Does the church school has rules on worship, praise, pray, and small group activity lessen? 예배, 찬양, 기도, 공과 활동에 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2.85	.71	-.12	-.28
	Q52	Do you introduce in advance how to behave in church school? 유치부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까?	2.83	.70	-.09	-.30
	Q55	Do you teach church school rules to children? 유치부 규칙을 유아들에게 가르칩니까?	2.85	.61	-.30	.50
	Q56	Do you teach frequently young children to know and follow rules? 유아가 규칙을 알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주 가르칩니까?	2.78	.66	-.13	-.06
	Q47	Do you teach worship routine to children who don't follow using visual worship materials (e.g. visual board)? 예배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유아가 있으면, 시각적 예배순서판을 보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2.50	.71	.10	-.23
	Q41	Worship sequence(e.g. pray-praise-preaching-offering-lord's pray-lessen activity) is displayed as a visual cue on the wall? 예배순서(예, 기도-찬양-설교-헌금-주기도문-공과 활동)를 알 수 있는 시각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2.77	.78	.29	-1.05

<continued>

Factor	Item numbers	Items	*M*	*SD*	*Skew*	*Kurt*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Q42	Do you have a visual material or signal that let children know the start and end of worship?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각적 자료 혹은 신호가 있습니까?	2.49	.76	.69	-.31
	Q48	Do you have clear transition(e.g., sermon to activity lessen) guide using sounds or visual aids? 소리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정확한 전이 (예, 설교에서 공과로 이동할 때) 지시가 있습니까?	2.89	.67	-.45	.57
	Q45	예배순서가 평소의 주일 유치부 순서와 다르게 변경이 될 경우 유아들에게 미리 공지합니까? Do you notify in advance to children if usual church school procedure is changed?	3.04	.63	-.15	-.09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Q36	Is it ready in advance for the teaching materials of the activity lessen, colored pencils, scissors, glue, etc.? 연계활동을 위한 교수자료, 색연필, 가위, 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44	.55	-.44	.25
	Q30	Does the serma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for young children to understand? 설교는 유아가 이해하기에 적절하게 구성하였습니까?	3.24	.53	-.02	.92
	Q33	Does the serman material developmentally appropriate for young children? 설교에 사용하는 교수매체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합니까?	3.19	.54	.12	.00
	Q35	Does the content and method of activity lessens develo[mentally appropriate to young children? 연계활동 내용과 방법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합니까?	3.24	.54	-.08	.76
	Q37	Are lesson materials prepared in advance for the number of children participating? 공과 자료는 유아의 수 만큼 미리 준비합니까?	3.43	.54	-.17	-1.06
	Q32	Does the preacher use the language appropriate for the child's developmental level? 설교자는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3.25	.52	.00	.91
	Q34	공과활동은 설교내용과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습니까? Does the activity lessen linked with sermon?	3.33	.52	-.02	.47
	Q31	Is the length of the sermon appropriate for young children (5-7 minutes)? 설교 길이가 유아가 집중하기에 적절한 분량(5-7분)입니까?	3.08	.61	-.17	.24
	Q38	Do you prepare teaching materials in advance before the lessen? 예배 시작 전 공과활동을 위한 자료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3.32	.57	-.29	.30

<continued>

Factor	Item numbers	Items	*M*	*SD*	*Skew*	*Kurt*
Establishing relationships	Q4	Do preschool children want to think and act like Jesus? 유치부 유아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합니까?	2.98	.47	-.07	1.65
	Q2	Do young children express gratitude for God's grace? 유치부 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까?	2.98	.47	-.07	1.65
	Q6	Are ministers/teachers serving in church school with a God-given mission? 사역자/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3.27	.52	.20	-.43
	Q5	Does ministers and teachers walk with God in their daily lives? 사역자/교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24	.49	.47	-.18
	Q1	Do young children in church school like to be participate actively in worship? 유치부 유아들이 예배시간에 즐겁게(능동적으로) 참여합니까?	3.17	.50	.06	1.62
	Q7	Do minister and teachers look forward to church school worship? 사역자/교사는 유치부 예배를 사모합니까?	3.02	.57	-.15	.64
	Q3	Do church school children confess their salvation through Jesus? 유치부 유아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신앙고백합니까?	2.89	.56	-.35	.99
	Q14	Do church school teachers interact positively with young children individually using praise, encouragement, eye contact, hug etc? 유치부 교사는 반 유아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칭찬, 격려, 눈 맞춤, 안아주기, 쓰다듬기 등)을 개별적으로 합니까?	3.49	.52	-.18	-1.50
	Q12	Do teachers and children in church school greet each other nicely? 유치부 유아들은 선생님과 다른 유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까?	3.33	.48	.61	-1.29
	Q15	Do church school teachers pray, texting, and/or call for church school children? 유치부교사는 주중에 유아들을 위한 기도, 전화 심방 등을 합니까?	2.90	.60	-.37	.88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Q27	Does church school present pictures or posters of the expected behaviors for young children? 유치부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2.36	.77	.39	-.12

<continued>

Factor	Item numbers	Items	*M*	*SD*	*Skew*	*Kurt*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Q9	Are you posting a guide ways to be the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있습니까?	2.64	.73	-.00	-.31
	Q10	Do young children's outcomes from church school activities posted weekly or monthly? 월이나 주별 설교 그림 자료 및 공과 활동 결과물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2.64	.76	.00	-.41
	Q8	Does church school environment reflect christian world view? 유치부 예배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2.44	.73	.23	-.20
	Q23	Do worship activities (e.g., sermon, or small group activity) clear by its characteristic? 예배 활동(예, 말씀, 공과) 특성은 명확히 구분됩니까?	2.68	.73	-.01	-.35
	Q22	Do the worship place different from play area in church school? 예배장소와 놀이 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2.34	.72	.41	.06
	Q20	Does worship place arranged for young children to be listen a sermon? 예배시간에 유아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이 정돈되어 있습니까?	2.98	.55	-.01	.38
	Q24	Do children have sits set? 예배시간에 유아가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2.81	.71	-.21	-.08
	Q26	Do you have visual aids(e.g. footsteps markings, helping lines to line up, etc.) to help transition? 전이를 돕는 시각적 지원(예,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발바닥 표시, 줄서기를 돕는 한 줄 표시선)이 있습니까?	2.29	.74	.37	.03
	Q25	Do children maintain personal spaces between them so that they do not get interfered by each other during worship? 예배 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아들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2.74	.63	-.34	.30
	Q21	Do places for activity lessen properly arranged for small group activities? 연계(공과) 활동장소는 유아들의 소집단 활동을 하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2.94	.59	-.13	.31
	Q28	Are there teaching materials for facilitating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children's interest such as art, music, storybooks? 미술, 음악, 신체, 동화 등 유아의 흥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교구가 구비 되어있습니까?	2.81	.65	.01	-.31

(2) 문항 변별도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변별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점에 따라 상·하위 27%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Allen & Yen, 1979). 그 결과, 각각의 요인에서 상위집단의 평균이 하위집단의 평균보다 높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p<.001$).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측정도구는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을 측정하기에 변별력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과 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Item discrimination

Category	Group	*N*	*M*	*SD*	*t*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에 대한 기대치	Upper	53	**3.16**	**.41**	13.723***
	Lower	53	**2.22**	**.28**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Upper	53	**3.73**	**.27**	14.470***
	Lower	53	**2.94**	**.29**	
Establishing relationships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형성	Upper	53	**3.44**	**.26**	10.722***
	Lower	53	**2.88**	**.27**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Upper	53	**3.08**	**.39**	11.820***
	Lower	53	**2.29**	**.29**	
전 체	Upper	53	**3.32**	**.22**	22.542***
	Lower	53	**2.54**	**.13**	

***$p<.001$

3.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 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1요인 '유치부 예배일과 및 규칙과 기대치'의 신뢰도는 .894, 2요인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신뢰도는 .899, 3요인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 형성'의 신뢰도는 .819, 4요인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의 신뢰도는 .851, 전체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인 연구에서 .6 이상의 신뢰도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 도구는 높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Standardized alpha by factor

Factor	Item Numbers	Number of Items	Reliability
Worship procedure/ Rules and expectations 유치부의 예배순서 및 규칙에 대한 기대치	41, 42, 45, 46, 47, 48, 50, 51, 52, 53, 54, 55, 56	13	.894
Curriculum/Teaching materials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30, 31, 32, 33, 34, 35, 36, 37, 38	9	.899
Establishing relationships 유치부 내 긍정적 관계형성	1, 2, 3, 4, 5, 6, 7, 12, 14, 15	10	.819
Establishing physical environment of church school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8, 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851
Total 전체		44	.930

Ⅳ. 결론 및 논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지원적 환경은 유아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경건생활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게 돕는 모든 환경적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회학교 유치부가 기독 유아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는 지원환경을 효과적으로 구비하도록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기독교 유아교육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측정 도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지원적 환경 요소를 심도 있는 문헌연구와 내용 타당도를 바탕으로 구축하고, 이의 요인을 파악하여 도구의 타당도, 문항양호도, 신뢰도를 연구하였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하였다.

첫째, 교회 유아교육 지원적 환경 평가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총 56개의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적절하지 않은 12문항을 삭제한 후, 44문항 4요인으로 수렴되었다. 먼저 1요인은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에 대판 기대치, 예배의 일과와 전이와 관련된 문항들이다. 구체적으로 유치부의 기대치가 규칙과 전이 일과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작성 및 교수 되고, 활용되는가, 예배의 일과 및 전이는 적절하게 구

성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유아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또래 유아 성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정해진 행동지침이 있다. 유아기는 인성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지속한다. 그래서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규칙과 기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규칙, 전이, 일과에 대한 기대치를 지키는 것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자기 조절력과 관련이 있다. 자기 조절은 유아기 동안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해나간다. 처음에는 외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달에 적절한 지침과 일관성 있는 훈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가 규칙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규칙과 기대치의 학습, 흐름에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회학교 유치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2요인은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로, 유치부의 프로그램과 교재교구가 예배환경으로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가, 유아의 수만큼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설교(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이 유아발달에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공과 활동이 설교의 목적과 내용에 적절히 연계되어 제시되었는가, 설교와 공과의 내용은 유아에게 적합한 용어로 제시되는가로, 문항들은 교회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에게 적절히 양적 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의 프로그램의 질이 교육의 효율성 혹은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심할 의지가 없다(NAEYC, 1995). 유아와 유아발달을 보는 철학적 관점(예, 유아 중심 혹은 교사중심)에 따라 이를 달성할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유아교육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기를 강조한다(NAEYC, 2009). 매 주일 시행되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의 교회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데 적합한 유아에게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신앙교육을 위한 지원환경이 된다. 기독교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적 환경 구성을 위해 교회의 기독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본 도구의 문항을 근거로 현재의 프로그램을 점검해볼 수 있다.

3요인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확인을 요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유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교회 유아교육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아의 신앙발달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아기 신앙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회 유아교육의 가장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 으로서 주일학교 교사와의 상호작용문항을 더하였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i.e., 교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유치부 예배를 사모하고 주중에 충실하게 준비하는지), 사람 간의 관계(i.e., 유아들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패턴, 유아들을 위한 기도 전화 심방과 같은 관계 촉진 노력의 실행 등)에 주의를 둘 것을 제시한다. 이 영역의 문항들은 교회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이 본질을 유아들에게 교수하는데 갖는 인적자원으로서의 교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4요인은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으로 물리적 환경이 유치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데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유치부 예배실이 유치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각적 자료로 환경배치 되어있는지, 예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지, 유아의 앉을 자세가 정해져 있는지, 연계 활동을 위한 장소가 소집단 활동에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예배 장소와 놀이 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전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환경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잘 준비된 물리적 환경은 반드시 화려하게 마련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 교회유치부가 가진 자원과 환경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상의 배치를 이끌어 내어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탬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영역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 문항 반응분포, 문항 변별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교회학교 지원환경 측정 문항들은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을 보여 지원적 환경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요인 간 상관계수가 만족할 만한 변별력을 나타냈다. 또한, 문항반응분포에서 정규성을 위배하지 않았고, 측정 문항에 대한 변별도가 적절하였으며, Cronbach 알파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가 교회학교 유아교육 지원환경을 측정하는데 기여할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도구는 교회 유아교육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대상이 장로교단에서 집중적으로 표집된 것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연구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는 교회학교 유치부의 지원적 환경 구축을 위한 도구 개발을 목적하였으므로 분석된 요인과 요인별 문항에 의거하여 교회유치부의 지원적 환경 구축을 위한 실행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평가도구개발과 타당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교회 유아교육이 가정과 함께 연계하여 실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용 신앙교육 지원환경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영선・정길순・노진아 (2015). 유치원에서 실시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연구**, 17(1), 27-49.

[Kang, Y. S., Jeung, G. S. & Noh, J. A. (2015).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kindergarteners' problem behaviors and basic life skil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7(1), 27-49.]

교육과학기술부 (2013).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3-5 Nuri Curriculum Handbook by Age*.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김경철・이인선 (2017). 영유아기 경험에 따른 뇌 발달 양상과 유아교육의 지원전략.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287-294.

[Kim, K. C. & Lee, I. S. (2017). The impacts of early childhood experiences on brain development and strategies to guide children to have positive experienc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2), 287-294.]

김미혜・노진아 (2016)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ADHD성향 유아의 문제행동과 활동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1(1), 43-65.

[Kim, M. H. & Noh, J. A. (2016). The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Problem Behaviors and Task Engagement of a Young Child at risk for ADHD.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1), 43-65.]

김성원 (2012).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33, 117-150.

[Kim, S. W. (2012). Suggestions for Parent Education in a Pluralistic Era: Focus on Parents of Young Childre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33, 117-150.]

노인순・문혁준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5), 25-45.

[Noh, E. S. & Moon, H. J. (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the Ability of Children's Self-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Leadership.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5), 25-45.

노지형・송현주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1-15.

[Noh, J. H. & Song, H. J. (2012). The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Problem Behavior of Preshoolers with Autism During Evening Routines at Hom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4(1), 1-15.]

문회원・박지연 (2008). 가족이 참여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가정에서의 저녁 일과시간에 발생하는 자폐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8(2), 97-115.

[Moon, H. W. & Park, J. Y. (2008). The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Problem Behavior of Preschoolers with Autism During Evening Routines at Hom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2), 97-115.]

백영균 (1993). **통계분석을 위한 SPSS pc+ 활용**. 서울: 학지사.

[Baek, Y. K. (1993). *Using SPSS pc+ for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kjisa.]

왕혜옥・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Wang, H. O.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2), 77-88.]

이가현・이정숙・이현・김현수 (2017). 양육유형과 가정환경자극에 따른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2), 43-58.

[Lee, G. H., Lee, J. S., Lee, H. & Kim, H. S. (2017). The effects of surrogate parenting type an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n children's abilities for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2(2), 43-58.]

이숙희・김민정・권미량 (2016).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한국의 유아교육 현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43-70.

[Lee, S. H., Kim, M. J. & Kweon, M. R. (2016). The status and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5(4), 43-70.]

이학식・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채.

[Lee, H. S. & Lim, J. H. (2011). *SPSS 18.0 Manual*. Seoul: Jibhyeonchae.]

이효신・김은영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유아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63-90.

[Lee, H. S. & Kim, E. Y. (2012). The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Problem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4), 63-90.]

정희영・최영해・정희정・방승미・이정규・유희진 (2014).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Jeoung, H. Y., Choi, Y. H., Jeoung, H, J., Bang, S. M., Lee, J. G. & Yoo, H. J. (2014).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Seoul: Kkum-eul Iluneun Salamdeul.]

최미점 (2016).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유아들의 수업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6(4), 1-21.

[Choi, M. J. (2016). The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the Universal Support on Classroom Behavior and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in Inclusive Preschoo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4), 1-21.]

함영주 (2013).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있어서 아동기 애착관계의 역할과 기독교 교육학적 함의. **성경과 신학**, 65, 329-353.

[Ham, Y. J. (2013). The Role of Childhood Attachment on Children's God Concept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Bible and Theology*, 65, 329-353.]

허계형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 교회교육 실천방안 연구. **신앙과 학문**, 22(4), 227-252.

[Heo, K. H. (2017).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Church Education to Teach Young Christian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ith & Scholarship,* 22(4), 227-252.]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9).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Greene,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 도서출판 CUP.

Allen, M. J., & Yen, W. M. (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CA: Brooks/Cole.

Bronfenbrenner, U. (1976). *The experimental ecology of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78, 157 - 204.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PA, USA, 1960

Calvin, J. (1554). *Genesis, Banner of Truth*, Edinburgh, UK, 1984. 김광남역 (2011). 칼빈의 십계명 강해. 서울: 비전북출판사.

Cicchetti D. (199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eactions, reflections, projections. *Developmental Review*. 13, 471 - 502.

Cicchetti D. (2013). Resilient functioning in maltreated children: Past,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402 - 422.

Fox, L., Hemmeter, M., Snyder, P., Binder, D. P., & Clarke, S. (2011). Coaching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ors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model for promoting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31(3), 178-192.

Hemmeter, M. L., Ostrosky, M., & Fox, L.(2006).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A conceptual model for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35(4), 583-601.

Heo, K. H. (2019). A biblical reflection on a supportive environment. *Chongshin Review*, 24, 49-73.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Knight, V., Sartini E., & Spriggs A. D. (2015). Evaluating visual activity schedules as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5(1), 157-178.

Kostelnik, M. J., Gregory, K. M., Soderman, A. K., & Whiren, A. P. (201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7th ed.). Belmont, CA: Wadsworth.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 Rupiper, M. Q. (2015).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urriculum: Best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6th ed). Toronto; Pearson.

Masten, a. & Garmezy, N. (1985). *Risk,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Lahey &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ume 8. Boston, MA: Springer.

NAEYC(2009).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eight. A position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NAEYC(1995). Quality, compensation, and affordability. A position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Sailor, W., Dunlap, G., Sugai, G., & Horner, R. (2009). Handbook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Springer.

Sameroff, A. & Chandler, M. (1975). Reproductive risk and the continuum of care

taking casuality. In F. Horowi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pp. 187-2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 edit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논문초록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허계형 (총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가 교회유아교육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되어야 할 지원적 교육환경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전문인 내용 타당도 과정을 거쳐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회유치부 사역자와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Pearson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한 문항변별도, 그리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교회 유아교육 지원환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유치부 예배순서 및 규칙의 기대치, 유치부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유아-사역자·교사-하나님 간 긍정적 관계, 예배실의 물리적 환경 요인을 나타냈다. 둘째, 탐색된 요인들의 문항 간 상관관계, 문항 반응분포, 문항변별도는 적절하게 나타났고, 신뢰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교회 유아교육 실행방안을 논의하였고, 교회유치부의 지원적 환경 구축 실행연구와 가정과 연계한 지원적 환경 구축을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회유아교육, 지원적 환경, 교회 유아교육 환경 측정 도구 개발, 타당화연구

『신앙과 학문』. 24(4). 129-156.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129

「룻기」에 나타난 다성성과 그 함의

Polyphony in "the Book of Ruth" and It's Implications

김철수 (Cheol-soo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s in the narratives of "the Book of Ruth," Old Testament's eighth book, in the light of Mikhail Bakhtin's theory of dialogism composed of the concepts such as 'polyphony' and 'carnival' and re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text. The significance of this approach lies in the possibilities for a reader to analyze the Bible,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and monologic books, which is read, meditated upon and applied to life, on the basis of literary theories or devices tracing diverse voices in it. For such analysis will provide the reader with a new perspective from which he or she can find God's Will permeating into the diverse voices in the text. In fact, "The Book of Ruth," which deals with the history of the survival of a Jewish family, contains in it diverse voices in tension. There are the voices of ancient Jews despising and excluding strangers, that of a gentile having her voice heard in the relationships with the Jews, and also that of the narrator demonstrating the *status quo* of Israel of the time. And all of the voices are interwoven in a clever way to manifest the provisions and plan of God, who intervenes in important historical moments, providing gentiles with a more honorable status than Jews, and handing over the leadership to women in a male-dominated society, in the forms of dialogic polyphony and carnival.

Key Words : Book of Ruth, narrative, Bakhtin, dialogism, polyphony, carnival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졸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신 광주동명교회 이상복 담임목사님과 치밀하고 적확한 심사를 통해 졸고의 오류들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대학교(Chosun University)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charles@chosun.ac.kr
2019년 10월 21일 접수, 11월 14일 최종수정, 11월 23일 게재확정

Ⅰ. 들어가는 말

「룻기」(The Book of Ruth)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구약성경 중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그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4장 85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분량 안에 한 가족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사사기」와 「사무엘 서」의 사이, 즉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의 한 중심에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만만치 않은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책은 기독교의 교리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신학과 문학, 그리고 사회·문화학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활발한 연구의 소재가 되어오고 있다.

히브리 성경(Tanakh) 중 소위 성문서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섯 두루마리(Five Megilloth)[1] 중 한 편에 속하는 「룻기」는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저술된 일종의 문학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기민석, 2009: 68, 김진명, 2013: 43). 매년 칠칠절(오순절) 행사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낭독되고 있는(Wells, 2009: 5) 이 이야기는 "공동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과 서사적 정체성을 강화"(Ricoeur, 1990: 187)시킴으로써 그 특별한 의미를 도출하게 되는 일종의 '역사적 서사(historical narrative)'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가의 혈통적 정당성이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지극한 가족애, 그리고 개인적인 인내와 절제를 바탕으로 한 신의의 주제에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예표하는 신학적 상징성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다민족' 또는 '다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 태도의 문제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못하던 시대에 "룻의 신의가 빛을 발하"는 이야기(기민식, 2015: 29)나 아브라함(Abraham)과 모세(Moses)와 다윗(David) 등 소위 "귀환 이주자"의 신분으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한 인물의 이야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중호, 2012: 184). 변경원은 프랑스 철학자 리쾨르(Paul Recoeur)의 미메시스 이론을 바탕으로 「룻기」에 대한 세 단계의 미메시스 해석

1) 유대교의 성경은 율법서 (토라, Torah, תורה), 예언서 (네비임, Nevi'im, נביאים), 성문서 (케투빔, Ketuvim, כתובים)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룻기」는 「아가서」, 「예레미아 애가」, 「전도서」, 「에스더」와 함께 유대인의 명절에 낭독된다. 예를 들어 「룻기」는 칠칠절에, 「아가서」는 유월절에, 「예레미아 애가」는 예루살렘 함락일에, 「전도서」는 초막절에, 그리고 「에스더」는 부림절에 각각 낭독되었다. 장일선, p. 50, 각주 1) 참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독자의 주체성이 룻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문화 여성들의 주체성 확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변경원, 2016: 287-307 참조).

유연희는 이 책에 대하여 인간관계의 신의와 의무를 지킨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젊지 않은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와 그리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 이방 여인 룻의 "로맨스," 다윗 가문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다윗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여러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연대 이야기" 등으로 정리하고, 끝으로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넘어와 우리더러 넓은 세계관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성공한 글로벌시민"이라고 주인공 룻의 정체성을 정의한다(유연희, 2009: 75).

그런가 하면 황선우는 「룻기」의 내러티브를 꼼꼼히 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이 작품 속의 서술자는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문맥 속에 숨어있는 은둔형 서술자로서, 그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경우는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요약과 결과를 말할 때, 독자의 주의를 끌고자 할 때,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대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라고 정리하면서 이 책 속의 인물과 서술자의 내러티브의 형식과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황선우, 2017: 12-18).

그 외에도 「룻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한 흥미로운 글로는 일찍이 이 책의 문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장선우의 논문과 그 속의 구전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어 각각 '말장난,' '끼어들기,' 또는 '추임새' 등 이야기꾼으로서의 화자의 기교와 '상상,' '구조,' 그리고 '언어유희' 등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결국 이 이야기가 "불공평한 사회의 약자들이 처절한 노력 끝에 얻어낸 생존 승리의 이야기"라고 평가한 논문들이 있다.[2)]

한 편의 문학작품의 내러티브를 분석해 보는 작업은 서술의 기교를 통해 그 주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성경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세속의 문학에서는 그 해석의 결과로 드러나는 세계를 인본주의를 근거로 하여 작가나 독자 일반이 지향하거나 해야 하는, 혹은 텍스트 자체를 통해 구현되는 세계관이나 인간관에 대한 반영체로 여기는 반면, 성경 문학에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그것을 섭리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윤형철은 성경 읽기를 "단일하고 확정적인 의미를 찾고자 본문을 탐색하는 작업"으

2) 장일선, 룻기의 문학적 연구. 50-76과 기민석, "룻기 듣기," 그 이야기체와 여성 문제. 65-94 참조.

로 축소해 온 “보수복음주의의 성경권위담론”이 “성경 본문을 향한 충실함과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적용 사이의 간극을 벌려왔다”고 비판하며,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른’ 목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 성서 해석의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핵심적인 해석학적 통찰”을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해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자아와 문화라는 우상을 파괴하기,” “성경과 삶의 지속적 결부 촉진하기,” 그리고 “타자성”을 근거로 한 “다른 목소리들 경청하기”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윤형철, 2013: 173-210 참조).

히브리 성경 중에서 회당에서 읽히는 율법서가 아니라 절기 중에 일반 민중들 앞에서 낭독되었다고 전해지는 「룻기」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다수의 논문들은 이 책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삶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진명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을 전개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제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방 지역 출신 여성의 삶을 여정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풍요와 다산의 주제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한 “종교적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진명, 2013: 61).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신학적, 역사·철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룻기」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에 힘입어, 러시아 출신 문예 이론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Mikhailovich Bakhtin)의 대화주의(Dialogism)를 구성하는 일부 이론들을 바탕으로 룻과 나오미의 삶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룻기」의 내러티브의 전개 및 발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부 특정한 패턴들을 바흐친이 주창한 대화주의 이론의 구성요소인 ‘다성성’(polyphony)이나 ‘카니발’(carnival)의 개념에 비추어 분석해 보고, 그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의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의의는 “하나님의 감동”(딤후 3: 16)으로 기록된 가장 권위적인 담론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로서 읽히고 묵상되고 적용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통해 그 작품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들의 충돌과 긴장의 양상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일종의 ‘문체적 천로역정’을 추적해 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바흐친의 대화주의: 다성성, 그리고 카니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이라 할 수 있는 대화주의는 대위법(Counterpoint)에 의한 여러 독립적인 멜로디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다성음악'(polyphony)에서 출발한 소위 '다성성'의 모체가 되는 이론으로서,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Bakhtin, 1990: 112)라는 바흐친 자신의 명제를 전제로 "인생의 본질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형식은 열린 대화"(Bakhtin, 1984a: 293)라고 주장한 그의 소설이론이다. 그의 이론은 완성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비종결성'(unfinializability), 언어의 다양한 형식과 작용을 강조하는 '이어성'(heteroglossia), 작품 내부의 다양한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다성성'(polyphony), 그리고 그 모든 장치들의 총화로서 권위적이고 공식적인 세계를 무너뜨려 모두가 평등한 축제를 이루어내는 '카니발'(carnival) 등과 같은 주제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성성'의 상대적 개념으로 '단성성'(monophony)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권위적 담론"(authoritative discourse)은 "권위-정치적 권력, 제도, 사람 등-과 매우 밀착되어 있으며"(Bakhtin, 1981: 343) 타자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성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타협이 없이 일방적인 "독백주의"(Bakhtin, 1984a: 292)로 흐르게 된다.

바흐친의 '다성성'은 한 작품 내에서 작가의 목소리, 즉 등장인물이나 주인공 혹은 서술자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자 하는 작가의 저작 의도가 다른 여러 개별적인 담론 주체들의 담화 속에 파묻혀서 그 카리스마를 상실하고 오히려 작품 내의 투쟁 혹은 경쟁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공격 속에 노출되는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다. 도스또예프스끼(Dostoevsky)의 소설의 핵심적 특성이 되고 있는 "독립적이며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각기 동등한 권리를 지닌 목소리들"(Bakhtin, 1984a: 6)이 그 구체적인 실례들이라 할 수 있다.

> 독립적이며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각기 동등한 권리를 지닌 목소리들의 진정한 다성음은 실제로 도스또예프스끼 소설의 핵심적 특성이 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전개되는 것은 한 작가의 의식에 비친 통일된 객관적 세계의 여러 성격과 운명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각자 자신의 세계를 가진 다수의 의식이 비융합성을 간직한 채로 어떤 사건의 통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술가 도스또예프스끼의 대표적 주인공은 그의 창조적 구성

속에서 작가 담론의 객체가 될뿐더러 독자적이고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담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Bakhtin, 1984a: 6-7).

다성성의 개념은 다시 '카니발의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 '카니발'은 과거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소위 '마르디 그라'(Mardi gras)라 불리는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욱동, 1988: 239). 바흐친은 이 개념을 프랑스의 그로테스크 소설가인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소설 세계를 정리한 그의 저서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elais and His World*)에서 문학비평의 한 장치로 체계화했다. 소위 카니발의 세계에서는 공식적 세계와 비공식적 세계를 구분하며, 그 두 세계 사이의 대화적 긴장 가운데서 공식적 세계가 비공식적 세계에 의해 조롱을 당하게 되고 두 세계를 하나의 큰 세계로 합병시키면서 유쾌한 상대성을 추구하게 된다.

카니발이 벌어질 때면 일상적 생활의 질서와 체계를 규정짓는 구속, 금기, 법칙들이 제거된다. 무엇보다 먼저 위계질서와 거기에 관련된 공포, 공경, 경건, 예절 등의 형식이 제거된다. 즉 사회적・계급적 불평등이나 (연령의 차이를 포함해) 그 밖의 불평등과 연관된 모든 것이 제거됨을 말한다. 또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도 모두 제거되고 카니발 적 특유의 카테고리인 자유롭고 스스럼없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Bakhtin, 1984a: 122-123).

문학 연구의 분석 틀로서의 '다성성'은 첫째, 권위적이고 공식적인 질서에 대한 대화적 타자로서의 비공식적 질서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어 약자의 목소리를 무대 위로 등장시키는 소위 '전복'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한다. 둘째로,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작품을 이끌어가던 소위 '전지적 작가' 혹은 '권위적 작가'가 자신의 위상을 지우고 각 등장인물의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에 스며들어, 그 목소리들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열린 결말'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바흐친의 다성성이 담지하고 있는 기독교적 모티브는 그의 종교적 성향을 이해한 슬라브계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하일로비치(Alexandar Mihailovic)는 "기독론의 모티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의 대화, 카니발, 그리고 다성성의 중요한 어휘에 침투해 있다"(Mihailovic, 1997: 15)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츠(Ruth Coates)는 또한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하고 있다.

>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악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신에게 불순종했을 때 인간의 영역에 들어왔고, 죽음과 타락을 불러왔다. 그 후로 신의 생명의 법은 두 번째 아담이 성육신하여 인류를 그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구속하기 위해 보내지기까지 죄의 죽음의 법과 가망 없는 투쟁을 계속했다. 나의 주장은 바흐친이 그의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 타락과 성육신의 모티브를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흔들리지 않는 전제들 중 하나는 세계가 두 개의 적대적인 세력의 투쟁의 장이라는 것과 그것의 존속은 "선한" 세력의 지속적인 복구력(명백한 승리는 아니더라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Coates, 2001: 63).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를 신봉하는 지식인"(Clark & Holquist, 120)이었던 바흐친은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왕'에게 왕관을 씌웠다 벗기는 장면"으로 성서의 카니발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akhtin, 1984a: 135). 이것은 곧 바흐친이 자신의 문학적 이론인 다성성이나 카니발을 "죄와 사망의 법"(롬 8:2)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여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코츠 역시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이 표면상으로는 그의 모든 저작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주장하며, "바흐친은 우주 최고의 바보이자 카니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담론 속에 그것[카니발의 정신]이 예표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논평하고 있다(Coates, 2004: 125).

요컨대, 소설 분석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다성성'과 '카니발' 등의 개념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범죄와 회개를 거듭하는 인류가 온몸으로 부대끼는 갈등과 투쟁의 현장이며, 또한 그 속에서 "그[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 3:16)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으로서의 세계를 상징하는 바흐친 자신의 창조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바흐친의 소설이론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룻기」의 내러티브 분석에 적용하는 것 역시 일면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룻기」에 나타난 두 세계

1. 단성적 담론과 다성적 담론의 격전장으로서의 텍스트

매튜 헨리(Mathew Henry)는 「룻기」주석의 서론에서 이 책이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둘째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대 주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각 장의 주제를 "나오미와 룻의 고통(1장), 그들의 근면과 겸손(2장), 그들이 보아스와 한 가족이 됨(3장), 이로 인한 행복한 정착(4장)"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헨리, 2009: 644). 다른 한 편으로 이 책은 "한 편의 훌륭한 단편소설"(a classic short story)이며 그것도 "지금껏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단편소설"(the most beautiful short story)(Huey, 1992: 509)이라고 칭송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은 다윗 왕의 조상들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조국과 친척들을 떠나 다윗 왕가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단순하면서도 매력적인 역사적 서사의 형식과 부드럽고도 다정다감한 내용의 조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Keil & Delitzsch, 1991: 465).

이처럼 신학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의 완벽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룻기」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간주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이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아니라,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한 서술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다성적 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의 담론 속의 '다성성'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술했던 윤형철의 주장과 같은 '단일하고 확정적인 목소리'만을 찾고자 하는 보수주의 신학의 배타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소위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룻기」를 문학적으로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의 내러티브 구조가 ABC/C'B'A'의 형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각각 "활모양의 형태"(장일선, 1985: 53), "미술의 데칼코마니(decalcomanie)"(기민석, 2009: 81), 혹은 "수미상응구조"(Eunny Lee, 김진명, 2013: 50 재인용)를 이루고 있으며, "공허함으로부터 충만함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진명, 2013: 50. 각주 20). 실제로 「룻

기」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1장에서는 1-5 중심이 와해된 공허와 공포의 가족사를 시작으로 6-18 여성 인물들 사이의 가족 관계의 재정립, 19-22절 나오미의 귀환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묘사된다. 뒤이어 2장에서는 1-3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 생계를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룻과 나오미, 4-17. 룻과 보아스의 만남, 18-23 룻의 귀가와 보고의 과정이 설명된다. 며느리의 장래를 염려하며 그녀에게 보아스와 자신의 집안의 관계를 설명한 후 다시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3장의 1-5절은 2장의 1-3절과 겹치는 부분이고,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6-15절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묘사하는 2장 4-17절과 겹치며, 그 만남의 결과를 보고하는 16-18절은 역시 2장 18-23절의 보고 부분과 겹치게 된다.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되는 4장의 1-12절은 기업을 무를 친족 관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1장 6절-18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정리의 장면과 닮았고, 오벳(Obed)이 태어난 후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의 축복을 받는 13-17절은 1장 19-22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는 동네 아낙들의 모습과 닮아있으며, 마지막으로 베레스(Perez)에서 다윗왕에 이르는 족보의 제시는 죽음으로 인해 와해되었던 공허와 공포의 가족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완벽한 대칭의 구조는 이 책의 문학적 탁월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고난과 공허와 공포로부터 존귀함과 풍요로 이어지는 가족사의 이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 스며있는 '다성성'과 '카니발'의 흔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에 압축된 10년 이상의 시공간은 당시 이스라엘에 팽배해 있던 환경적 단성성이 일거에 전복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단성성'이란 다른 목소리나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서술자는 바로 직전 장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삿 21:25)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룻 1:1)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호수아의 팔레스타인 정복 시기로부터 사울왕에 의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치적 혼돈의 시대"였으며,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이웃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 무질서한 국가를 침범하며 괴롭히던"(Huey, 1992: 509)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의 흉년은 흔히 이스라엘 백

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강병도, 1989: 899)로 해석된다.

베들레헴(Bethlehem)이라는 지명과 엘리멜렉(Elimelek)이나 나오미(Naomi), 그리고 말론(Mahlon)과 기룐(Kilion)이라는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은 정확한 시대적 배경이나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경과시킴으로써, 본문에 대한 문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향후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룻 1:1)라는 도입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암시하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빵집(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장 엘리멜렉은 각각 ‘나의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내 나오미와 ‘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큰아들 말론, 그리고 ‘어지러움’ 또는 ‘낭비’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기룐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변경원, 2016: 298).[3]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름을 가진 가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물질적인 환란을 피해 이방의 땅,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와 이스라엘을 저주한 일로 인해서 10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것이 금지된(신 23: 3-6, 느 13: 1) 모압 족속의 땅으로 이주한 것은 당시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 엘리멜렉의 타협이 없는 독단적인 결정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룻 1: 21)고 토로했던 나오미의 고백으로 유추하건대,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뭄으로 발생한 흉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에게 손을 벌릴 동족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이방 땅에서의 10년간의 삶의 결과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인구로 계수되지도 않던 여자들, 즉 명분상 가문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

---

3) 휴이는 두 아들들의 이름이 그 어근에 의거하여 말론은 “불모,” 혹은 “병약함”으로 해석되고, 기룐은 “끝나다,” 혹은 “약해지거나 수척해지다”라는 의미로 추측될 뿐, 실제 의미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Huey, 1992: 519 참조).

4) 물론 여기서 나오미가 말한 ‘풍족함’은 재산의 풍족함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이라는 든든한 인적 배경을 의미한다는 주장(Huey, 1992: 525, Keil & Delitzsch, 1991: 465)이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나오미와 룻의 빈한한 삶에 비추어 재산의 풍부함과 가족의 든든함을 모두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강병도, 1989: 907). 따라서 엘리멜렉 가족의 이주 이유 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요소도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 없는 여성들만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주저 없이 떠나버렸던 엘리멜렉과는 달리 나오미의 경우는 집안사의 모든 결정권이 남성에게 있는 유대 가정의 전통 속에서 남편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왔으나, 계속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그녀의 믿음의 태도는 며느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술자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룻 1: 6)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 없이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룻 1: 6)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간 십 년 동안 그녀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즉 그녀는 모압으로 이주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 흉년이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태도로 두고 온 고향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던 그녀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그녀의 움직임이 그 기준점을 '현재 있는 곳'이 아닌 '이전에 있었다가 떠나온 곳'에 두고 있는 "돌아오려"(룻 1: 6) 했다는 어휘로 표현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론 가능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룻 1: 11-13)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명기 25장 5-6절에 명시된 소위 '계대혼인제'(형사취수제) 제도를 통해 대를 이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두 며느리가 모두 이방인인 데다가 집안에 대를 이어 줄 남자가 한 사람도 없는 물리적 한계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룻 1;13)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결정권을 주

고자 하는 결심을 밝힌다. 나오미의 말을 서술하는 서술자와 나오미 자신 및 두 며느리의 대화 중에 “여호와의 손”을 언급하는 나오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에 ‘동지’ 혹은 ‘친구’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 16)라는 유명한 고백과 더불어 자신이 나고 자란 땅과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반대로 ‘등을 돌리다’ 또는 ‘반항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르바(Orpah)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작별의 입맞춤을 한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장면은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서 볼 때, 오르바도 나름대로 시모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강병도, 1989: 905)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그녀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시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언급을 들은 후 이별을 고한 그녀의 태도는 마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 9)고 말하며 목적지의 선택에 우선권을 주었던 아브람(Abram) 앞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창 13: 10)던 소돔 땅을 택했던 롯(Lot)의 경우를 연상시킨다.

룻은 자신이 비록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 출신이지만, 자신의 현재의 정체성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족속으로 편입되기로 결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과 향수와 믿음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남성들이나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와는 다르게 ‘다성적’ 성격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성적이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여성을 맞이해 주는 베들레헴 유대인들에게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룻 1: 19-22).

귀향한 나오미를 맞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은 그녀를

다신 본 것에 대한 기쁨이나 비참하게 변한 그녀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Huey, 1992: 525)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 즉 "남편도 아들도 없는 외로운 과부로 돌아온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에 대한 연민과 놀라움"(Keil & Delitzsch, 1991: 476)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서술자가 이러한 동네 사람들, 특히 여인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의성어"(Huey 1992: 524)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풍족한 상태에서 고향을 등졌다가 정작 자신이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맨손으로 돌아왔으므로 성읍의 짐이 되지 않을까 하여 떠들썩했는지도 모른다"(헨리, 2009: 662)는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급격한 시공적 변화와 더불어 묘사해 주고 있는 제 1장 사건의 배경 속에서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면모를 보이는 '단성적' 성격의 개인과 집단,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다성적'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관찰자의 자세로 묘사하며 그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서술자의 내러티브("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룻 1: 6)가 격렬한 긴장의 구조를 이루며 룻과 나오미에게 앞으로 일어날 험난한 여정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2. 보아스와 룻: 단성적 세계 속의 다성적 인물들

「룻기」 2장에서 서술자는 "이스라엘의 가족법과 관습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며 소망을 주는 소재"(황선우 13)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것은 이른바 '고엘' 제도의 가능성이다. '고엘' 제도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 25)라는 구약의 계명을 바탕으로, 소위 '계대혼인제'와 더불어 공동체 존속을 위해 지켜지고 있는 중요한 관습이다.[5)]

5)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혼인제'(Levirate Marriage)와 기업 무를 자(Kinsman-Redeemer)를 의미하는 '고엘'(גאל)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복합적인 하나의 관습인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이 둘은 율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강병도, 1989: 909-10). 그 어원적 의미로는 단순히 친족(kinsman)을 뜻하는 말이었던 고엘은 그 친족이 행하는 역할에 따라 '보수자'나 기업 무를 자 등으로 번역된다(제자원, 1995: 766). 이 관습의 중요성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

제 1장에서 물리적인 한계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서술자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룻 2: 1)로 보아스(Boaz)라는 인물을 소개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와 룻을 소개하는 서술자는 일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수식어 속에는 '전지적 서술자'라기 보다는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들의 영향을 자신의 내러티브에 포함시키고 있는 '다성적 서술자'의 서술 형식이 눈에 띈다.

이 서술자는 그 두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들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평판이나 수군거림을 첨가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자"(룻 2: 1)라거나 "모압 여인 룻"(룻 2: 2)이라는 수식어들은 서술자가 독자를 위해 친절하게 일러준 것이라기보다는 객지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십 년 이상을 지내다가 궁핍해져 돌아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예견되는 지역의 한 유지 사이의 관계성을 발견한 베들레헴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 교환되는 미묘한 감정들을 섞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나오미의 정체성이 아직도 죽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있고, 유대인과 결혼하여 이미 유대 가문의 일원이 된 룻이 여전히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로 묘사되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담론에서 은연중에 배타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낯선 소녀 룻의 정체를 묻는 보아스의 질문에 대하여 사환 소년은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룻 2: 6-7)라고 대답한다. 그의 이러한 대답은 "룻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강병도, 1989: 922) 하고 있으며, 또한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녀의 이력이 "이 사환 소년에게도 잘 알려졌다"(Keil & Delitzsch, 1991: 478)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모압 소녀'라는 수식어로 룻을 자신들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어투를 감안했을 때, 룻의 일하는 태도에 대한 그의 놀라움이

말 사이의 일화에 잘 드러나 있다.

단지 긍정적이기만 했을까 하는 의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룻 2: 11)라고 룻의 그간의 행적을 칭찬하는 보아스의 말에는 룻의 여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측은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가 이 소녀를 위해 주변의 소년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거꾸로 재고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삭 줍는 들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는 소년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룻 2: 9)고 지시하였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룻 2: 15-16)고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를 명령하는데,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하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부잣집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와서 당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생계를 위해 “우연히”(룻 2: 3) 일을 시작한 곳이 그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네 밭이었다거나, 그때 “마침”(룻 2: 4)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다는 등의 정보 제공 방식에는 서술자의 감정이 스며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당시에 발생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열린 마음과 배려의 정신을 소유한 ‘유력한 자’ 보아스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룻 2: 4)라고 일하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할 만큼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모범일 뿐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을 넉넉하게 실천하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모압 여인 룻’을 “내 딸아 들으라”(룻 2: 8)라고 부를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것은 아마도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난”(창 12: 1)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는 룻에 대한 동질감과 나이 어린 그녀에 대한 측은지심, 그리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 21)라고 가르친 모세의 교훈이 내재된 결과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에는 기생 출신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본인의 혈통적 특징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보아스의 언행 속에는 이처럼 당시 일부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배타성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며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다성적 성품’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밭에서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서 그때까지의 자초지종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그를 축복하며 며느리에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룻 2: 20)라고 전하며, 은혜의 율법에 근거한 희망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내비친다.

>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룻 2: 21-22)

여기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룻 2: 8)고 지시했던 보아스의 말을 왜곡해서 전한다. 구미정은 이러한 룻의 거짓 보고에 대하여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구미정, 2009: 42). 즉 룻이 시어머니에게 유혹과 위험의 요소들이 가득한 자신의 주변 상황을 넌지시 알리며 두 사람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분 변화를 위한 결단을 속히 내려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룻 2: 21)라고 룻의 보고를 정정하여 권면함으로서 몇 가지의 가능성과 그에 기반한 자신의 계획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다.

나오미의 이러한 제안은 우선 룻이 밭일을 하면서 또래의 나이 어린 남자들과 어울리게 될 경우에 생길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했고, 다음으로는 비록 본인에게는 친자가 없어서 소위 ‘시형제 결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엘’에 의한 가계 계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룻 2: 20)라고 말함으로써 그 고엘에 해당하는 친족이 최소한 두 명 이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여성들이나 귀환한 이주자 혹은 낯선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과 착취 또는 폭력 등을 통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일부 베들레헴의 ‘단성적’ 환경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서 나름대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덧붙여서 고엘 제도를 통한 룻과 나오미의 상황의 반전 가능성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으로

모든 것의 전후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한 두 마디의 단어로 힌트를 제공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나 감정을 활용하거나 또는 등장인물들의 직접적인 대화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전개해 가는 다성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나오미의 타작마당: 성경 속의 카니발

제 2장에서 시작된 보리 수확은 제 3장의 타작마당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말미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이러한 시기적, 환경적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모에 가까운 현명함"(Kiser, 변경원 299 재인용)을 발휘하여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한다. 그녀는 보아스의 호의가 보리 추수의 시기와 관련된 "일시적인 보호"(김지은 21)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추수 후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것을 주문한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타작마당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대상 21:8)나 '장례식'(창 50:10)이 치러지는 곳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삿 6: 37) 등으로 묘사되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상 추수가 끝난 후 타작을 마친 후에는 마시고 취하는 흥겨운 잔치가 열리던 곳이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호 9:1)는 행위를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마치 신부가 되는 준비과정인 것처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룻 3:3)라고 지시한다. 이것은 "나오미가 주선한 결혼 방식"(맥닐, 2018: 104)으로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복되게"(룻 3:1)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이 타작마당은, '음행에 의한 타락의 가능성'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잠시 접어두고,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의 개념을 연상시킬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힘겨운 추수와 타작의 작업을 마치고 서로의 수고를 치하하며 주인과 일꾼, 또는 하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념과 형식의 틀을 벗고 가장 적나라한 육체적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카니발의 마당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바로 이 카니발의 마당에 혈통의 계승을 위하여 며느리를 보내는 나오미 역시 이

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녀는 엘리멜렉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상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주체적 인물이다. 즉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 속으로 섞이게 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없앤 '다성적 작가'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애초 고엘의 수혜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룻 1: 12-13), 현재 그 유력한 상대인 보아스 역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며느리가 아닌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현재 나이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그 이유로 삼아 자신의 자리를 며느리에게 양보한 것이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위해 주인과 하인, 공식적 질서와 비공식적 질서뿐만 아니라 성과 속,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통합될 수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카니발의 마당을 주도하고 있는 '카니발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타작마당은 「룻기」의 전체 구조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룻 3: 7-13)

위의 인용문에는 한밤중 '타작마당'이라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소위 '고엘'의 관례를 빌미로 십분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애로틱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려는 서술자와 그러한 분위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보아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룻의 내러티브가

한데 엉켜있다.

구미정은 이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과 “만리장성”을 쌓은 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새벽에 돌려보내면서 ‘보리 여섯 되’를 챙겨준다고 주장한다(구미정, 2009: 43). 그런가 하면 황선우는 본문에서 나오미가 성적 행위에 대한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서술자에 의한 모호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끝을 흐린다(황선우, 2017: 22). 물론 술에 취해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난 보아스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약자들을 배려하고 먼저 인사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가 하면, 룻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고, 그녀의 행적에 대하여 오랜 관찰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많은 나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고엘의 행위자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던 보아스의 모든 언행을 고려하면,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의 가능성에 일말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보아스가 룻에게 되어 건네준 보리 여섯 번도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구미정은 “보리는 단순히 지금껏 숨 가쁘게 달려온 이야기가 한 템포 천천히 흐를 것을 예고하는 복선”일 뿐 아니라 “룻의 강인한 성품을 대변하는 상징”이며, 또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희망적일 것임을 암시하는 메타포”(구미정, 2009: 39)로서 행운의 수 일곱에서 하나 모자란 여섯 되의 보리는 보아스 자신이 그 일곱 번째 보리가 되겠다는 “에로틱한 약조”의 표시라고 해석한다(구미정, 2009: 43).

다른 한 편으로 맥닐의 경우, 보아스가 여섯 되의 보리가 아닌 여섯 개의 보리알을 룻에게 주었고, 이스라엘의 수비학을 근거로 완전 수를 상징하는 일곱에서 하나가 부족한 여섯을 되어 준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당신을 재어 봤더니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며,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룻 3: 17)고 했던 그의 말을 근거로 그 약속이 신랑 후보자로서 신부 후보자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혼담의 과정에서 신랑 후보자이자 부모 역할을 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맥닐, 2018: 127-28 참조).

『룻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3장에서 서술자는 또 한 사람의 다성적 인물인 나오미가 기업 무를 자를 맞이할 신부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며느리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서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스토리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다성적 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울러서 환경적으로는 ‘상’과 ‘하’가 일체가 되는 ‘카니발의 마당’과 같은 타작마당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적극적인 내러티브의 갈등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타작마당 위에서 벌어진 미묘한 사건을 애써 외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서술자와 그로부터 자신의 정직성을 지키려 하는 보아스,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은 동조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룻,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나오미 등 네 사람의 등장인물들의 내러티브가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다.

4. 율법 속의 은혜

「룻기」의 대단원을 이루게 되는 제 4장에서는 '율법'과 '은혜'의 내러티브들이 등장한다. 우선 타작마당에서 룻과 나오미의 의사를 확인한 보아스는 율법의 전범을 따라 순리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증인들을 성문 앞으로 모으고 자신은 그 위로 올라가 앉는다. 고대 역사에서 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을 만큼 중요한 장소(제자원, 1995: 820)로서, "토라를 가르치는가 하면 산혜드린 의회도 열렸고, 부동산에 관한 논쟁이나 가축 절도, 살인까지 각종 범죄에 대한 재판도 열렸"(맥닐, 2018: 137)던 성문에서 보아스와 장로들은 "마침"(룻 4:1) 그곳을 지나가던 '아무개'라 불리는 기업 무를 자를 불러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묻는다.

>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룻 4: 3-4)

처음에는 율법을 따라 기업을 무르는 일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재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선뜻 긍정의 뜻을 전하던 '아무개'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룻 4: 5)라고 말하며 부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그는 다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룻기 4: 6)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이러한 '아무개'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업 무름으로 확장한 재산이 결국 결

혼 후 룻이 낳게 될 아들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한 것(Keil & Delitzsch, 1991: 490)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 그가 "가난한 과부와의 결혼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나, 아내와의 불화를 예견하였거나, 자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여겨서 위대한 구속을 외면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오지 못한다"(헨리, 2009: 695)는 해석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모압 자손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율법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신 25:5-6) 해야 한다는 두 율법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맥닐, 2018: 146-47). 사실상 아무개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엄격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율법의 구속성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그 안에 내포된 은혜의 속성, 즉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보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침내 보아스는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룻 4: 10) 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기업을 무른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무름을 해 주었"(강병도, 1989: 961)고, 결국 "살아있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덕을 베풀"(헨리, 2009: 698)게 되었다.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룻 4: 12) 된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바대로 다말이 율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가문이 오늘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이룬 것처럼(헨리, 2009: 700) 딸의 세대라 할 수 있는 룻과 결혼하여 율법과 은혜의 권위를 함께 지켜준 보아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번영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기원한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야곱이 죽기 전 유다에게 한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라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

해서 계승될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정통성이 이스라엘의 왕족이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가문으로 계승될 축복을 가진 '유다 지파'의 혈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룻 4: 16-22)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버지인 보아스의 이름도 어머니인 룻의 이름도 사라지고 그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설명되고, 그 아이의 이름도 부모가 아닌 이웃의 여인들이 지어준 것으로 설명된다. 이 상황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할머니인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입양했"(Keil & Delitzsch, 1991: 492)거나, "보모가 된 것"(헨리, 2009: 703)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할머니가 그녀의 첫 손자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는"(Huey, 1992: 547) 이 장면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강병도, 1989: 962)다는 사실과 "룻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헨리, 2009: 703)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룻기」 4장의 말미에 첨가된 유다의 손자 겸 아들인 베레스 이후의 족보는 이 책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과 더불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계획을 확장 시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다성적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짧은 족보의 설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내리신 '왕위 계승'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선 베레스의 후손 중 나손(Nahshon)이라는 인물은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선발되어(민 1: 7),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을 치고"(민 2: 3), 잇사갈(Issachar)과 스불론(Zebulun)이 포함된 유다 진영 18만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 제 일대로 행진(민 2: 9)하며, 60만 군대와 200만 백성의 맨 선봉에서 인도한 장군이 되었고, 그의 혈통은 여호수아(Joshua)의 명으로 여리고(Jericho)를 정탐하러 갔던(수 2: 1)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살몬(Salmon)으로 이어져서, 당시에 도움을 받았던 기생 라합(Rahab)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을 만나 오벳과 이새(Jesse)와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의 가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Ⅳ. 나가는 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의 사이에 삽입된 '역사서'이면서도 탁월한 문학적 구조로 인해 "단편소설의 가장 완벽한 실례"(Smith, 1954: 829)로 인정되기도 하는 『룻기』의 내러티브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내용과는 달리, 서술자와 등장인물 각자의 상황과 경험과 의식의 토대 위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이 긴장감 넘치는 각축을 벌이는 '다성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식·구조적 다성성은 결말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현된 독특한 '카니발'의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과 재산을 잃고 십 년 만에 귀향했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할 정도로 그들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던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보아스의 주도로 이루어진 고엘 재판이 끝나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의 결과로 오벳이 태어나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이와 나오미를 축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종과 다름없던 객이 주인이 되며, 놀라움이나 측은함을 표현하던 기득권 세력이 이제는 축복의 함성을 지르는 대역전의 드라마로 마무리된다.

즉 율법적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있던 모압의 딸 룻과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의 아들로서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아스의 결합을 통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통로가 될 오벳이 탄생하게 된 것은 한 편으로는 "배타와 배제의 정치학에 길들여진 베들레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편협한 인종주의를 회개케"(구미정, 2006: 43) 하여, 그 결과로 '타자'에 의한 '주체'의 완벽한 전복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의 '카니발의 마당'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신분과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을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

님의 '다성적 섭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카니발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비공식의 세계에 의한 공식적 세계의 전복을 그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는 바흐친의 카니발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재고해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겔 21:26)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외형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전 1: 28-29) 하셨던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균등"(고후 8: 14)한 세상에 대한 의지의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과 이방 여인의 결합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 「룻기」의 모든 내러티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매우 치열하게 묘사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다성적 소설로 읽힐 수 있는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다의 손자이자 아들인 베레스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될 다윗까지의 족보는 후에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계보(마태복음 1: 1-16)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어지는 신학적 계보(눅 3: 23-38)를 통해 재확인되면서 빈부귀천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까지 한 마당으로 소환되어 혼재되는 양상을 재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확장되어 마침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눅 20: 35)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암시해 주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룻기」라는 한 가족의 예화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를 분석해 본 결과, 선민의식에 젖어 이방인을 경멸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이방인을 배치하여 유대인보다 더 존귀한 위상을 갖게 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가 하면, 연약한 자들을 후하게 선대하는 자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예표하고, 그들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성적'이고 '카니발'적인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병도 편 (1989). **호크마 종합주석 6**. 서울: 기독지혜사.

[Kang, Byoung Do (Ed.) (1989). *The Chokmah Commentary*. Seoul: The Christian Wisdom Publishing Company.]

구미정 (2006). 구원은 타자로부터. **기독교사상**, 53(6), 34-44.

[Ku, Mi-jeong (2006). Salvation Comes from the Other. *Christian Thoughts,* 53(6), 34-44.]

기민석 (2015). 다윗 인생의 서곡, 룻기와 신의(信義). **생명과 말씀 13**, 13-34.

[Kee, Min Suc (2005). An Overture to the Life of David - Ruth and Loyalty. *Life and Scripture,* 13, 13-34.]

_____ (2009). '룻기 듣기,' 그 이야기체와 여성 문제. **복음과 실천**, 44(1), 65-94.

[_____ (2009). 'Listening to the Book of Ruth,' Its Storytelling Narrative and the Problem of Women. *Gospel and Practice*, 44(1), 65-94.]

김욱동 (1988).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Kim, Wook-dong (1988). *Dialogical Imagination: Bakhtin's Literary Theory*. Literature and Intelligence.]

김지은 (2000). 새로운 미래를 연 나오미와 룻의 연대. **한국여성신학**, 41(3), 9-26.

[Kim, Ji-eun (2000). The Union of Naomi and Ruth to Open a New Future. *Journal of Korean Feminist Theology,* 41(3), 9-26.]

김진명 (2013).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룻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9(2), 43-67.

[Kim, Jin-myung (2013). A Study on the Purpose of the Book of Ruth in the Context of Ancient West Asian Religion.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9(2), 43-67.]

김창주 (2008). 시형제 결혼의 신학적인 의미: 다말과 룻의 경우. **구약논단**, 14(2), 10-28.

[Kim, Chang-ju (2008). The Levirate Marriage: Tamar and Ruth.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4(2), 10-28.]

맥닐, 다이앤, 박정희 옮김 (2018).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 서울: 순전한 나드.

[McNeil, Diane (2018). *Ruth: 3,000 Years of Sleeping Prophecy Awakened.* Translated by Jeong-hee Park. Seoul: Pure Nard.]

변경원 (2016).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정체성 형성과 구약 성서의 '룻과 나오미'

이야기 해석. **교육문화연구**, 22(1), 287-307.

[Byun, Kyung Won (2016). An Interpretation of 'Ruth and Naomi' in the Old Testament for a Subjective Identity Form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Educational Culture Studies*, 22(1), 287-307.]

성서원 (2012). **관주 메모성경**. 개역개정.

[Seonseowon (2012). *The Memo Bible*. New Revision.]

유연희 (2009). 글로벌 시민 룻의 달콤살벌한 성공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1), 57-78.

[Yoo, Yani (2009). Global Citizen Ruth's Bittersweet Success Story. *Korean Christian Theological Journal*, 62(1), 57-78.]

윤형철 (2013).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권위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해석학의 삼중적 과업을 활용하여. **성경과 신학**, 67, 173-210.

[Yoon, Hyung Chul (2013). A Hermeneutical Reflection on Scripture's Authority as the Word of God: Appreciating the Threefold Task of Hermeneutics. *Bible and Theology*, 67, 173-210.]

장일선 (1985). 룻기의 문학적 연구. **신학연구**, 26, 50-76.

[Jang, Il-seon (1985). Literary Study on the Book of Ruth. *Theological Studies*, 26, 50-76.]

정중호 (2012).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귀환이주 전승. **구약논단**, 18(4), 178-204.

[Chong, Jung-ho (2012). Tradition of Return Immigration.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8(4), 178-204]

제자원 (편집)(1995). **그랜드 종합주석 4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Jejawon (Ed.)(1995). *Grand Commentary* Vol. 4. Seoul: Biblical Text Publishing.]

헨리, 매튜 저, 정충하 옮김 (2009). **매튜 헨리 주석: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Henry, Matthew (2009). *Matthew Henry's Commentary*. Translated by Choong-ha Jeong. Christian Digest.]

황선우 (2017). 룻기에 반영된 서술자(narrator)의 관점. **신학지남**, 84(4), 9-25.

[Hwang, Sun-woo (2017). The Narrator's View Reflected in the Book of Ruth. *Shinhakjinam*, 84(4), 9-25.]

Bakhtin, Mikhail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Edited by Michael Holquist. Transla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 of Texas P.

_____ (1984a).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Translated by Caryl Emers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_____ (1984b). *Rabelais and His World*. Translated by Hellen Iswolsky, 2nd ed. Indiana: Indiana UP.

_____ (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Edi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Translated by Vern W. McGee. Austen: U of Texas P.

_____ (1990).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Edited by Michael Holquist and Vadim Liapunov. Translated by Vadim Liapunov. Austin: U of Texas P.

Clark, Katerina and Michael Holquist (1984). *Mikhail Bakhtin*. Harvard UP.

Coates, Ruth (2001). "The First and the Second Adam in Bakhtin's Early Thought." in S. M. Felch and P. J. Contino. (Ed.)(2001). *Bakhtin and Religion*. Evanston: Northwestern UP.

_____ (2004). *Chirstianity in Bakhtin*. Cambridge: Cambridge UP.

Felch, S. M. and P. J. Contino. (Ed.)(2001). *Bakhtin and Religion*. Evanston: Northwestern UP.

Heuy, F. B. Jr.(1992). "Rut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3. Edited by Gaebelein, Frank E,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509-49.

Keil, C. F. and F. Delitzsch(1991).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 Translated by James Marti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Lau, Peter H. W (2011). *Identity and Ethics in* the Book of Ruth. Berlin/New York: De Gruyter.

Mihailovic, Alexandar (1997). *Corporeal Words: Mikhail Bakhtin's Theology of Discourse*. Evanston: Northwestern UP.

Ricoeur, Paul (1990). *Time and Narrative*.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3 vols. Chicago UP.

Smith, L. P (1954). *The Interpreter's Bible* vol. 2. Abingdon.

Wells, Jan (2009). The Book of Ruth—*An Inductive Bible Study*. Sunergos Bible Studies.

논문초록

「룻기」에 나타난 다성성과 그 함의

김철수 (조선대학교)

본 연구는 구약성경의 여덟 번째 책인 「룻기」의 내러티브의 전개 과정을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다성성'이나 '카니발' 등의 개념에 비추어 그 신학적·문학적 함의를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 속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러한 문학적 접근법이 갖는 의의는 독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가장 권위적이면서도 독백적인 책 중의 하나로 알려진 성경을 세속 문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갈등의 양상을 추적하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사회와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들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실제로 한 유대인 가족의 생존 역사를 다룬 「룻기」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긴장 구조, 즉 이방인을 경멸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방 여인,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현상을 보여주는 서술자의 목소리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소리 속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개입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보다 더 명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지도력을 넘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대화적 다성성과 카니발의 형태로 뒤섞여 있다.

주제어 : 「룻기」, 내러티브, 바흐친, 대화주의, 다성성, 카니발

『신앙과 학문』. 24(4). 157-184.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157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통일과 평화' 주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 Focusing on the Theme of Reunification and Peace -

오의석 (Eui Seok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horizon of Christian art by examining the practical examples of contemporary Korean Christian art and its formative embodiment, to explain the roles,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 art as art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to increase its practical influence. To this end, the study first reviews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and then examines artists and works that survey and express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through Christian world view specifically focusing on those dealing with the theme of reunification and peace.

This study utilized methods such as documentary research, appreciation of exhibitions, exploration and interviews, and the work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hat is commonly found among these artists is that they all hav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sprit of reinocul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Gospel, whether it be from their growing environments, family history or any other personal experiences of sufferings, and they strive to practically embody this spirit into their art works.

The study finds that the works of Christian artists on the subject of peace and reunification extend the horizon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to art which encompasses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through Christian world view without being bound to specific religious themes. Moreover, they also bears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transformation by formatively embodying the spirit of the Gospel in the realm of art. It is hoped that these works examined by this research would serve as an influential alternative to contemporary

* 대구가톨릭대학교(Daegu Catholic University) 환경조각전공 교수,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ohes@cu.ac.kr
2019년 11월 08일 접수, 12월 03일 최종수정, 12월 04일 게재확정

Christian art in a participatory and practical manner in Korean society today. The work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examples of practical contemporary Christian art in today's Korean society and culture which is hoping for reunification and peace, and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s an influential alternative.

Key Words : Christian art, embodiment, sense of reality, reunification, peace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725)

이 논문은 기독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 05. 11, 한남대학교) 세계관A분과 발표 논문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Ⅰ. 서 론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며 단체 활동으로 출현한지 반세기가 넘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201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단체와 공동으로 한국 기독교미술의 50년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발제된 논고들을 종합하여 '한국 기독교 미술 50년'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정리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식과 실천의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의식과 실천적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기독교 미술이 특정한 종교미술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실천적 작품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성향,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론의 성격,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의식과 세계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한국교회와 복음주의의 영향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세대의 작가들은 사회의 변혁보다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작업의 주된 경향이 말씀의 시각적 증언과 선포, 경건과 영성적 삶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명 등은 기독교미술의 주된 범주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현대기독교 미술은 일상과 현실, 역사와 환경, 정치와 국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혁적 노력을 보여주는 경향의 작품들을 기독교 미술의 영역 밖의 미술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진보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등을 통해서 이미 실천과 참여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신학적 함의가 현대 기독교미술의 양식 속에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미술을 종교적 주제와 교회 안의 미술로 한정하고 제한해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작품을 기독교미술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그의 명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전쟁과 평화, 환경, 인권, 실업, 빈곤, 경제적 불균형, 인종과 다문화사회,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 페미니즘, 동성애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정옥배, 2011: 5-6). 범위를 좁혀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한 차정식 교수는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에서 정치, 세대갈등, 양극화, 연고주의, 가정의 해체, 자살, 생태, 다문화 사회 등 구체적인 문제로 23가지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차정식, 2012: 6-7).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실천의 주제로 통일과 평화를 다룬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오염과 생태,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노인문제, 위안부, 동물실험과 세월호 등 다양한 한국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차기의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대상들을 찾아 선정하고 문헌 자료의 연구와 함께 작품 전시의 관람과 작업실 답사. 작가의 노트와 대담 기록 등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경험, 세계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들이 기독교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이해

하고. 기독교미술로서의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현실인식의 체현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미술의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풍성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

1.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단체로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와 한국미술인선교회, 지난 2018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아트미션이 있다. 이 세 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을 정리하는 책자와 전시를 2015년에 가진 바 있다. 그 책자에서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작가와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시장 사람들>, 이연호의 <이촌동 풍경>,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작가로 김복동의 <노인-한국사>와 연구자의 작품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 정도를 찾을 수 있다[1)]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이며,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미술선교적인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아트미션 단체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출발하여 기독미술론의 정립을 위한 포럼을 매년 가지면서 그 결과들을 책자로 발행하여 왔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아트비전>을 들 수 있고, 대형교회들 안에서 활동하는 몇 개의 미술선교그룹이 있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의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기독미술작가들의 단체가 있는데 연구자가

1)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제1부에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이 전개를 다루는 논고가 실려 있다. 서성록의 '한국의 현대 기독 미술, 어제와 오늘', 장준석의 '한국화와 기독교미술' 김이순 '복음적 실천으로서의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조각의 몇 가지 양상', 송신일 '한국 기독교서예의 전개와 양상' 4편의 논고들에 소개되는 회화 조각 작품 총 46점 가운데 사회적 현실성을 담아내는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풍경 '시장 사람들' 1점을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미술 50년 전시 도록에 실린 192점의 출품작 가운데서도 현실 상황 속의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는 남은주 작 '케냐 아이들' 1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의 도록에서도 2004년 153점의 출품작품 중 본 논문에서 다루는 김복동의 '노인-한국사' 1점과 2006년, 238명의 전시 참여 작가 중 이승현의 '아침의 달' 정원조의 '전쟁과 평화' 2점이 발견되는데 데 전쟁과 평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 전원의 풍경으로 작품의 명제와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속한 대구기독미술선교협회의 경우도 현실의식을 나타내는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작품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대구지역과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2007년 발간된 이론분과 회원의 논문집 '한국 기독미술의 흐름 Pro Rege Ⅱ'를 발간하면서 한국 기독교미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에서 미술평론가 서성록은 현대 기독교미술의 작품 성향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회원들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한다. 1)성경의 테마, 2)신앙고백, 3)은혜의 증거, 4)자연, 하나님의 피조세계, 5)미의 질서로 작가의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서성록, 2007: 18-26). 그의 구분과 정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 기독교미술'에 실린 '구속(救贖)의 예술' 논고에서도 '성경의 테마'와 '신앙고백'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주제로 '일상의 은혜와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구분하여 작가군을 분류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인 제언에 이르러 기독교문화와 예술의 구속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항상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없고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룬다. 힐러리 브랜드(Hilary Brand)와 아드리엔느 채플린(Adrienne Chaplin)이 <예술과 영혼>에서 언급한 "결코 천진난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조언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만일 기독교 예술가 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빌4:8)란 성경구절을 회화적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섬뜩한 재현이 될 것이다. 전쟁의 추악성을 고백한다든지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한다든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부패와 무질서를 묘사하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장면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단면만을 보는 협애한 시각일 뿐이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한다."(롬 8: 22)고 말한다. 만일 기독교미술가들이 다른 한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서성록, 2017: 51).

서성록의 이해와 제언에서 일찍이 피카소(P. Picasso)의 작품 게르니카(Guernica)를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회화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 상황의 실존을 다룰 수 있다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말을 상기해 볼 수 있다(김경수, 1991: 81). 그리고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말한 '선지자적 반시대성'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도전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김형원, 2016: 29).

앞서 언급한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책자의 논고에서 최태연 교수는 기독교 회화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 같은 성경의 내용이나 상징을 다루는 성화 작품, 둘째, 한국의 신앙인이나 순교자를 다루는 작품, 셋째, 기독교 신앙의 관점(세계관)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구분하면서 한국의 기독교회화의 대다수가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세 번째 범주인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한국의 기독교 회화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최태연, 2007: 75).

2. 해외 기독교 미술의 현실인식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책자의 제2부에 실린 기독교미술 논고 가운데는 인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시아의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서양의 현대 기독교 미술을 소개하는 두 편의 논고를 함께 싣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논고에 소개되고 있는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주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 한정희 교수는 인도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 특성으로 자국의 의상과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작가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의 이야기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의 전통복장이나 자연 풍물 등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일본적인 것을 살리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정희 교수는 논고의 결론에서 각국의 전통과 토속성을 드러내는 토착화된 미술의 단계에서 벗어나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성찰이나 영성이 들어 있는 작품의 출현을 제안하고 있다(한정희, 2015: 173). 아시아권의 작가들이 자신의 지역적인 문화 전통을 담아내는 토착화의 시도에서도 현실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조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현실인식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까지 서양의 현대 기독교 미술을 다루는 손수연 교수의 논고는 서양의 가톨릭 작가들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들과 작품세계를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 작가들은 작품

속에 그리스도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구원을 추구하고 세계의 회복을 염원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현대미술에서 '정신성'의 표현은 종교화와의 관련성을 지속하여 초월성과 숭고의 의미를 강조하는 추상표현주의, 색면회화 등, 미술의 가능성을 종교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예술가들의 노력을 예술과 종교의 접합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로 절대성을 부정하는 철학적 사조가 기독교의 위치를 위협하지만 예술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형화된 양식을 규정하지 않아서 기독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손수연, 2015: 210).

저자가 소개하는 작품들도 명제를 보면 대부분 기독교적 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작품들이다. 그런 가운데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은 영국 조각가 안토니 카로(Anthony Caro)의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 '최후의 심판'과 로저 와그너(Roger Wagner)의 작품 '메노라'를 들 수 있다. 카로의 작품 최후의 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악함에 대해 고발하고 있고, 로저 와그너의 '메노라'는 배경에 등장하는 핵융합발전소의 거대한 굴뚝과 연기에서 20세기 산업적인 집단 학살과 공허한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연 교수는 포스트모던 기독교 회화를 다룬 한 논고에서 로저 와그너의 '메노라' 작품에 대해서 거대한 핵발전소의 일곱 굴뚝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동시에 핵오염에 의한 종말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최태연, 2009: 142). 이처럼 현대 서양의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작품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는 분단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작업하는 한국의 기독교 작가들에게 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작가 중 소수의 작가들이 이러한 현실인식과 변혁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Ⅲ.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현실인식

1. 평화와 통일의 프로레고메나(Prolegomena)

기독미술 작가로서 기독미술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자적인 개인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경우 작품세계의 발견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전과 퍼포먼스를 통해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천착해온 작가로 허진권이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지속해 온 ILUK의 현장 전시 및 퍼포먼스는 작가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조형적으로 체현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헌신적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ILUK은 'I Love Unification of Korea'의 첫 자를 가지고 만든 고유명사로, 한국어 읽기로는 '이룩'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작가는 '통일 염원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다. 2015년 8월, 대전 이응노미술관 광장에서 벌인 현장전시와 퍼포먼스(Figure 1)를 시작으로 2016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Figure 2), 2017년에는 파주 임진각에서(Figure 3), 2018년 천안 리각갤러리 초대전시로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를, 2019년 대전시립미술관 광장으로 지경을 넓히며 이어가고 있다. 물론 통일문제는 기독미술인 작가들보다도 민족미술 진영의 작가들에게서 더욱 부각되어 다루는 주제인데 허진권의 경우는 기독작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에서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으로 '예술 하는 순교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발현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임을 밝히고 있다. 허진권이 어떻게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고 작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작가의 글을 참고해 보면 그가 자란 시대와 지역에서 비롯한 역사의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가는 그가 낳고 자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작품이 탄생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기 전, 시골보다 더 낙후된 조그만 섬에서 자라며 보고 배우고 느꼈고, 이것들이 내 예술의 모토가 됐다. 특히 가난, 노름, 젊은이들의 폭력, 게으른 어른들, 상이용사를 가장한 거지와 용천배기 등등을 보는 것은 무척 두려웠다. 맑고 고요한 하늘과 파란 바다, 그러다가도 폭풍우 몰아치고,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이렇게 폭력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에서 자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배경이 작품에 있어서 현상 보다는 본질, 시각적인 장식성 보다는 역사의식을 가진 실험을 하는 작가로 성장하게 됐다(허진권, 작가의 노트 중에서).

[Figure 1] Performance in Lee Eung Ro Museum - Scene of ILUK

[Figure 2] Scene of ILUK- Daehan Gate, Gwanghwamoon Square.

작가가 주로 광복절과 삼일절을 맞으면서 전시를 가지는 것은 그의 역사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허진권 작가가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조형체현 작업을 지속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작가는 2004년에 목원대학교에 신설된 기독교미술과의 주임교수로서의 자리가 갖는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2006년부터 '점'을 주된 요소로 하는 작업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사랑'으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면서 '작품에 찍힌 하나하나의 점들이 파장을 일으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비롯된 작업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사랑, 평화, 자유, 구원, 기쁨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평화를 실현하고 싶었으며 결국 평화는 작가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고 말한다(Figure 4).

여기서 허진권 작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의 종교적 신념과 역사의식에 비친 사회현상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술가로서 고민한 결과 '통일'을 가장 절실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통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다. 대전일보사와의 협력으로 신문에 필자의 작품을 알려서 기사가 되고 그 기사가 다시 작품이 되는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시도를 한다.[2] 즉 언론이 작품이 되고 그 작

2) 대전일보(2014년 6월 24일자)에 제1회를 게제 시작하여 2015년 12월 29일(화)까지 주 화요일자 1면에

품이 다시 언론으로 변모하는 순환 자체를 한 점의 작품으로 보는 개념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Figure 3] Scene of ILUK- mjingak

[Figure 4] Performance for Peace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통일 염원 프로젝트 -ILUK 운동'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더 많은 작가들과 무용가, 음악가, 후원자들로 구성된 토탈 아트로서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퍼포먼스를 구상한다.

미술평론가 김병수는 허진권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본능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분단이라는 현실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개인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인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확장으로서 우리의 상황은 통일을 바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생존의 보장과 지속을 위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허진권의 평화에 대한 갈구 역시 생존에 대한 보증의 요구로 해석한다(김병수, 2014: 105).

반면에 2018년 리각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열린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네 신을 벗으라-'(Figure 5)는 허진권 작가의 기독교 신앙과 정신이 가장 잘 체현된 전시로서 전시를 기획한 김나영 수석큐레이터는 '믿음으로 예술하는 순교자'라는 제하의 평문에서 리각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허진권의 설치전이 오늘날 예술과 예술가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본다. 그리고 작가의 소명의식 특히 전 지구적 생명의 존립을 위해 요구되는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보편적인 이슈를 지향하면서,

---

총 77회를 연재함으로 매체를 통한 대중적 소통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아젠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의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김나영, 2018: 2).

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록으로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은 세속의 더러움을 벗는 행위이자 거룩한 소명을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모세의 옛 자아일 것이다. 허진권은 2018월 3월 10일자 작가의 심경을 기록한 '작가의 노트'에서 욕망과 위선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적용하기로 다시 한 번 결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작업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술 하는 순교자라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Figure 5] Prologmena for Peace and Reunification - Take off your shoes

연구자는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그의 순교적 열정을 담아내는 체현의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허진권에게 있어서 퍼포먼스는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모토아래 시도된 1981년의 첫 개인전과 1982년의 '결혼현장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적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체현되어 나타날 때 그 작품은 일탈적 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몇 도시와 제주도를 경유하는 순회여행 등으로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식을 작품화하기 위해서 작가가 감내해야할 어려움과 희생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행위예술의 뿌리를 갖는 ILUK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가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라고 답한다. 과연 그가 말하고 꿈꾸는 통일의 날이 언제일까 하는 물음과 함께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한다. 통일의 결과보다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이기에 통일을 결과로 바라보기보다는 통일 자체를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분단의 철책이 전면적으로

걷히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체제로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태를 부분적인 과정적 통일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작가가 염원하고 꿈꾸는 통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연합과 일체를 이루기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면 작가의 염원은 이미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작가들의 작업 가운데서 이처럼 통일을 점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분적인 성취의 현장을 누리는 작업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부드러운 장벽

이웅배는 2018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수애뇨갤러리에서 <부드러운 장벽> 설치전을 가졌다. 그 작업과 전시의 연장선에서 2019년 4월부터 8월가지 민통선 안에 위치한 연강갤러리에서 설치작품전을 연다. 작가는 장방현의 긴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 철망처럼 사선들이 교차된 투명 비닐을 일정 간격의 철골 지지대에 걸어서 긴 장막을 설치한 것이다. 투명한 연질의 비닐 커튼이라 할 수 있기에 장벽을 밀치게 되면 자유롭게 장벽을 지나서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Figure 6).

[Figure 6] Soft Barrier

[Figure 7] Communaté, 1998

오랫동안 금속파이프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으로 일관해 오던 작가에게 이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웅배의 작업에서 한반도를 가로지른 휴전선 철책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

언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져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내의 전방감시초소(GP) 철거 등이 떠오르며 장벽을 걷기 위한 노력과 걷힌 이후의 소통을 생각하게 된다. 그의 작업이 한반도 시대상황에 대한 은유라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작업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부적 정치 상황의 여건과 함께 작가에게는 분단으로 인한 아픈 가족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작가에게 작업의 내적인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작가의 아버지는 실향민이 되었다. 서울로 유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에 전쟁이 터졌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전쟁 전에 남한에 속해 있었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 편입됨으로써 고향을 잃게 된 황해남도 연안 태생의 아버지는 실향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끝이질 않았다고 한다. 작가는 분단과 실향, 이산의 아픈 유산을 물려받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은 곧 작가의 소원으로 이어졌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부드러운 장벽의 작품설치로 체현되어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연구자는 여기서 이웅배의 장벽 작업을 그의 지난 작품들과 연관하여 설명해야할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미술평론가 최태만은 작가의 작품 <고랑포리-도밀리>가 단절되지 않은 채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의 조형성에 있어서 이웅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금속파이프 작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웅배가 그 동안 추구해왔던 유기적인 금속파이프 작업에서 표면의 촉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조각에 접촉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조각에 올라타거나 매달림으로써 작품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의도가 장벽 작업에서도 경계 넘나들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최태만, 2019: 2). 연구자는 최태만의 조형적 측면에서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것은 이웅배의 배관작업 꼬미노떼(Communaté)(Figure 7) 연작에 나타나는 공동체성이다. 작가의 삶과 작업은 작품의 명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공동체성을 추구해왔고 부드러운 장벽에서도 여전히 공동체성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불어 제목 '꼬뮈노떼' 우리말 로 공동체를 뜻을 가진 그의 기둥에는 크고 작은 단위들이 서로를 받치며 세워 가는 연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팽창과 수축의 반복이 다양한 굴곡과 함께 유기적 볼륨을 형성합니다. 기둥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만큼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웃한 기둥에 대해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기둥들 사이에 만들어진 소통의 공간에 머물게 합니다(오의석, 2003: 163).

이와 같이 이웅배의 꼬미노떼 연작이 담고 있는 접촉과 소통, 연합의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이 장벽설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어진다. ‘부드러운 장벽 설치’ 작품전은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걷히고 접촉하고 소통하며 경계를 넘나들며 연합하는 민족 공동체성의 회복이란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소망이 체현된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철조망 오브제의 연작

1980년대 ‘연구자가 속해 있던 그룹 ‘마루조각회’는 작가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창작을 중시하는 청년작가들의 신생 그룹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분단’ 이란 주제의 테마 기획전을 가진 적이 있다. 청년조각가들의 그룹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미술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아야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최류탄 냄새 속에서 미술을 배워야 했던 70년대의 대학시절을 보낸 청년 조각가로서 연구자는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상하면서 동년배 작가들의 마음을 대변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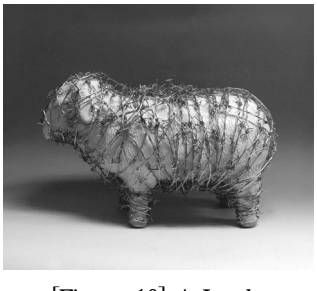
> 어떻게 점, 섬, 면, 양과 괴, 공간, 구조 이런 조형의 순수성만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지가 우리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청각과 시각의 장애자가 아니라며 아마 신선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 그래서 우린 학교를 마친 후 민중작가의 간판을 내걸든 내걸지 않았던 민중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 광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적극성으로부터 적어도 환경과 전통, 지역성의 이야기기를 붙들지 않고는 의식의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오의석, 2003: 58).

청년작가 그룹의 한 멤버로서 과제처럼 추어진 ‘분단’ 테마전에서 연구자는 최전방 철책연대에서 작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2년여 넘게 하염없이 바라본 휴전선 철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손의 연작이라는 부조 작품 연작 6점을 빚어 출품한다 [Figure 8]. 철조망과 두 손, 팔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들로써 더러는 양 손이 철조망에 의해서 조여진 듯하고, 더러는 철조망을 힘 있게 걷어내는 듯도 한 부조 연작들이었다. 3년 가까운 젊음의 세월을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보낸 최전방 고지의 삶의 흔적이 철조망과 손의 구성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이어서 철조망을 한 가족의 얼굴과 병치 구성한 작품 ‘일가(一家)’ 라는 제명의 작품도 당시에 제작되었다. 한국미술협회전

출품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작품 '일가'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재회의 소망을 체현해 본 작품으로 부조로 표현된 철조망을 배경으로 한 집안 삼대의 인물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다[Figure 9].

[Figure 8] Hands Siries Works, Theme Exhibition by Maru Group,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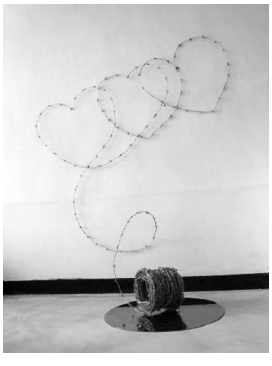
[Figure 9] A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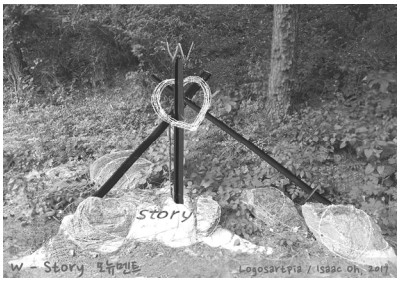
[Figure 10] A Lamb, 대구성시화전, 2017

그리고 약 32년이 지난 후 연구자의 철조망 테마는 재현이 아닌 실제 오브제의 차용과 변용 제시로 작업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2017년 작 '어린양'(대구성시화전 출품작)은 흙으로 소성된 도조 어린양 형상에 철조망을 칭칭 감아서 동여맨 작품이다[Figure 10]. 어린양을 감고 있는 철조망을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분명히 매우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에 고조된 한반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운신하기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린양의 형상에 투사하고자 하였다. 수십 년 전 개인의 체험 속에서 경험된 철조망이 작가의 양손을 옥죄는 것으로 출현되었고 그것을 걷어내려는 손짓의 작품으로 나타난 반면에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는 한반도를 억압하는 외세의 압력과 세상의 죄악된 힘으로까

지 철조망을 상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Figure 11] Drawing-Peace
2017, 제41회 경북조각회전



[Figure 12] W-Story Monument, 2017

작품 <Drawing-평화 2017>은 제41회 경북조각회전 출품작으로 바닥에 던져진 철조망 롤의 덩어리에서 풀려나오는 철조망의 선으로 벽면에 하트의 형태를 중첩하며 그려가는 설치 작품이다[Figure 11]. 철조망의 철선은 일정간격으로 물고 있는 가시는 접근과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작업 중에도 가시는 작가의 손을 찌르고 아픔을 주게 된다. 연구자는 일련의 철조망 작업에서 수없이 찔리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는 심장과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형태이다.

한 NGO 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작은 모뉴멘트(W-story, 양평) 프로젝트는 세 개의 앵글 파이프가 하나로 만나는 상부의 접점에 철조망 하트가 중첩되어 걸린다. 그리고 지면에 박혀있는 자연석들은 철조망이 십자로 교차하면서 감싸는 구조를 가진다[Figure 12].

철조망을 부조로 표현한 작품에서부터 오브제로 직접 차용한 작업까지 30년 넘는 작업을 돌아보면서 연구자는 이제 철조망 작업을 그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분단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작가의 작품에 철조망이 등장할 이유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작가의 손이 철조망 가시에 찔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것이다. 작품을 낳은 상황의

해결과 함께 작업도 종료되어야 하고 작품 세계가 명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통일을 주제로 다루는 작업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허진권작가의 경우도 그의 희생적 퍼포먼스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 것인가에 대해 통일의 날까지로 답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가능하면 영속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 원하는 것이 작가로서 일반적인 바람일 것인데 그럼에도 문제 상황의 해결과 함께 작품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시대를 사는 한 작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분단의 고통을 작업으로 체현하면서 함께 아파했음에 대한 증언으로서 고통스런 철조망의 연작이나 희생적인 퍼포먼스가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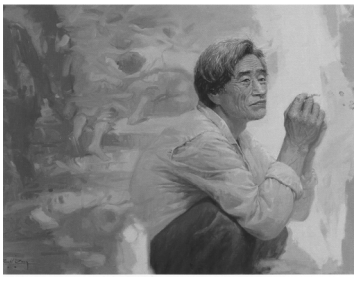
4. 전쟁의 이미지로 그리는 평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계에서 충실한 사실적 표현으로 풍경과 인물을 다루어온 김복동 작가는 한때 노인의 모습을 즐겨 다루던 시기가 있었고, 연구자는 작가의 작품세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문과 단상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다.[3] 왜냐하면 노인이 모습은 우리시대 대부분 화가들의 관심 밖에 있는데 반하여 김복동의 그림은 시대에 대한 도발이며 미술계와 작가들의 세계에 대한 역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노인 소외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 작가들의 화폭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모든 인생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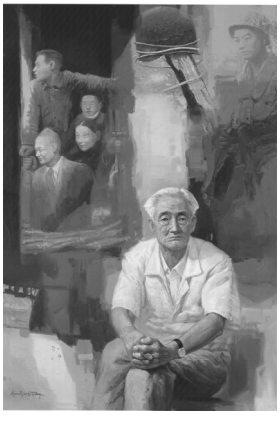
> 한 젊은 작가의 눈에 비친 그림 속의 노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노인은 어두워져가는 도심을 배경으로 딱딱한 벤치에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멋과 여유를 가꾸어 온 강골의 인상이지만 마음은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지나온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듯한 표정입니다 -- 마치 주인 없는 빈 집 같고 그 집을 지키는 마른 고목과도 같은 그 분들이 모습에서 멀지 않은 장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오의석, 2006: 33).

3) 저서 <예수 안에서 본 미술>에서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로고스와 이미지, 그 접점에 서다>에서 '소외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 로 게제 되었음.

연구자는 김복동의 고향과 노인 그림 연작들을 '소외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기'로 해석하며 다루었는데 작가는 <노인 - 한국사> 전시에서 그가 즐겨 다루어 온 노인들의 모습 배경에 6.25 전쟁의 정경을 합성한 작품들을 통해서 소외와 단절의 벽을 시골과 노인의 소외라는 한계에서 민족의 분단 문제로 확장해 보여준다. 그림 속의 노인들은 그림 앞에선 우리에게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노인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어그러졌으며 오늘 자신의 모습 속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노인의 모습과 표정은 증언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그림 속의 노인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오의석, 2006: 129).



[Figure13] A Old man-Korean History 2000



[Figure 14] A Old man-Korean History, 2001

김복동의 작품은 먼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전쟁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다. 전쟁기념관이나 학살기념관을 세우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전쟁의 참혹한 진상을 알리고 다시금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와 같이 김복동은 <노인-한국사> 그림도 우리에게 전쟁 역사의 장면을 기록해 냄으로써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김복동의 이와 같은 그림 배경에는 작가의 특별한 가족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

가 자신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희생된 가족과 그로 인한 상처가 결국 이러한 작업이 나오게 된 동인이 되고 있다. 작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전쟁의 아픈 상처로 인한 아직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Figure15] Old man Praying-Korean History,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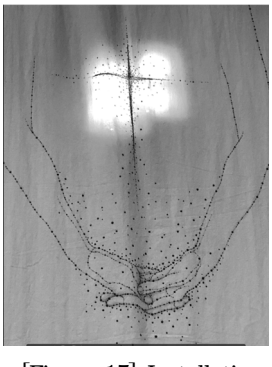
[Figure 16] Restore This Land, 2001

김복동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뿐 아니라 대립을 조장하고 전쟁을 선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던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 정말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줌으로써 호전적인 이들의 의식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복동의 전쟁 이미지 그림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영웅에 대한 예찬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복동의 전쟁 이미지 작품은 역사적 상황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회복의 열망을 담은 기도의 모습을 담는 데로 발전한다. 작품 <간구하는 노인>과 <이 땅 고쳐 주소서>가 좋은 예로. 작가의 평화에 대한 희구와 통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에는 기도하는 여성으로 백발의 노인이 화면의 중앙에 자리한다. 주목할 것은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얼굴과 수난 당하는 모습이 후면과 측면에 합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여기서 작가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이 복음의 실천적 차원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5. 통일 비전과 복음의 실천

2007년 시작된 통일비전캠프에 매년 작품을 설치하며 참여해 온 심정아 작가의 활동과 작품은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적 이해와 접근에 기초한다. 통일비전캠프는 탈북민들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손님들, 또는 '먼저 온 통일의 기회'라고 보며 진정한 통일은 이념이나 체제의 통일이기 보다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미움과 증오, 불신의 상흔들을 씻어내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 됨의 회복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 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작가는 캠프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어 왔다.



[Figure 17]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Figure 18] Crown of Thorns –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Window

이와 같이 회복된 작은 통일의 현장에 크리스천 예술가로서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작업이 <Stigmata> 연작들이다. 'Stigmata'란 성흔(Holy scar), 즉 거룩한 상처를 뜻하는 단어로 십자가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진 상흔을 뜻한다. 작가의 작업은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로 헝겊 천을 태워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린다(Figure 17).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에 설치하여서 상처의 흔적들을 아름다운 빛의 흔적으로 다가오도록 함으로써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은혜와 함께 고통을 통과한 후에 얻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감상자들을 이끌고 있다(Figure18).

인두로 천을 태워가며 선을 새겨가는 작업은 작가에게 긴 시간의 고독과 기다림과 아픔을 요구한다. 그 시간은 불로 태워진 자국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새겨진 상흔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작품을 예배의 공간에 걸고 태운 자국에 빛이 통과 하도록 해 주어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 아픈 상흔의 선들이 빛의 선으로 바뀌지는 것을 보면서 작가는 치유와 회복과 부활, 그리고 영광을 묵상하게 된다고 말한다(서성록, 2013: 193).

심정아 작가는 Stigmata 연작을 통일 비전캠프의 집회 장소에 설치한다. 그 이유는 그 곳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을 경험한 하였는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미리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Figure 19). 심정아의 설치 작품 앞에서 예배하며 성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습에서 그의 작품은 통일비전캠프를 복음의 실천적 현장으로 인식하게 한다(Figure 20).

[Figure 19] One and Only,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Meeting Hall

[Figure 20] Installation Work and People waiting for Sacrament

작가에게는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주제로 한 개인전 등을 통해 삶의 현실 곳곳에 자리한 상흔들을 응시하게 된 전기가 있었는데, 2007년 작가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이었다고 밝힌다. '세 번의 수술을 통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느리게 진행되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였고 몸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의 작가의 삶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흔들을 응시하게 되었고 그것을 Stigmata 연작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탈북민을 향한데 그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희생 가족 등, 역사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동물실험, 자연의 소리 담기 등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로까지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정아 작가의 작업은 통일만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미술이 실천적 복음의 정신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줌으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심정아 작가는 실천적인 현실의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특히 통일의 비전은 복음의 실천과 그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작업으로 분명히 보여준다. 앞에서 다룬 네 작가의 경우도 역시 동일한 신앙고백과 믿음의 눈으로 분단시대를 사는 동시대의 작가들이지만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는 작업의 동인에는 차이가 있고 조형적 체현의 양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허진권 작가의 경우 통일과 평화를 작업의 테마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작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못짓의 퍼포먼스를 주된 양식으로 활용한다. 반면에 조각가 이웅배는 대형 설치작품 안으로 관객을 유도하고 참여 시킨다. 벽을 넘나들게 행위를 통해 분단의 벽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갖게 하고 작은 소통의 공간과 공동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연구자의 경우 오랜 시간 철조망이란 분단의 장애물 오브제에 주목하면서 릴리프와 설치 등 다양한 조형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상의 작가들이 전통적인 조형의 양식에 갇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실험을 통해서도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반면에 김복동은 전형적인 평면 회화의 틀 안에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담아냄으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다.

Ⅳ. 결 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정리된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드러내는 실천과 참여적인 작품은 많지 않다. 보수적인 교회와 신학의 배경을 가진 복음적인 크리스천 작가들은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거나 전도와 선교적인 작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속에서 기독미술 이론가들은 기독교미술을 특정한 종교미술의 범주 안으로 가두기보다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조망하고 표현할 것을 희망하며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기독미술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조망하며 다루어야할 현실의 영역은 매우 크고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다룬 기독미술 작가들의 실천적이고 참여적 작품 속에 현실의식이 어떻게 체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것은 작가들 모두 자신의 몸이나 가정환경, 삶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 아픔의 경험 속에서 복음이 갖는 화해와 통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작품 속에 체현하여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적 배경, 또는 청년기 군복무 등의 앞선 경험으로부터 이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식이 작가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특정한 시대적 상황 변화와 필요에 의해서 작품 속에 체현되고 대외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허진권 작가는 어린 시절 자란 섬마을의 환경과 기독교미술 전공학과의 책임자로서의 정체성이 작품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을 민족이 풀어야할 큰 숙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표현 형식의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다. 조각가 이웅배의 경우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가족의 역사적 배경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유롭게 오고 가며 소통이 가능한 부드러운 장벽의 제시를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일에 대한 희망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연구자는 청년기의 오랜 기간 동안 최전방 철책을 품고 지낸 경험 속에서 각인된 철조망을 오브제로 활용하면서 인물의 손과 얼굴에 병치시킨 부조와 동물, 상징 이미지와 함성하고 변용한다. 김복동 화가의 작업 역시 어린 시절 가정사의 배경이 동인이 되어 오늘의 현실 속에 상존하는 노인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쟁의 이미지를 다루면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다. 심정아 작가는 개인적으로 겪은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분단으로 인해 고난 받는 탈북민과 함께 하게 되었고 복음을 체현한 작업

들로 통일비전 캠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상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업이 민족미술 진영이나 반전주의 운동가의 시각과 차이를 가지는 것은 복음의 실천적 체현으로 나타나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소명, 공동체, 연합, 기원, 긍휼과 같은 기독교 정신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기독미술의 범주 안에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미술이 오직 기독교적 주제와 교회의 미술 안에서 제한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역사와 영역을 종교적 범위 안으로만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만다. 비록 소수의 작가들이지만 통일과 평화의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현대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사회변혁적 책무를 감당하며 행동하는 예술로서의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영향력을 가지며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Wolterstorff, Nicholas (1980). *Art in Ac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김경수 역. (1991). **文化의 神學**, Tillich Paul (1959). Theology of Cultur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유리·오윤성 역. (2004). **예술과 영혼**, Hilary brand & Adrienne Chaplin (2001). Art and Soul. 서울: IVP.

김진선 역. (2002). **예술과 성경**, Schaeffer F. A (1973). Art & the Bible. 서울: IVP.

김헌수 역.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Rookmaaker, H. R. (1978). Art need no justification. 서울 : IVP.

김형원 역. (2016). **선지자적 반시대성**, Os Guinness, Prophetic Untimeliness. 서울: 이레서원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John R. W. Stott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Kim, Y. H. (1992) *Korean Christian Culture Theology*. Sungkang Culture Press.]

김이순 (2015). 복음적 실천으로서의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조각의 몇 가지 양상.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Kim, E. S. (2015). Art as Evangelical Practice : Some Aspects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Sculpture. *Korean Contemporay Chistian Art for 50 years*,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손수연 (2015). 서양 현대 기독교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Shon, S. Y. (2015). Contemporary Western Christian Art.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 미술사랑.

[Seo, S. R. (2003). *Art & Christ, Dreaming Hand- Korean Christian Artists*. Misulsarang Press.]

_____ (2007). 크리스천 미술 리포트.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_____ (2007). Christian Art Report. *The Flow of Korean Christain Art Pro Rege Ⅱ*,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_____ (2013). **예술과 영성**. 서울: 예서원.

[_____ (2013). *Art and Spirituality*. Yeseowon.]

_____ (2015).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_____ (2015). Korean Christian Art, Past and Today.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_____ (2017). **구속(救贖)의 예술.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기독교미술**. 서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_____ (2017). *Art of Redemption. The Quincentenary of Reformation and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호, 대구: CUP.

[Oh, E. S. (1993). Contemporary Christian Art and World view. *The Journal of Joins*, 19(2), 110-127.]

_____ (2003). **말씀과 형상/ 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_____ (2003). *LOGOS and IMAGE*. Jinheung Art Hall.]

_____ (2010).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5(3), 기독교학문연구회.

[_____ (2010). A study on Korean Contemporay Logos-ism Art. *Faith and Scholarship*, 15(3).]

이연호 (1993).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통합연구**, 18호, 139-200.

[Lee, Y. H. (1993). Inculturation of Korean Christian Art. *The Journal of Joins*, 18, 139-200.]

이은주 (2007). 말씀의 체현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통합연구**, 19(2), 110-127.

[Lee, E. J. (2007). Research on the Sculptured Images of Isaac Oh as Embodiments of the Logos. *The Journal of Joins*, 19(2), 110-127.]

임성빈 (2004).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신대학교출판부.

[Lim, S. B.(2004). *21st Century Culture and Christianity*. Seoul: Jangshin University Press.]

차정식 (2012).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Cha, J. S. (2012). *Jesus, Answer of Korean Society*. New wave plus Press.]

최태연(2007). **한국의 전통미술과 기독교미술.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Choi, T. Y. (2007). *Korean Traditional Art and Christian Art.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_____ (2009).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기독교회화.** 창조질서의 재발견 Pro Rege 2009.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Choi, T. Y.(2009). *Contemporary Postmodern Painting: Recovery of Creation Order*.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06). **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서울: 예서원.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2006). *Pro Rege-In Glorious Theater*. Yeseowon.]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15),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서울: 예서원.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2015).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Yeseowon.]

한정희 (2015). **아시아의 현대 기독교미술 : 인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Han, J. H. (2015). *Contemporary Christian Art in Asia: With a focus on India, Chiness and Japan,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최태만. '장막을 걷어라. 너의 마음으로…'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bezalell/221610786321 (검색일 2019. 11. 29)

논문초록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통일과 평화’ 주제를 중심으로 –

오의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의 실천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오늘의 기독교 미술이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조망하고 표현하는 작가와 작품들 가운데 통일과 평화의 주제를 다루는 작가와 작품세계를 고찰하였다. 정리된 문헌자료와 전시 감상, 답사와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작품들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허진권 작가, 최근 ‘부드러운 장벽’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조각가 이웅배의 설치작품, 분단의 상징으로서 철조망의 형상과 오브제를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연작, 노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전쟁의 기억과 이미지를 그린 김복동의 회화 작품, 통일 비전캠프에 복음의 의미와 정신을 체현하여 설치한 한 심정아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작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사의 배경, 또는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 속에서 복음이 갖는 화해와 통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작품 속에 체현하여 실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기독 작가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특정한 종교적 주제에 매이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조망하는 미술로 확장한다.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미술의 영역에 조형적으로 체현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사회 변혁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실천적인 현대 기독교미술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며 영향력 있는 대안으로 지속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기독교 미술, 체현, 현실 인식, 통일, 평화

『신앙과 학문』. 24(4). 185-206.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185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Based on Revelation 21:1-4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Most scholars think of Christian worldview in terms of creation, fall into sin and redemption and view that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is included in redemption. But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consummation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because there is not only continuity but also a clear discontinuity between redemption and consummation. Revelation 21:1-4 are selected as the main text for consummation and the following four themes are discussed with a biblical theological method: first, the meaning of new heaven and new earth is discussed. Then, by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holy city, new Jerusalem and bride, a deeper investigation is made to explore the contents of the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After that, the Immanuel principle is dealt with as the final completion of God's covenant with His people. Finally, shalom as the eternal blessing is exposed as the ultimate blessing given to God's people.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what kind of contribution it can make in the Christian worldview.

Key Words : consummation, new heaven and new earth, holy city, new Jerusalem, Immanuel, shalom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crosspower@handong.edu

2019년 11월 08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21일 게재확정

Ⅰ. 서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이후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저작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다룬 문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창조, 타락, 구속만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속의 일부로 보거나 아예 간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Dooyeweerd, 1963: 28-38; 양승훈, 1999; 신국원 2005; 송인규 2008; Wolters 2005; Walsh & Middelton, 2005; Goheen & Bartheolomew, 2008). 완성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필자가 아는 한 휴 휄첼(Hugh Whelchel)이 간략히 언급한 것 외에는 거의 없다(Whelchel, 2016). 휄첼의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복음적으로 간략히 언급한 소책자이며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후 완성을 회복의 관점에서 4 페이지 정도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속과 완성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분명히 있으며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1]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완성을 생략한다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시간관을 통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완성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비유 중 시작 이후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오므로 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완성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찰하되 먼저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배경적인 내용을 다룬 후 완성에 대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완성 그리고 그 결과 우

1) 표준새번역. 본 논문에서 한글 성경 인용은 모두 표준새번역이다.

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네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성경신학적 방법론(biblical theological method)을 사용하여 각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고 주해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성경신학적인 방법론은 각 본문에 대해 주해하면서 성경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그 의미가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 그 후에 결론적으로 이 완성의 비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과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간의 관계를 진술하겠다(최용준, 2008).[2)]

II.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 요한계시록의 배경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며 성경적 세계관의 마지막인 만물의 최종적 완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계시(Revelation, 독어로 Offenbarung, 네덜란드어로 openbaring)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에 대해 먼저 부담을 느낀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히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그냥 덮어두고 매우 신비로운 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하는 책이며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한다.

둘째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의 책이다. 이것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에 치열한 갈등과 영적 대결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승리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미

2) 이 완성 부분에 관하여는 필자가 이미 『세계관은 삶이다』(2008) 및 『응답하는 인간』(2008)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보완하여 보다 깊이 다루고자 한다.

리 보여 주는 책이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나아가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기나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김주찬, 2004)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많은 성도들도 체포되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구순의 노사도 요한도 결국 체포되어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던져졌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자 로마 군인이 놀라 다시 그를 꺼내었고 로마 황제는 이 사도를 가까운 밧모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죄수 노예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바위를 깨는 노역을 하게 된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다. 이 소식이 밧모섬을 다스리던 로마 감시대장에게 보고되었는데 얼마 후 그의 처남이 귀신에 사로잡혀 병들게 되자 이 감시대장은 사도 요한을 초청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신은 떠났고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되자 그 식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후 감시대장은 사도 요한에게 더이상 노역을 시키지 않고 섬 남쪽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3]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예루살렘교회의 집사 출신인 브로고로가 있어 이 노사도의 시중을 들었다. 사도 요한은 그 때부터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어느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것을 브로고로를 통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어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다. 이 섬에 약 1년 반 정도 머무는 동안 이 노사도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어 결국 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으며

3) 지금도 밧모섬에는 이 동굴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나중에는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하다가 여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천하 만물이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을 '신약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헨델의 메시아 제 3부가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작곡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특히 5장 13절을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편 148편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영원토록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가대의 찬양이나 일반 찬송 및 여러 복음성가들을 부를 때, 이 찬양의 완성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우주적 찬양과 예배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은 잘 보여준다.[4)]

다섯째, 요한계시록은 '선교'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 준다. 7장 9-10절에 사도 요한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계 7:10)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열방들이 인종과 언어 및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신 이 장면은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이 상당히 편만하게 증거된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점점 더 실현해 가심을 볼 수 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완

4) 미국의 루이 기글리오(Louie Giglio) 목사는 하늘의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들과 바다의 고래소리를 합성하여 '위대하신 주님(How great is our God)' 찬양을 함께 부르는 예시를 보여준다.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성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 준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보게 되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 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거룩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21장 1-4절을 보면 요한은 완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계 21:1-4)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의 완성 및 영원한 축복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이 네 주제들을 하나씩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겠다.

2. 새 하늘과 새 땅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다'는 헬라어도 단지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가리키는 '네오스(νέος)'가 아니라 완전한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카이노스(καινός)'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신천신지에 대해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시 102:25-27)

우리가 입는 옷도 오래 되면 낡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지금 하늘과 땅도 낡게 되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옷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사 65:17) 이 신천신지는 영원할 것이고(사 66:22)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사 11:6-9)

신약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재탄생(cosmic palingenesis)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배고픔이 더이상 없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이상 질병이나 악한 귀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없으며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신천신지에 대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마 5:18)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천지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음 구절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28)

또한 마태복음 24장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한다(개역개정). 그런데 표준새번역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조금 다르다. 여기서 ‘재난’과 ‘진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전쟁, 지진, 해일, 기근 등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경고성 사인인 반면 후자는 임산부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산고를 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리스어 원문도 보면 8절의 “πάντα δὲ ταῦτα ἀρχὴ ὠδίνων”에서 “ὠδίνων”은 해산의 진통을 뜻한다(막 13:8 참조).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도 “birth pains”,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birth pangs”로 둘 다 재난의 의미라기보다는 진통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이 예언은 종말론적 재난의 양면성을 계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지진, 기근 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재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를 낳은 후 기쁨에 겨워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산모와 같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현재의 피조물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간절히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롬 8:19-22)

로마서 8장 22절을 개역개정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원어는 말하고 따라서 표준새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또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즉 구속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는데 여기서 이 신음도 산고의 고통을 뜻한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 새 창조의 질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담대하게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재림할 것을 이렇게 외쳤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행 3:21)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10절과 시편 46편 3절을 보면 바다는 무질서와 혼동의 상징으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심지어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즉 이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신다는 의미이다.

>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시 65:7)
>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시 89:9)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워 떨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막 4:39). 하지만 주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예 바다가 없다. 즉 더이상 어두움, 무질서, 혼돈 및 죄의 가능성이 없고(*non posse peccare*)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완성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peccare*)였다가 타락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non posse non peccare*)로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가 되었고 마침내 처음 하늘 및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물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체험하고 있으나, 미래에 이 신천신지가 임할 때 완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구속과 완성 간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1) 거룩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을 보았다(21:2, 10).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기에 속된 것이 전혀 없는 성결한 도성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도성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서 정육면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도시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축물이 두 개 나온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성막과 이 성막을 본 떠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 정육면체 형태의 건물이 단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이다. 성막의 지성소는 각각 10규빗이고 성전의 지성소는 각 20규빗이다(출 26; 대하 3:8).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지성소가 완성된 곳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화가 완성된 곳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속된 것과 “개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계 21:8; 21:27a; 22:15). 특별히 여기서 “개들”이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 다시금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게 하셨다. 이제 그 준비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2)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경에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인데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가 가진 것 십분의 일을 예물로 멜기세덱에 준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란 '의로운 왕'이란 뜻이며 그는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히 6:20). 이 사건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그 후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으나(수 15:63) 나중에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삼하 5:6-10).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은 더욱 유대 민족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이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였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곳으로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모여드는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사 2:2) 에스겔 선지자도 비록 지상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았다(겔 40-48).

신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곳에 나온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0-53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물론 예루살렘이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표로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2-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 그리고 은혜는 본처인 사라에 비유한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

다. 하갈은 시내산을 뜻하고 동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며 은혜와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속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은혜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한다(빌 3:20). 히브리서 기자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며(히 11:10)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한다(히 11:16).

더 놀라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이른 시내산도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지만 성도들은 장차 갈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미 종말론적으로 이르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 이를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장차 올 도시를 찾아가는 순례자이다(히 13:14).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상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의 종합이 샬롬(shalom)이다.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도 ‘샬롬’으로 끝나며(민 6:26)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샬롬을 주셨다(요 20:19, 21, 26).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샬롬이 완성된 곳임을 알 수 있다.

(3) 신부

나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비전들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패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사 49:16-18)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사 54:5)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사 61:10)

더 대표적인 예는 호세아서이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을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아내 고멜에 비유하면서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호 4:13-14; 5:4; 6:6; 9:1).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 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호 2:19)

신약성경에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요 2:1-10). 이는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도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다(마 9:15; 22:2이하; 25:1이하; 막 2:19이하; 요 3:29).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성도들은 과거에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한다(고후 11:2). 에베소서 5장 22-33절에도 부부간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5)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에는 도시(city)라는 단어에 성(gender)이 없지만 유럽의 언어들 가령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결혼의 이미지가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맛보며 누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이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도성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을 아홉 가지로 잘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고전 13:12), 둘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계 14:13), 셋째, 온전한 지식을 소유함(고전 13:12), 넷째, 거룩해진 삶(계 21:27), 다섯째, 기쁨의 삶(계 21:4), 여섯째, 섬김의 삶(계 22:3), 일곱째, 가장 부요한 삶(계 21:6), 여덟 번째, 영광스러운 삶(골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계 19:1)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Pentecost, 1964: 581-82). 따라서 여기서도 구속과 완성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미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연속성이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거룩해 진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점에서 질적인 비연속성도 말할 수 있다.

4.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창 1:26-27). 이것은 마치 뛰어난 예술 작품 속에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혼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족장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비

독일어(Stadt), 네덜란드어(stad) 그리고 불어(ville)에는 성이 있으며 모두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심을 보고 인정했다(창 21:22). 이삭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물을 팠으나 그랄 지방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투지 않고 양보한 후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26:24).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야곱 또한 형 에서를 속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후에 벧엘이라 명명한 곳에서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다(창 28:15). 요셉도 비록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창 39:2). 이렇게 모든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출 3:2).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바대로 성막인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말한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쉐키나'(Shekinah, שכינה)라고 한다. 또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는데(출 40:36-38)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막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을 때에도 다시 나타난다.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다(왕상 8:10; 대하 7:1-3).

이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았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덮일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닫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사 4:5-6)

에스겔 선지자 또한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겔 37:27-28).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 마지막에서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샤마'라고 불릴 것이라 했는데(겔 48:35) 이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성에 늘 함께할 것을 본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비전을 보면서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슥 2:10-11) 그 결과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다(슥 8:3).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마 1:23). 요한복음 1:14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사셨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의 동사형 'eskenosen(ἐσκήνωσεν)'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신 사건이요, 따라서 이는 임마누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증거한다.

예수께서는 사역 중에도 이 영광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영광의 구름이 그를 덮었다(눅 9:29-35).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며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수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미리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살전 4:17).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롬 8:18).

예수께서 제단, 성막 및 성전의 구체적인 실현이셨기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을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의 휘장 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친히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이전에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다(고전 3:16; 6:19).

그런데 완성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계 7:15). 그 결과 성경 전체를 통한 언약의 핵심이 완성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시편 125편 2절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듯,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으로 감싸 주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나온다.

>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계 21:11, 18-19a, 21)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함께 하시기에 새 예루살렘 안에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곳에는 구원받은 여러 민족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은 각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곳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말한다(계 21:22-26).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구속과 완성

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성육신으로 임마누엘하신 후 성령으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연속성도 있으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점에서(고전 13:12) 구속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영원한 축복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가장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하여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거의 매일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로 희생당하고 인간 횃불로 끌려갔기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민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죽음의 상징인 수의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시며 세상에서 당한 부끄러움도 제거하실 것이므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사 25:6-9; 35:10, 51:11). 그 외에도 예레미야(렘 31:16), 스바냐(습 3:14) 및 스가랴(슥 2:10)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에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다(계 7:17).

이러한 영원한 축복은 한마디로 샬롬이라 할 수 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시며 항상 지켜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사 54:11-15)

이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불안이나 공포 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에 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안식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이 재창조의 세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만물의 최종적 완성의 비전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구속과 완성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어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연속성과 더불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러한 축복을 완전히 누린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점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완성으로 끝난다. 창조는 매우 좋은 상태(very good)로 시작한 것일 뿐(창 1:31), 최선의 상태(the

best)인 완성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의 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며 최상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창조는 완성을 가리키며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조의 에덴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한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완성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며 새 예루살렘인 신부의 모습,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샬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는 처음 하늘과 땅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여 타락으로 인한 모든 왜곡과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종말을 맞이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구속의 상황에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들은 헛되지 않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최종적인 정점에 해당하므로 구속과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속과 완성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구속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확장된 점진적 과정이지만 완성은 최종적으로 완전해졌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김주찬 (2004). **밧모섬에서 돌아온 사도요한**. 서울: 옥합.
[Kim, J. C. (2004). *Apostle John Who Came Back from Patmos Island*. Seoul: Okhap.]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의 만남**. 서울: IVP.
[Song, I. G. (2008). *Rewritten Christian, World, View*. Seoul: IVP.]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Seoul: IVP.]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Yang, S. H. (1999). *Christian Worldview*. Seoul: CUP.]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Choi, Y. J. (2008). *Worldview is Life*. Seoul: CUP.]
_____ (2008). **응답하는 인간**. 서울: SFC.
[_____. (2008). *Homo Respondens*. Seoul: SFC.]

Dooyeweerd, H. (1963).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Zutphen: J. B. Van Den Brink & Co.
Goheen, M. W. & Bartheolomew, C. G.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Baker Academic.
Walsh, B. J. & Middelton, J. R. (2005).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Eerdmans.
Whelchel, H. (2016). *All Things New: Rediscovering the Four-Chapter Gospel,* The Institute for Faith, Work & Economics.
Wolters, A. M.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2019. 10. 13. 검색)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2019. 10. 13. Accessed)]

논문초록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및 구속으로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속의 일부로 본다. 하지만 본 논문은 완성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구속과 완성 간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완성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성경신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기술하고, 거룩한 도성과 새 예루살렘 및 신부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깊이 살펴본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리의 완성을 통한 언약의 최종적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으로서의 샬롬에 대해 고찰한다. 그 후 이 논의가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한다.

주제어 :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신부, 임마누엘, 샬롬

『신앙과 학문』. 24(4). 207-229.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207

애도의 방법 :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론

The Method of Mourning : Study on Lee Cheong-Jun's *A Worm's Story*

조경덕 (Kyoung-Duk Cho)*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 Worm's Story*, one of Lee Cheong-Jun's novels, in terms of the narrator's mourning work. *A Worm's Story* has a multi-layered structure. In other words, *A Worm's Story* has two structures, the story of the narrator's wife and the situation of a narrator that tell about it. This paper concentrated upon mourning as the narrator's narrative behavior.

The story was written about a year after his son Alam and his wife passed away. The incident of Alam and his wife was remembered and reconstructed in his mourning work. In the body, I has divided the narrator's testimony into three parts as a mourning work.

The first is about 'the testimony of sacrifice'. The narrator defines the wife's death as a sacrifice and testifies about it. This is the main purpose for the narrator to start the story. The second focuses on the journey of the narrator find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his wife chose to kill herself. It seems to be the so-called psychological autopsy from the narrator. The wife took on the task of forgiveness, which he thought was impossible for her. Finally, it is about the narrator's regrets and sense of guilt. The narrator has sense of guilt of wife's death and recalled the past, which was part of mourning. Lee Cheong-Jun said that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his novel is related to the spirit of reflection, which in the *A Worm's Story*, it is expressed by the narrator's sense of guilt. This was the method of mourning the narrator chose after losing his son and wife in two successive years.

Key Words : Mourning, Forgiveness, Testimony, Reflection, Sense of Guilt

제 36회 기독교 학문학회 문학 세션에서 '애도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

* 평택대학교(Pyeongtaek University) 피어선칼리지 조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oldjoseph@paran.com
2019년 11월 08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22일 게재확정

Ⅰ. 들어가며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서술자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벌레 이야기」는 『외국문학』 85년 6월호에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이청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평자들이 「벌레 이야기」를 주목했다.[1] 그러다 2005년 이창동 감독이 이 작품을 각색하여 '밀양'이란 제목으로 영화화하고 칸 영화제에서 주인공 전도연이 여우 주연상을 받아 「벌레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원작 「벌레이야기」와 영화 『밀양』 간 거리를 조명하는 연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불어 영화와 소설에서 공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용서'와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2]

「벌레 이야기」는 중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벌레 이야기」에는 '나'의 아내에 관한 내용과 이를 이야기하는 '나'의 상황이라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많은 경우, '나'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액자'에 해당하는, '나'가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와 '나'의 심정, 그리고 아내의 삶에서 '나'의 역할 등을 살펴보면 「벌레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3]

---

1) 초기 논의로는 삼인행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청준 론』(1991)에 수록된 김현의 「떠남과 되돌아옴」, 현길언의 「구원의 실현을 위한 사랑과 용서」 등이 있다. 학술 논문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에 쓰인 글은 이대규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벌레 이야기」를 '기독교적 상상력', '휴머니즘적 상상력', '사회・역사적 상상력' 등으로 나누어 읽었다. (이대규, 1996) 이 같은 구분은 후대 연구에도 참조가 되었다.

2) 나소정은 「벌레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 측면에서 두 가지 갈래로 정리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 소재와 관련하여 인물들의 행위에 기반한 주제론적 접근을 시도한 논의들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색한 논의들이다. (나소정, 2009:254) 한편 한래희는 이러한 주제 연구와 더불어 「벌레 이야기」와 『밀양』 간 매체 특성을 비교한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사를 소상하게 정리하였다(한래희, 2014).

3) "그 작가와 독자가 함께 해가는 소설 과정과 결론부에 이르러서의 독자 몫의 해결방안, 그리고 그를 위한 동등하고 복합적인 반성적 시선들로서의 역할의 필요성…… 거기에는 화자 한 사람만의 관점이나 독점적 전횡이나 군림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세상과 삶의 양식이 더없이 복잡해지고, 지식과 기능이 무한정 세분(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작가나 작중 화자가 그 소설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열쇠를 혼자서 거머쥐고 그 전지의 천재성을 발휘할 처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위발, 1991:161) 이와 같은 작가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 이청준 소설에서 서술자는 물론 각 인물의 목소리들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벌레 이야기」의 알암이의 아빠이자 화자인 '나'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주희는 「벌레 이야기」를 "화자의 서술 의도를 중심으로 '증언되는 이야기'와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인물 화자의 역할은 사건을 중개하는 것이나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주희, 2004:129). 또한 나소정은 "소설에서 사건의 전모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해석적 시각과 논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소정, 2009:258). 오은엽도 「벌레 이야기」의 남편이자 화자 '나'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나'가 "메타서술적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아내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교적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에 대한 확신의 결여를 자주 표현하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관찰자인 남편은 믿을만하지 못한 서술자"이지만 그것을 통해 독자는 '윤리적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오은엽, 2018:274-289). 이들의 논의는 「벌레 이야기」의 '화자'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의 중층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살펴보았지만 화자의 태도가 지니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고하지 않았다.

'나'가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아들 알암이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다. 한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아들 알암이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이라고 명명한다. 이 글에서는 '나'의 증언을 '애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을 애도라고 말했다(프로이트, 2004:244).[4] 임진수는 프로이트의 '반응'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화하여 애도를 설명했다. 즉, "(그 상실에 대한) 심리적 태도,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심리적 과정 전체"라고 하였다(임진수, 2013:49). '애도 작업'이 상실로 인한 고통의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애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행위가 심리적 태도, 심리적 과정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즉,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노엘 & 블레어, 2018:107).

'나'는 두 가지 상실을 경험했다. 하나는 아들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아내의 죽음이다. 두 상실 모두 '나'의 가슴을 찢는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것 같다. 아마도 아내의 '애도 작업'이 긴박하게

4) 번역본에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슬픔' 대신 일반적으로 쓰이는 '애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스레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상실을 되짚는다.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캐묻는 것이다. 카스트는 애도를 "충격을 받은 사람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체험을 이루게 하는 감정"으로 보았다(카스트, 2015:24). 그런 점에서 '나'의 '원인 찾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산산이 부서진 원래의 세계와 관계 구조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카스트, 2015:18)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지금껏 이해한 세계를 크게 교란시킨다. 따라서 '나'가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묻는 것은 '나'가 경험하고 있는 교란된 상태를 교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을 찾는 것은 부서진 세계에 인과율이라는 논리를 기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인 찾기'는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고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꿰어야 할 첫 번째 단추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론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세 가지 증언으로 바라보았다. 그 처음은 '사실을 드러내는 증언'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왜 그것이 '희생'이 될 수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아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원인을 밝히는 증언'이다. 여기에서는 '나'가 "아내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주목했다. '나'가 이른바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5]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 번째는 '나'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증언'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술회하며 한편으로는 변명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 가지 증언 모두 아내의 죽음의 이유 혹은 원인 찾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중 앞의 둘은 원인을 '나' 바깥에서 찾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나'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이러한 원인 찾기는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같은 작업은 '나'에게 일어난 상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acknowledgement)'의 과정이기도 하다(노엘 & 블레어, 2018:122-123). '나'에게 일어

5) 현대 자살학의 선구자 에드윈 슈나이드먼(Edwin Shneidman)이 창안했다. 그는 심리부검을 "사망자의 삶, 생활 형태와 환경,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행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후 조사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서종한, 2018:15). 이를 통해 사망자가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아내를 이해하는 일환이 될 수 있다.

난 일을 정확히 인지하여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즉 '나'가 택한 애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I. 사실을 드러내는 증언

> 하지만 이제 사건의 시말은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를 마무려두는 것이 좋으리라. 이 이야기는 애초 아이가 희생된 무참스런 사건의 전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어느 무디고 잔인스런 아비가 그 자식의 애처로운 희생을 이런 식으로 머리에 되떠올리고 싶어 하겠는가. 그것은 내게서 아이가 또 한 번 죽어나가는 아픔에 다름 아닌 것이다.) 알암이에 뒤이은 또 다른 희생자 아내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붙잡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다음에도 나의 아내에겐 그것으로 사건이 마감되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내의 희생에는 어떤 아픔이나 저주를 각오하고서라도 나의 증언이 있어야겠기 **때문이다**(이청준, 2013:49-50).
> (강조는 인용자, 이후로 면수만 표시)

위 인용문은 여러 연구자가 주목했다. '나'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서술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아들 알암이의 유괴 사건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대목에서 이야기의 초점을 아들의 죽음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옮긴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아들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은 "아이가 또 한번 죽어나가는 아픔"(50)을 겪는 것이라 그만둔다고 하면서 "어떤 아픔이나 저주를 각오하고서라도" 아내의 죽음에 대해 '증언'한다고 '나'는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이나 아내의 죽음을 떠 올리는 것이나 아픈 것은 매한가지일 텐데 왜 '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한다는 것인가. '나'는 '나'의 증언이 있어야 아내의 죽음은 "마감되어질"(50)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죽음에는 그것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은 모두 다섯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뒤 세 문장의 서술어는 모두 '때문이다'로 끝난다. 독해 상 어색하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이는 그만큼 증언의 '이유'가 있다는 것의 강조로서 '나'에게 이 과제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일단, '나'가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희생'을 세 가지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작중 아내의 '희생'과 부합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인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6]이다. 여기에는 주체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버린다는 것과 강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타자에 의해 빼앗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물론 아내의 '희생'은 후자 쪽이다.

알암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산 학원장 김도섭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지만 '나'의 시각에 따르면 아내를 죽게 만든 '타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타자'는 작중에서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나'는 '증언'으로 그 '타자'를 밝히고 그래야만 아내의 죽음을 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나의 증언'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비로소 사실을 말하자면"(50)이라고 하고 김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즉, 아내의 '희생'의 배후에는 김 집사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두고 보세요. 내 언제고 알암이 엄마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 테니까. 알암이 엄마라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애 엄마한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내 그땐 반드시…
>
> 그럴 만한 어떤 계기라도 기다리듯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가곤 하였다. 별반 악의가 깃들지 않은 소리들이어서 아내도 그저 무심히 들어 넘기곤 해오던 처지였다.
>
> 한데 과연 그녀의 예언처럼 아이의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었다(52).

김 집사는 아내보다는 5년 연상으로 한 동네 사람이다. 한 동네에서 '나'와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김 집사는 이불 집을 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집사는 종종 '나'와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다. 그런데 아내는 김 집사의 전도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가 민망해할 정도였다. 김 집사는 그러한 아내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52)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예언처럼"(52) 실제로 '나'와 아내에게 자식을 잃는 무참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찾아온 것이다. 결국 아내는 김 집사를 따라 교회에 나간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내는 김 집사의 끈질긴 전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2. 아들 알암이가 죽는다.
3. 아내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

6)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main)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간증에 담겨 있는 보편적 서사다. '나'의 아내도 그 서사가 제시하는 길을 걷는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던 사실 하나를 버르집는다. 김 집사가 자신의 말을 흘려듣던 아내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 일이 "예언처럼" 닥쳤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집사의 '예언' 때문에 알암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나'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을 수단 차원에서 '전도의 때'라고 바라보는 김 집사의 태도를 나중에 인지하고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또 하나, 김 집사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다. '나'는 지난 일을 떠 올리는 가운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Table 1 「벌레이야기」의 사건과 시간

시간	사건
지난 해 봄	알암이, 주산 학원 등록
지난 해 5월 초	알암이가 귀가하지 않음
지난 해 6월	한 달이 지나도 알암이의 소식은 없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집사가 찾아와 전도함
지난 해 7월 22일 저녁	두 달 스무날째, 주산 학원 근처 2층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알암이가 시체로 발견
일주일 지남 (7월 29일경)	김 집사의 전도. 아내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분노함. 김 집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
10월 초순	김 집사가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함. 아내는 따라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함
12월 중순	김도섭의 사형 확정. 아내 교회 나간 지 2개월. 아내는 김도섭을 용서하고 싶어 함
12월 23일	하느님께 용서받았다는 사형수 김도섭을 보고 아내는 절망함
올해 2월	김도섭의 교수형 집행
올해 2월 5일	김도섭의 사형 소식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라디오에 나옴
올해 2월 7일	아내는 유서없이 자살

「벌레 이야기」의 작중 내용을 이루고 있는 '나'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나'가 지난 일을 떠 올리며 유독 시간을 자세하게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시점을 '초순', '중순' 등으로 10일 정도 어림으로 제시할 때도 있고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할 때도 있다. 아마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그러한 차이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시간 제시의 시작은 알암이가 주산 학원을 등록한 시점부터이다. 알암이가 유괴되고 살해당한 것은 그

살인자가 원장으로 있는 주산 학원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알암이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시점이 어림으로 제시되었고, 알암이가 시체로 발견된 날은 7월 22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알암이가 실종되었을 때와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사이에 김 집사가 전도를 위해 '나'의 아내를 찾아온다. 앞서 살핀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그만큼 전도가 용이할 때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10월 초순에 교회에 나가는데 알암이가 시체로 발견된 지 두 달 지난 시점이다. 그로부터 두 달 지나 김도섭의 사형이 확정되고 아내는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크리스마스 무렵, 김도섭을 만나고 김도섭의 '하느님 용서' 운운하는 말에 아내는 경악한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김도섭의 사형이 집행된다. 아내는 2월 5일 라디오에서 김도섭의 유언을 듣고 이틀 후 자살한다. 알암이가 시체로 발견된 지 7개월 만이고 용서를 결심한 지 2개월 만이다.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내는 두 차례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고, 용서를 결심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결심을 파기한다. '김 집사의 기독교'는 타인의 고통에 차분히 스며 들어가지 못하고 외려 그것을 전도의 계기로만 삼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 '나'는 그것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애도 작업은 용서와 관련이 있다. 보통 용서는 '길'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용서에 대해 천착한 연구자들은 보통 "용서의 길은 멀고 고통스럽다."(손운산, 2008:14)나 "용서의 '길'은 보통 타인에게서 부당 행위를 당한 누군가가 끔찍한 분노를 겪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누스바움, 2018:39) 등과 같이 '길'이라는 비유를 써서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이면서도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벌레이야기」에서 아내에게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았다. 작중에서 '김 집사의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을 감수성 있는 통찰 없이 바라보고 있으며 도구화된 '용서'로써 그것을 치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데리다는 최근 지정학적 무대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용서'와 관련된 언어는 "이미 법・정치・경제 또는 외교의 보편적 관용어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데리다, 2016:217). 그만큼 기독교의 '용서' 개념이 각 사회, 각 민족 단위로 퍼졌으며 알게 모르게 보편적인 윤리로서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용서가 정치・사회적인 화해나 심리

적 치료의 목적으로 기능한다면 그 용서는 순수하지 않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을 용서”(데리다, 2016:223)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실상 용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데리다가 역설하는 절대적이며 순수한 용서의 논리는 고통이 인간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용서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벌레이야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나’가 증언하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용서를 요구하며 신앙과 심리적 치유를 위해 용서를 수단화한다. 이때 용서는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은연중 폭력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나’는 아내의 죽음의 배후에 용서를 강제한 기독교가 있다고 증언한다. 정확히 말해서 ‘김 집사의 기독교’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Ⅲ. 원인을 밝히는 증언

아내는 남편인 ‘나’에게도,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김 집사에게도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슬픔과 절대 고독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공유한 남편에게 고통의 전말을 말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것을 따져 보고 알아내는 것은 ‘나’의 애도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작업을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라고 부른다. 심리 부검은 자살 유가족에게 의미가 있다. 심리 부검이 밝혀주는 진실이 유가족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문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서종한, 2018:23).

아내는 알암이를 죽인 범인에 대해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내가 하고자 하는 복수는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권력의 규제다. 사회는 통제 불능의 복수 사태를 막기 위해 사법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아내는 알암이가 공포와 외로움 가운데 죽어간 것처럼 범인도 그렇게 죽어가길 바라지만 그의 바람은 법 앞에 가로막혀 있다. 두 번째 규제는 ‘김 집사가 전한 기독교’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과 관대함과 용서가 승리하는 세상”을 제시한다(파인먼, 2018:8). 사적 복수의 단념도 어

려운데 기독교는 거기다 용서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덧붙여 심리학 역시, 피해자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외 복수를 단념하라는 명제는 우리 사회 안에 편만해 있다.

누스바움은 “지적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가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면 자신의 고통이 누그러지거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서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경우는 없기에 그러한 생각을 ‘마법적 사고’가 개입한 것으로 본다(누스바움, 2018:67).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이성적이며 너무나 점잖다.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위해 복수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응징 욕구에 기반을 두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집사는 아내를 찾아와 그 복수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나’도 동의하는 것처럼 그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아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김 집사와 더불어 아내에게 신앙을 권유한다.

> -그것은 다만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알암이 엄마 자신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엾은 알암이의 영혼을 위하는 일인 거예요. 알암이의 영혼과 애 엄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너무 깊은 원망을 지니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61).

김 집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아내가 범인에 대해 복수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아내는 계속 자기 자신을 갉아 먹는 파괴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용서는 자기 치유의 한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의 기반 위에 기독교적 용서의 궤도는 자리한다.[7]

스티븐 체리는 피해자에게 무력감을 안기는 ‘용서 부추기기’나 반대로 피해자를 자기 미화에 빠뜨리는 ‘용서자 신드롬’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만 용서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통을 멈추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나타나기 쉬운 ‘용서 충동’에 대해서도 숙고를 요구한다(체리, 2013:223).

---

7)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 교회에서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손양원 장로의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며 기독교적 용서의 전범으로 제시되고 있다(오병학, 1992). 참조.

이러한 '용서'의 과잉 행동들은 예의 기독교의 용서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며 '나'의 아내도 김 집사의 인도로 이 과정과 행위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결국 '나'의 아내는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아니 포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명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다.

가. -모르세요. 집사님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몰라요. 나는 집사님처럼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알 수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74).

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정녕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저주를 택하겠어요. 내게 어떤 저주가 내리더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76).

다.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이제 그 가엾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내의 무참스런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차라리 주님의 대리자처럼 아내를 강압했다(76).

인용문 가)와 나)는 모두 알암이의 살해자 김도섭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나'의 아내가 김 집사에게 하는 절규이다. 인용문 가)에서 아내는 김 집사를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74)다고 했지,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아내의 절규는 기독교 신앙 체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내는 '용서'라는 아브라함의 언어 가운데 인간의 자리가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인간의 자리는 인용문 나)의 표현으로는 '복수하는 인간'의 자리이다. 아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하는 자리에, 서 보았고 그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았다.

인용문 다)는 절규하는 아내와 그것에 대응하는 김 집사의 태도에 대한 '나'의 평가다. '나'가 보기에 아내는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76)이며 김 집사는 그러한 아내를 돌보기는커녕 "강압했다"(76). 그리고 뒤에 '나'는 아내의 "지옥 같은 절망의 정체"(77)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버린 것"(77)과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77)에 있다고 진단하고 아내의 "절망감은 너무도 인간적인 것"(77)이었다고 판단한다. 당면한 용서의 도정에서 '인간'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여받은 용서라는 과제를 고통스럽게 수행하는 중에 '나'의 아내와 '나'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김 집사는 신자라면 인간의 길은 하느님의 길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아내의 세계, 그리고 김 집사의 세계는 판연히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상기되는 것은 데리다가 순도 높게 정련해둔 '용서'에 대한 언명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을 용서"(데리다, 2016:223)하며, "'목적이 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정치적 전략이거나 심리 치료적인 경제일 뿐"(데리다, 2016:248)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애초 아내의 행위는 '용서'가 아니었다. '나'와 김 집사는 '용서'를 해야 아내가 분노심에서 벗어난다는 목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녀에게도 '용서'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 다리 한쪽이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제 어미 마흔 가까이에 얻어 낳은 녀석이 어릴 적부터 성미가 남달리 유순했다. 유순한 정도를 지나 내숭스러워 보일 만큼 나약하고 조용했다. 어려서부터 통 집밖엘 나가 노는 일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과도 어울리려 하질 않았다. 집 안에서만 혼자 하얗게 자라갔다. 혼자서 무슨 특별한 놀이를 탐하는 일도 없었다. 무슨 일에도 취미를 못 붙이고 애어른처럼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적막스런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녀석의 몸짓이나 말투까지도 그렇게 조용조용 조심스럽기만 하였다(39).

초등학생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그 사건 자체의 비극성이 크기 때문에 위에 인용한 알암이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대목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나'가 미리 언급한 알암이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알암이는 '나'와 아내가 오래 기다렸던 아이다. 아내 나이, 마흔이 되어서야 얻은 아이인 것이다. 그런데 다리 한쪽이 불편했다. 그 때문인지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냈고 성격은 유순했다. '나'는 그런 알암이를 "집 안에서만 혼자 하얗게 자라갔다"(39)고 표현한다. 그렇게 자랐던 알암이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주산이었다. 그런데 주산 학원 원장 김도섭이 알암이를 유괴하여 죽이고 그 주검을 차디찬 건물 바닥에 유기하였다. 또한 알암이를 찾는 과정에서 알암이가 친하게 어울린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장애로 슬프게 자란 아이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주산이 도리어 화가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나'와 아내의 아픔을 더 아프게 했을 것이

다. 알암이라는 타자가 생에서 느꼈을 슬픔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알암이의 희생에 대한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용서는 아내의 몫이었다. 그런데 김도섭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가 믿게 된 하느님이 그를 용서한 것이다. 아내는 아내가 믿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김도섭을 용서하러 간 것이니 하느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용서의 주도권을 빼앗긴 아내의 분노, 이에 대해서는 '나'가 주목하였으며 그간의 연구도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용서의 주체는 아내의 몫이란 말은 바른가. 그렇지는 않다. 아내는 물론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알암이다. 그런데 알암이는 이 세상에 없기에 복수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아내의 '희생'은 자식을 잃었고 그래서 상실의 슬픔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아내가 김도섭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희생' 몫에 해당하는 것에만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여느 아이와는 달리 '하얗게 자란 아이', 슬프게 삶을 보냈던 알암이가 복수 혹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내는 자신의 슬픔 몫 외에 알암이의 대리자로서 임무도 떠안았을 것이다. 이 임무를 맡은 자의 처지에서 김도섭이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과 김도섭이 믿는 하느님이 보장한다는 것을 용납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내는, '나'가 추측건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용서의 문제에 부딪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아내가 겪어야 할 상실의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초월적 심급인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접한 하느님은 즉, '김 집사의 하느님'은 아내를 위무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용서할 것을 강요하는 하느님이었다. 더군다나 가해자 도섭은 하느님의 용서로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도섭이 사형된 것으로 용서 혹은 용서를 가장한 복수,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상실의 고통과 외롭게 자라났던 아들, 알암이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는 경지, 그 어두 컴컴한 경지에서 의지할 곳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기독교 신앙이 모자라 기독교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반항했다기보다는 외려 김 집사의 신앙이 조형한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 머물러 외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앙 체계 안에서 죽음을 선택하였다.

Ⅳ. 잘못을 고백하는 증언

‘나’가 ‘나’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점은 아내가 죽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이다. 또한 알암이가 죽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즉, 화자 ‘나’는 2년 사이에, 외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은 셈이다. 이 글에서 ‘나’의 이야기는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취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여기에는 ‘나’의 진한 죄책감이 토로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아내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8]

> 아내에겐 아무래도 그 김 집사와 그녀가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에의 의지가 크게 필요해 보였다. 그래 나 역시 아내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가자는 김 집사의 권유에 나는 우선 먼저 아내부터 좋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김 집사를 거들었다(62).

‘나’는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내가 치유되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김 집사가 권하는 기독교 신앙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김 집사와 함께 아내에게 신앙을 권유하는데 정작 자신은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나간 이후, 아내의 신앙이 ‘진짜 신앙심’인지 아닌지 비평한다. “아이의 영생과 내세 복락만을 외어”대는 것은 ‘진짜 신앙심’이 아니라는 것인데 간신히 신앙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내에게 신앙의 본질을 잡지 못했다는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뜬금없으며 외람된 것이다.[9]

그만큼 「벌레 이야기」에서 ‘나’는 아내의 실존적 고통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

8) 이창동의 영화 『밀양』은 「벌레 이야기」의 좋은 해석본으로 읽힌다. 『밀양』은 「벌레 이야기」와 온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결말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벌레 이야기」에서 ‘나’의 아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지만 『밀양』에서 신애는 죽지 않는다. 『밀양』에서 신애가 비록 자살 시도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시종 신애와 함께 하고 마지막에는 거울을 들어주는 종찬의 존재라는 이유도 있다. 종찬은 신애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함께 하려고 신애의 뒤를 좇는다. 교회도 따라 다닌다. 이러한 모습은 「벌레 이야기」의 ‘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9) 아내의 신앙심에 대한 비평은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현길언은 “신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앙한 것”이라고 했으며 진경년은 “자신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선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부른 파국으로 보”았고 이대규는 아내가 교회를 나간 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온 신앙심”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출처는 다음과 같은 차례다(현길언, 1991: 301; 진경년, 2008: 33; 최재선, 2008, 10; 이대규, 1996: 297).

고 볼 수 있다.[10] '나'는 범인을 추정할 때, 즉 "범인은 어느 만큼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48), "우리들(아내와 나 그리고 가까운 이웃 친척들까지도)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49) 등에서 아내와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범인이 밝혀지고 아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는 '우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아내가 김 집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기대는 과연 헛된 것이 아니었다."(63),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64) 등에서 보듯이 '나'는 김 집사와 자신을 '우리'로 표현한다. 아내가 고통에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나'가 아내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11]

> 나로선 그저 기분으로 막연히 반대를 하고 나설 수가 없었다. 아내를 거기까지 인도해온 데는 누구보다 김 집사의 도움이 컸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그것이 어차피 필요한 고비라면 이번 일도 모든 걸 그 집사에게 맡겨두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
> -아무쪼록 집사님만 믿겠습니다.
>
> 여전히 한 가닥 불안스런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나는 그쯤 일을 결정 짓고 말았다. 아내의 일에선 어쨌거나 늘 김 집사의 판단이 옳았던 편인 데다 이제 와선 그녀에 대한 아내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69).

김 집사의 전도와 나의 거듦은 '우리'라는 주체의 행위로 묶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사형을 앞둔 김도섭을 만나는 순간 그 성공적 유대는 균열이 생긴다. 김 집사는 걱정은 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김도섭을 만나게 하자고 '나'를 설득한다. 그리고 '나'는 꺼림칙했지만 김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결심한다. 지금까지 김 집사의 판단이 옳았고 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와 김 집사의 '우리' 공동체는 해체된다. '나'는 김 집사와 함께 아내를 교회에 보내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였지만 교도소에 보내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서술로서 분명히 확인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김 집사를 신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10)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남편이 '냉철한 거리'를 두고 아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독자가 공감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한다(송태현, 2008:332). 최수웅은 '나'가 서술 주체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능적인 목적에서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최수웅, 2007:15).

11) 김애란의 「입동」 역시 작중 화자가 어린 아들을 잃은 사내이다. 그 역시 아내를 관찰하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아내와 자신을 아울러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김애란, 2019). 참조.

수 있다. 변명이자 뼈아픈 후회와 죄책감의 토로이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나'는 후회와 죄책감의 정서를 문면에 담고 있다. 「벌레 이야기」에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하지만'과 '그러나'가 모두 43번 나온다. 그 중 '하지만'은 27번, '그러나'는 16번 등장한다. 역접의 접속 부사 그중에 '하지만'이 잦은 빈도로 나오지만 객관적으로 많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지막 5장,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장에서 '하지만'은 4번, '그러나'는 2번 등장한다. 4페이지 분량임을 고려할 때 또한 5장의 초반 부분은 거의 문단 처음을 '하지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빈도수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지만'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 아내의 심장은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두 갈래로 무참히 찢겨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김 집사 앞에 거기까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78).
나) 아내가 지금까지 내게 입을 다물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무서운 고통과 절망이 입조차 열 수가 없게 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겨우 그 아내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아이를 잃은 아비가 아니더라도 다만 저열하고 무명한 인간의 이름으로 그녀의 아픔만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다(78-79).
다) (김 집사는) 그리고 아내의 신앙심의 회복과 주님의 종으로서의 용기를 부추겼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게는 다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79).
라) 그날 이후로 다시 입을 까맣게 다물어버린 아내는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아아, 아내의 절망과 고통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차마 짐작이나 했을 것인가(79-80).
(강조는 인용자)

가)에서 '하지만'은 아내와 김 집사의 생각이 서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아내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의 길과 인간의 길이 엄연히 다르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에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나'가 아내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서 '김 집사의 기독교'에서는 일견 무시되는 고통인 것이다.[12] 다)에서 '하지만'은 '나'와 김 집사를 구별한다. '나'는 김 집사와는 달리 아내를 기독교

12) '나'는 김 집사의 행동에 대해 "고집했다", "강압했다", "설교했다" 등 단언(斷言) 성격의 서술어를 사용한다(이대규, 1996:304).

신앙의 관점에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의 '하지만'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통의 뿌리를 미처 다 알지 못했다는 처절한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나'가 쓰고 있는 '하지만'은 역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부사보다는 후회와 비탄의 정서를 머금고 있는 감탄사에 가깝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것이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가 자주 등장하고 특히 「벌레 이야기」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다고 전제한다면 우선 이것은 작품의 맥락을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正)의 진술 다음에 반(反)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합(合)의 진술을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5장의 '하지만'은 의미상으로는 '나'의 죄책감의 토로, 형식상으로는 감정의 격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나'는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때, '김 집사의 기독교'와 그 '용서' 개념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지목했다. 그에 비해 여기에서는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후회와 죄책감, 비탄의 정서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벌레 이야기」를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자들이 화자 '나'와 '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메타 서술이라는 지적 그 이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지는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나'가 아들, 알암이와 아내를 잃은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심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증언'하는 것이며 그 무참한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애도 작업이라고 보았다.

'나'는 「벌레 이야기」에서 오로지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애도한다. '나' 역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지만 살해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다. 오로지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나'의 서술 태도가 "냉철하게" 보이는 이유다. 지난 아내의 행적을 더듬어 '나'가 도달한 것은 아내의 죽음에는 기독교 신앙이 직·간접적으로 개

입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김 집사의 기독교'이며 그것과 관련된 '용서의 담론들'이다.

'나'는 아내의 기독교 신앙이 아내를 구원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혼돈에 빠졌다. 아내는 용서의 도정에서 아이 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용서는 인간의 길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였다. 그러나 '김 집사의 기독교'는 또한 살해자 김도섭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 집사와 김도섭은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식 잃은 상실의 고통에 더하여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알암이의 고통을 떠안은 아내는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세계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데리다는 기독교의 용서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징후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용서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내의 절규와 '나'의 인식에서 드러난 것처럼 용서는 인간의 길이 아닌 것이다. 데리다의 용서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의 체계 안에서 용서를 강요당했던 아내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용서는 불가능하니 아예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데리다는 덧붙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몸짓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윤리적인 몸짓이라고 했다"(왕철, 2012:266). 정리하자면 진정한 용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향해야할 목표이기도 하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과 자신의 거리를 재고서 왜 자신은 신처럼 살 수 없는가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집사의 기독교'는 그러한 사유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삶을 지멸있게 추적하여 아내가 끝내 자신에게 밝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재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내의 죽음의 배후에는 '김 집사의 기독교'가 있다고 보았다. '김 집사의 기독교'는 전도를 위해 타자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고 애도의 과정을 전도의 시간표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그 용서 개념에는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느 정도 변명을 덧붙였지만 아내와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했고 그것을 고백으로 표현했다.

요컨대 「벌레 이야기」에서 '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였

다. 그 처음은 아내의 죽음을 '희생'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심리적 국면에 관한 것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 배후에는 '김 집사의 기독교'가 있었으며 그 용서 개념에 내재한 폭력성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증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슬픔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던 아내와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아내가 교회에 갈 때, 김도섭을 만나러 교도소에 갈 때, 아내와 함께 한 사람은 김 집사였지 '나'가 아니었다. 앞서 증언의 두 측면이 아내 죽음의 원인을 '김집사의 기독교'에서 찾고 있다면 증언의 마지막 측면은 그것을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한 '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그 원인을 후회와 죄책감의 토로 가운데 찾는 것, 이것은 이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은 '나'가 선택한 애도의 방법이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동혁 역 (2018).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Nussbaum, Martha C. (2016). *Anger and Forgiveness : Resentment, Generosity, Justice*. 서울: 뿌리와 이파리.

[Kang, D. H. (2018). *Anger and Forgiveness : Resentment, Generosity, Justice*. Seoul: Puriwaipari. Trans. Nussbaum, Martha C. (2016). *Anger and Forgiveness : Resentment, Generosity,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김애란 (2019). 입동. **바깥은 여름**. 서울: 문학동네.

[Kim, Ae-Ran (2019). *the Onset Of Winter. Outside Is Summer*. Seoul: Munhakdongne.]

김주희 (2004).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가 '증언'하는 용서의 도리. **한국문예비평연구**, 14, 127-55.

[Kim, J. H. (2004). *the Principle of Forgiveness From "the Story of the Bug" Written by Lee, Chung-Joon. Journal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14, 127-55.]

나소정 (2009). 다매체 시대의 문학비평(1):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주제 해석에 관하여-이청준 「벌레 이야기」와 이창동 「밀양」. **한국문예창작**, 8(2)(통권 16호), 253-80.

[Na, S. J. (2009). *Literary Criticism in the Era of Multimedia*(I). *Korean Literary Creative Writing*, 8(2), 253-80.]

배승민・이지현 역 (2018).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Brook Noel and Pamela D. Blair(2008). *I wasn't Ready to Say Goodbye: Surviving, Coping & Healing After the Sudden Death of a Loved One*. 서울: 글항아리.

[Bae, S. M. & Lee, J. H. (2018). *I Wasn't Ready to Say Goodbye: Surviving, Coping & Healing After the Sudden Death of a Loved One*. Trans. Brook Noel and Pamela D. Blair(2008). *I Wasn't Ready to Say Goodbye: Surviving, Coping & Healing After the Sudden Death of a Loved One*. USA: Sourcebooks.]

서종한 (2018). **심리부검**. 시간여행.

[Seo, J. H. (2018). *Psychological Autopsy*. Seoul : Siganyoehaeng.]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Son. W. S. (2008). *Forgiveness and Cur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송연수 역 (2013). **용서라는 고통**, Stephen Cherry (2012). *Healing Agony: Re-Imaginining Forgiveness*. 서울: 황소자리.

[Song, Y. S. (2013). *Healing Agony: Re-Imaginining Forgiveness*. Seoul: Hwangsojari. Trans. Stephen Cherry (2012). *Healing Agony: Re-Imaginining Forgiveness*.

USA: Continuum Int'l Pub Group.]

송태현 (2008).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 영화 『밀양』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5, 세계문학비교학회, 328-351.

[Song, T. H. (2008). *From A Story of Insect to the Movie Secret Sunshine.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5, 328-51.]

신정아・최용호 역 (2016). **신앙과 지식-세기와 용서**, Jacques Derrida. (1996・2001). *Foi et Savoir suivi de Le Siècle et le Pardon*. 서울: 아카넷.

[Sin, J. A., Choi, Y. H. (2001). *Foi et Savoir suivi de Le Siècle et le Pardon*. Seoul: Acanet. Trans. Jacques Derrida. (1996・2001). *Foi et Savoir suivi de Le Siècle et le Pardon*. Paris: Les Editions Du Seuil.]

오병학 (1992). **손양원**. 서울: 규장.

[Oh, B. H. (1992). *Son, Yang-Won*. Seoul: KyuJang.]

오은엽 (2018). 이청준 「벌레이야기」에 나타난 분노의 정념과 서사적 상상력. **국제어문**, 78, 국제어문학회, 269-93.

[Oh, E. Y. (2018). *the Passion of 'Anger'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 in Lee Chungjun's Worm Stor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78. 269-93.]

왕철 (2012). 자크 데리다의 따뜻한 사유와 이론. **영미문학교육**, 16(2), 265-81.

[Wang, C. (2012). *Warm Reasons and Theories of Jacques Derrida.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6(2), 265-281.]

윤희기・박찬부 역 (2004)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Sigmund Freud. (1994).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서울: 열린책들.

[Yoon, H. K., Park, C. B. (2004).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Seoul: Yeolinchaekdul. Trans. Sigmund Freud. (1994).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The Hogarth Press]

이대규 (1996). 이청준 소설 「벌레 이야기」의 상상력 연구. **현대소설연구**, 5, 한국현대소설학회, 291-313.

[Lee, D. K. (1996). *Study on Imagination of Lee, Chung-Joon's novel, a Worm's Story.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5, 291-313.]

이위발 (1991). 문학의 토양을 이룬 반성의 정신. **이청준 論**. 삼인행. 153-68.

[Lee, W. B. (1991). *The Spirit of Reflection That Has Attained the Soil of Literature. Study On Lee, Chung-Jun*. Seoul: Saminhaeng. 153-68.]

이재경 역 (2018). **복수의 심리학**, Stephen Fineman. (2017). *Revenge: A Short Enquiry into Retribution*. 서울: 반니.

[Lee, J. K. (2018). *Revenge: A Short Enquiry into Retribution*. Seoul: Banni. Trans. Stephen Fineman (2017). *Revenge: A Short Enquiry into Retribution*. London: Reaktion Books.]

이청준(2013). **벌레이야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Lee, C. J. (2013). *A Worm's Story*. Seoul: Munhakgwajisungsa.]

임진수 (2013). **애도와 멜랑콜리**. 서울: 프로이트 라캉학교・파워북.

[Lim, J. S. (2013).*Mourning-Melancholia*. Seoul: Power book.]

진경년 (2008). 칸느 영화제와 한국 영화『밀양』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3-36.

[Jin, K. N. (2008). *A Study on the Cannes Films Festival and the Korean film 'Milyang'(Secret Sunshine)*.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 15, 23-36.]

채기화 역 (2015). **애도: 상실과 마주하고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기**, Verena Kast. (2013). *Trauern: Phasen und Chancen des psychischen Prozesses*. 서울: 궁리.

[Chae, K. H. (2015). *Trauern: Phasen und Chancen des psychischen Prozesses*. Seoul: Kungree. Trans. Verena Kast (2013). *Trauern: Phasen und Chancen des psychischen Prozesses*. Freiburg: Verlag Herder GmbH.]

최수웅 (2007). 소설과 영화의 창작병법론 비교분석-「벌레 이야기」와『밀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1-23.

[Choi, S. W. (2007).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reative Methodology of Fiction and the Cinema*. *Eomunyounkoo*, 54. 1-23.]

최재선 (200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정론 연구. **문학과 종교**, 13(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1-22.

[Choi, J. S. (2008). *A Study on the Theodicy Expressed in Korean Modern Novels*. *Literature and Religion*, 13(2), 1-22.]

현길언 (1991). 구원의 시련을 위한 사랑과 용서. **이청준 論**. 삼인행, 170-81.

[Hyoun, K. U. (1991). *Love and Forgiveness For the Trials of Redemption. Study On Lee, Chung-Jun*. Seoul: Saminhaeng, 170-81.]

한래희 (2014). 소설,「벌레이야기」와 영화「밀양」의 서사전략 비교-'애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339-73.

[Han, L. H.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ategy of Narrative Between <Worm Story> and <Secret Sunshin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2. 339-73.]

논문초록

애도의 방법: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론

조경덕 (평택대학교)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서술자 '나'의 애도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분석하였다. 『벌레 이야기』는 중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벌레 이야기』에는 알암이 어머니, '나'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와 이를 이야기하는 '나'의 상황이라는 구조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나'의 이야기 행위를 '애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나'가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아들 알암이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은 때이다. 알암이와 아내의 일들을 기억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나'의 애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애도의 측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처음은 '희생의 증언'에 관한 것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일 커다란 목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나'가 애도 작업의 일환으로 "아내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주목했다. '나'가 이른바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내는 용서라는 과업을 떠맡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내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의 후회와 '죄책감'에 관해서이다. '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 술회한다고 보았다. 이 역시 애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이청준은 자신의 소설의 중층 구조에 대해 '반성의 정신'을 기입한 것이라고 했는데 『벌레이야기』에서 '반성의 정신'은 '나'가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이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은 '나'가 선택한 애도의 방법이었다.

주제어 : 애도, 용서, 증언, 반성, 죄책감

『신앙과 학문』. 24(4). 231-265.
https://doi.org/10.30806/fs.24.4.201912.2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탐색

Exploration of the Core Competencies of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영숙 (Youngsook Kim)*
이지연 (Jyi-yeon Y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re competencies required for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investigate Christia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n them. To this end, the first version of core competencies of Christian English teachers was devis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established core competency framework in a Christian university. As for its appropriac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11 English education experts. After being revised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results, another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63 Christia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hich was to find out their perceptions on both the importance and their own attainment of the competencies.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y perceived all the competencies important, which enabled the revised framework to be finalized. It consisted of 15 core competencies, 43 sub-competencies and behavior indicators. Finally, the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Christian English teacher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core competencies, Christian English teachers, teacher education program

*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yskim@csu.ac.kr
**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jyyi@csu.ac.kr
2019년 10월 30일 접수, 12월 22일 최종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교육 분야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행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그 교육목표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성이 2015 개정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교현장에서도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광옥・이정원, 2019). 한편 교육부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5대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자율화(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이다(홍선주 외, 2017: 4).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 교사들이 이제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안내자, 사고 촉진자, 경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5: 16).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에 대한 제고와 미래 학교 교육에 걸맞은 교원양성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강현주・조대연, 2017; 이현우・조명희 2012; 정제영 외, 2014; 허희옥 외, 2011; Prince et al, 2015). 허희옥 외(2011)는 교사 역량을 규명함에 있어 미래사회의 학교 교육과 연관하여 역량을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 소양 이외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지식과 윤리의식, 유연성 등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정제영 외(2014)는 미래 교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학습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형 교사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양성을 위해 현장학교교육에 적합한 교수역량 중심의 체제 혁신이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이경, 2017). 이러한 교사 역량과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

하고, 아직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미래의 학교 교육 변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역량을 개발시키고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주호, 2017: 8). 본 연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도 학교 차원의 핵심역량, 하위역량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전공 핵심역량이 형식적으로 제안되어 있기는 하나, 각 전공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며 한계성이 있다.

영어교육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인공지능 기반 번역이나 통역기기가 기존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대신하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영어교사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선웅, 2018; 정채관, 2017). 그러나 비록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소통하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하지 않고 인간 간에 직접 상호작용 해야 할 필요성과 유익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므로 영어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김형순・김혜영, 2017; 안성호, 2018). 안성호(2018: 24)는 영어의 기능 함양의 기본적인 목표 달성은 '기계'에 맡기고, 영어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술자'(technician) 수준을 넘어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개발과 감성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더 집중하는 교육 '전문가'(professional)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나 개별화된 학습으로 인해 비인간화와 사회체제의 윤리적 문제에 대비하여 인성교육과 공감능력 함양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더 증대될 수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은 전 세계에 흩어진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나타날 것이고, 고도로 발달 된 기기나 시스템을 이용한 간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 함양이 영어교육 방식 개선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김영숙, 2017; 안성호, 2018).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기독교 학교나 교회교육 현장에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김수환, 2017; 김희자, 2017; 류은정, 2018; 이영미・이윤석, 2018; 허계형,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핵심기술의 활용 등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모든 교육영역, 특히 교회교육이나 기독교 학교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공감 능력과 피조 세계를 돌볼 청지기적 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역량 함

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류은정, 2018)과 4차 산업혁명의 기계적이고 논리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기독교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수환, 2017; 이영미・이윤석, 2018). 이는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더 존중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간상과 핵심능력 그리고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성태제, 2017).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영어교육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기독영어교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의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기독교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1차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기독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도출함에 있어 연구과정의 구체성과 실제성, 연구결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과 연계하며 접근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의 영어교사양성과정을 위한 향후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 핵심역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 핵심역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들(조상식, 2016; 홍선주 외, 2017)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탐색하면서 기존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완전히 소멸하거나 대체될 것인지, 또는 전통적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해 변화될 것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미래학교 모형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현행 학교 개선 모형에서 점차적으로 학교 유형 다양화 모형으로,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체제 내의 학교 모형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구안하고 있다(홍선주 외, 2017: 42). 미래학교는 학교 구조나 운영 전반에 유연성이 강조되며,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합교육이나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학교 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다문화 교육, 직업·진로교육, 테크놀로지 및 지식 활용 교육 등을 더욱 강조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과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박선화 외, 2017; 주형미 외, 2016).

이러한 미래학교의 교육 방향과 변화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미래교사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어 왔다. 정미경 외(2010: 64-71)는 미래사회의 교육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변화의 조망에 기초하여 미래 교사역량을 인지적 측면과 범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인지적 측면으로 1) 정보습득을 위한 기초적 지적능력의 교육역량, 2) 이해력, 창의력, 다양성의 존중 등 추가적 인지능력의 교육역량, 3) 정보전달기능의 축소로 인한 개별화 교육, 인성지도, 진로지도 역량이 있다. 범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사 역량은 1)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역량, 2) 다문화 교육의 역량, 3) 세계화 교육의 역량, 4) 생태학적 교육의 역량이다.

계보경 외(2011: 100-104)는 미래사회에서는 교사가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습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조율자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사회 교사의 역할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1) 안내하기, 2) 새로운 연결을 구성하도록 교육하기, 3) 활동 독려하기, 4) 동기 촉진하기, 5) 개별 평가, 피드백, 학습전략 제공 및 조언하기, 6) 집단 상호작용 촉진하기이다. 정제영 외(2014: 18-19)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임교사의 역량을 탐구함에 있어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크게 이해(understandings), 수행(performances), 협력(collaborations)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 역량을 제시하였다.

Prince 외(2015: 4)는 학습 생태계(learning ecosystem)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해진 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학습 생태계에서 교사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개별 학습자들을 돕기 위한 7가지의 가능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참조). 7가지의 역할에 대하여 각 역할 설정에 대한 변화의 동인(drivers of change)과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교사역할의 특징은 전통적 학교시스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환경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팀을 이뤄 학습자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Table 1 Seven possible educator roles in the future (Prince et al., 2015: 4)

Teacher's Role	Definition
Learning Pathway Designer	Works with students, parents, and learning journey mentors to set learning goals, track students' progress and pacing, and model potential sequences of activities that support learning experiences aligned with competencies.
Competency Tracker	Tags and maps community-based learning opportunities by the competencies they address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configurable personalized learning pathways and school formats.
Pop-up Reality Producer	Works with educators, subject matter experts, story developers, and game designers to produce pervasive learning extravaganzas that engage learners in flow states and help them develop relevant skills, academic competencies, and knowhow.
Social Innovation Portfolio Director	Builds networks in support of meaningful service-based learning and community impact by linking student action-learning groups seeking to develop core skills and knowledge with organizations seeking creative solutions.
Learning Naturalist	Designs and deploys assessment protocols that capture evidence of learning in students' diverse learning environments and contexts.
Micro-Credential Analyst	Provides trusted, research-based evaluations and audits of micro-credential options and digital portfolio platforms in order to provide learners and institutions with comparative quality assurance metrics.
Data Steward	Act as a third-party information trustee to ensure responsible and ethical use of personal data and to maintain broader education data system integrity and effective application through purposeful analytics.

홍선주 외(2017: 53)는 지능정보사회의 교사역할과 역량 변화상 탐색을 위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미래학교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이 더 강조된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 능력', '창의적인 교육과정 구성 능력', ' 교수학습 설계 능력'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지능정보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양이 방대하고 동시에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도전하는 자세의 교사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능력',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교사의 교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상담과 진로지도, 조직과 공동체 참여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능력', '학생들 상담 및 진로지도 역량',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습하고 지도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교수학습 수행에 필요한 교사 역량을 도출하고자 현장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교사역할의 영역을 크게 기획 및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의 5가지로 나누어 그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총 8개의 교사역할을 도출한 후, 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였다. 8개의 교사역할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기획,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 학습 생태계 조성, 학습테크놀로지 개발・선정・활용, 수업실행, 학습관리, 학습과정 추적, 학습성과 평가이다(홍선주 외, 2017: 197-199).

한편 문은경 외(2016)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등예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원 핵심역량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한 교원역량(교수학습 지도 역량, 학생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역량, 일반 역량)에 세계화와 정보화, 다문화 항목을 개별 역량군으로 추가하여 전문가들 대상으로 검증한 후 최종 11개 핵심역량군을 도출하였다(Table 2 참조). 또한, 개발된 역량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의 현재수준 및 사범대학의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예비교사들은 역량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정 지원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역량으로 전문 소양의 유연성과 자기계발, 학생과의 관계 형성, 수업계획 및 개발의 진단, 다문화, 세계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핵심역량으로 교과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학생지도와 관련된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은 예비교사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역량들과 현재 역량수준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able 2 Core competencies of teachers for future society (Moon et al., 2016: 194-196)

Core Competencies	Constructs
1. Content Knowledge	Knowledge of major and content area
2. Teaching Attitude	Sincerity/honesty, flexibility, self-improvement,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passion
3.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ffection and concern for students, respect and trust for students
4. Communication	Expression, delivery, listening
5. Class Management	Setting classroom environment, classroom management
6. Lesson Design and Development	Diagnosis/analysis, organization ability
7. Instructional Strategies	Lesson overview, lesson procedure, instructional strategies, ability to utilize ICT
8. Assessment & Feedback	Assessment, feedback
9. Multi-cultural Attitude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multiculturalism
10. Globalization	Foreign language competence, cross-cultural adaptatio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11.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net communication,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knowledge

한편 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을 싱가포르의 교사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Yim(2017)은 영어교사 역량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영어교육일반 역량', '영어교육특수 역량', 그리고 '정의적 역량' 이다. '영어교육일반 역량'은 영어교육관련 범교과 역량으로서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평가, 정보활용, 수준별 지도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영어교육특수 역량'은 교과 특수적 역량으로 영어능숙도, 영어교수법, 다문화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의적 역량'은 교사전문성 신장, 교사태도, 학습자 중심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일반 교원역량과 비교할 때 교수학습지원이나 전문적 소양은 비슷하나 영어

교육특수 역량인 교사의 영어실력이나 영어교수법, 학생 수준별 지도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어교사의 역할이나 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로 4차 산업사회의 영어교육에 대한 초등교사 및 교사교육자 인식(김영숙,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영어교사의 미래준비도에 대한 인식 연구(김형순・김혜영, 2017)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인식 연구(Jones et al., 2018)를 들 수 있다. 김영숙(2017)은 교사와 교사교육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4차 산업사회에서는 단순한 반복 영어학습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적, 정의적, 창의적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어교사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자료를 수업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학습자 스스로 기기 활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개별 학습자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 기법을 적용하는 능력, 담화 시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의미구성적으로 접근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연구결과 밝혔다(김영숙, 2017: 141). 김형순・김혜영(2017: 183)은 특히 지능정보사회에는 영어교사의 기술지식(Techn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교과내용과 교과교수법에 관한 지식이 주가 되고 기술에 대한 지식은 별도의 부차적 지식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기술, 교수, 내용지식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융합지식을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어교사의 역할이나 인식조사 연구를 종합해 보면, 미래 영어교사들에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지식과 기술활용능력,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자기학습능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간문화적 역량, 영어교사 간의 지식공유 네트워킹 능력 등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연관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영어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후속 논의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정채관 외, 2018). 안성호(2018: 24)는 기계와 인간의 상호보완성을 통해 영어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영어교사는 기계와 기술을 잘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더 고차원적인 사고 역량을 계발하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도전적으로 경제·사회정의 측면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Brown과 Lee(2015: 585)가 강조한 영어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어교사가 학습자들의 영어 기능 함양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달성을 넘어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선의를 가지고 타문화권 화자들과 의미협상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실천적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2. 기독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도 다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김수환, 2017; 김희자, 2017; 류은정, 2018; 허계형, 2017). 김수환(2017)은 학교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이러한 변화에 잘 부응하고 있으나 미래 기독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학교의 핵심역량에 대해 강영택(2015)은 이근호 외(2013)를 중심으로 수행된 핵심역량 선행연구와 기독교 학교의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기독교 학교가 목표로 삼고 교육해야 할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아홉 가지로 제시하였다(Table 3 참조). 이는 일반적인 역량 다섯 가지-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능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와 기독교적 역량 네 가지-영적감수성, 다문화감수성, 공동체역량, 정의와 평화감수성-이다. 그는 또한 기독교 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정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첫째, 먼저 학교의 설립 정신을 토대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가 기독교 학교에 요구하는 기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역량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학교에서 역량기반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식의 확산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영택, 2015: 27).

Table 3 Christianity-based core competencies(Kang, 2015: 25)

Core Competencies	Meanings
1. Self-management	Ability to reflect oneself autonomously with a belief of confident learner
2. Problem-solving	Ability to solve real problems based on right moral judgment and rational choice
3.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to use various information and materials effectively through critical analysis and evaluation
4. Creative Thinking	Ability to create ideas through critical, analytical, and divergent thinking
5. Communication	Ability to communicate one's opinion and ideas effectively and properly
6. Spiritual Sensitivity	Ability to respond sensitively to inner minds of human and spiritual problems
7. Multi-cultural Sensitivity	Ability to respond sensitively toward cultural differences and cultural diversity
8. Community Building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 attitude to build truly meaningful community
9. Justice/Peace Sensitivity	Ability to discern justice and injustice and respond sensitively toward injustice/ Ability to respond with joy coming from the peaceful relationship with others

최근 지능정보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역량기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생 핵심역량과 기독교 학교의 핵심역량개발에 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강영택, 2015; 김희연 외, 2018; 박채희 외, 2016; 이은실・제양규, 2016; 이하원・이화선, 2017). 이중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예로 한동대학교와 총신대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5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역량, 논리적 사고와 소통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다학제 융합역량, 인성과 영성이다(이은실・제양규, 2016: 187). 한동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서 기독 인재의 가장 차별화되는 핵심역량으로 영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근간으로서 모든 교육과정에 통합되도록 노력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총신대학교는 융합과 통섭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독 인재양성을 목표로 ‘경건한 인성인, 창조적 지성인, 글로컬 실천인’을 인재상으로 정하였다(총신대학교, 2017). 각 인재상 별로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경건한 인성인’을 위해 코람데오 인성역량과 코람데오 섬김역량을, ‘창조적 인성인’을 위해 자기개발과 지식탐구역량, 창의와 통섭역량을, 그리고 ‘글로컬 실천인’을 위해 의사소통 및 윤리적행동역량과 글로컬 시민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핵심역량은 다시 3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다. 하위역량들을 소개하면, 코람데오 인성역량에는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인문역량, 코람데오인성, 코람데오 섬김역량에는 교회섬김역량, 이웃섬김역량, 코람데오영성이 포함된다. 자기개발과 지식탐구역량에는 비판적분석적사고, 자기주도적학습역량, 진로개발 및 자기관리역량, 창의와 통섭역량에는 통섭과 융합적사고역량, 창의적문제해결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이 포함된다. 소통 및 윤리적행동역량에는 의사소통역량, 윤리적행동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컬시민역량에는 시민의식역량, 다문화이해 및 수용, 글로컬쟁점이해 및 참여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핵심역량들은 전공 핵심역량으로 수립되어 기독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역량들의 큰 틀은 제공해주고 있으나 전공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지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교수・학습・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변화해가고 있는 교육현장에 맞게 전공 핵심역량을 구체화하고 행동지표를 마련하여 기독영어교사양성 교육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학의 기독영어교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은 어떠한가? 기독영어교사의 자질이나 현장학교에서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김영숙, 2009; 이성희, 2009; Smith and Carvill, 2001)에서는 기독영어교사의 정체성 기준을 온전하신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영어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전문적인 교사훈련, 타문화권 화자들에 대한 환대, 성숙한 인격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기독영어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비기독교인과는 차별된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맞추어 기독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독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 개선과 기독영어교사양성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과 기독예비영어교사 집단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서 기독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3명, 일반대학 영어교육전공 교수 3명과 중・고등학교 현직 기독영어교사 5명이 참여하였다. 일반대학 영어교육 전공교수가 포함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기독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교육분야의 일반적인 이론적 틀에서 보더라도 부합하도록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핵심역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전문가 집단의 교육경력은 교수의 경우 10년 미만 4명, 10년 이상~20년 미만 1명, 20년 이상 1명이었다. 또한, 현직교사 5명은 모두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로는 교수 6명은 모두 여성이었던 반면, 교사 5명 중 1명은 여성, 4명은 남성이었다. 이들은 본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본 연구에 모집되어 참여하였다.

한편,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독예비영어교사 6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과 재학생 전체 100여명을 본 연구에 참여자로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 상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수는 63명이었다. 이들은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8년 2학기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었으며, 이중 제2전공생 2명을 제외한 61명은 모두 영어교육을 주전공으로 하였다. 이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학년별로 1, 2학년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0%(44명)를 차지하였고, 교육실습을 마친 4학년은 12.7%(8명)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17명(27%), 여학생 46명(73%)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ormation about survey participants (*N*=63)

	Gender		Year				Ages	
	Male	Female	1	2	3	4	20-24	over 25
N	17	46	24	20	11	8	54	9
(%)	(27)	(73)	(38.1)	(31.7)	(17.5)	(12.7)	(85.7)	(14.3)

2. 연구 절차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과 기독예비영어교사 집단의 참여로 진행된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검토 및 총신대학교 핵심역량과 연계를 통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 개발
2) 전문가 집단 대상으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의 적절성 설문조사
3)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을 거쳐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 도출
4)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에 대해 기독예비영어교사 대상으로 인식조사
5)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최종본 도출

즉, 본 연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 핵심역량(문은경 외, 2016; 정채관 외, 2018; Yim, 2017), 기독학교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강영택, 2015; 이은실・제양규, 2016) 그리고 기독교대학 핵심역량의 구체적 사례로서 총신대학교 핵심역량(총신대학교, 2017)을 고찰하여 2018년 10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위해 모집된 영어교육 전문가들에게 같은 달에 설문지 형태를 통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집단 대상의 설문조사는 이메일로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하도록 한 후 회신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후 2018년도 11월 중에 총신대학교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수거된 설문지의 응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거된 모든 응답지의 응답 형태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설문지 내에 인적정보 질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대상 설문지의 경우 Cronbach's alpha(α) .98, 기독예비영어교사 대상 설문지의 경우 .98로 나타나 모든 질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과 수정안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과 기독예비영어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각 집단별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전문가 집단 대상의 설문조사는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총신대학교의 핵심역량 6개와 하위역량 9개와 연계하며 구체적으로 고안되었다. 그 결과, 전공특성에 적용한 15개 전공 핵심역량, 44개의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를 추출하여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을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적절성을 묻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편, 기독예비영어교사들 대상의 설문지는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을 토대로, 15개의 전공 핵심역량, 43개의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이 판단할 때 전공 핵심역량, 하위구성요소, 행동지표 각각의 중요도, 그리고 자신의 현재 보유도를 판단해보도록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더욱 폭넓게 합의된 관점에 기반하여 핵심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포함하게 되었다. 전문가 집단 및 기독예비영어교사 집단 각각을 위한 설문지에서 각 질문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서 답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추가 또는 보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질문 1개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고안된 각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 기독예비영어교사 집단 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부터 응답 수집된 설문지들은 각 집단별로 구분하여 SPSS Win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핵심역량의

하위구성요소별 기독예비영어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보유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95%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 개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총신대학교에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총신대학교 핵심역량 6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역량 9개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9개의 하위역량이 전공별로 구체적이지 못하여 기독영어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구체적·실제적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독영어교사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독영어교사 역량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초안을 마련하였다. 즉, 총신대학교의 6개 핵심역량과 9개 하위역량은 유지하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하위역량을 영어교육이라는 전공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15개 전공 핵심역량으로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하위역량 중 '자기개발과 지식탐구역량'을 5개 개별 역량('교과전문성 역량', '교과지도 역량', '행정/경영 역량', '인성 및 생활지도 역량', '자기관리 역량')으로 구체화하였고, '창의와 통섭역량'도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3개 개별 역량('미래사회대비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15개 전공 핵심역량들은 다시 4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세분화하고, 하위구성요소 각각을 구체적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한 행동지표들을 고안하였다. 기존의 하위역량을 세분화하여 전공 핵심역량을 수립한 데에 이어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까지 수립하게 된 것은 전공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역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공교과목 교수·학습에 있어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15개의 전공 핵심역량, 44개의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들로 구성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의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상의 방법으로 도출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에 대해서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그 적절성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에서 제시된 15개 전공 핵심역량, 44개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 각각에 대한 적절성을 진단하였다. 전문가 집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Relevance of core competencies and sub-competencies perceived by English education expert group (*N*=11)

Core Competencies	Relevance of Core Competencies		Relevance of Content and Behavioral Indicators		
	M	*SD*	Sub-Competencies & Behavioral Indicator	*M*	*SD*
1. Spiritual Sensitivity	4.73	.47	Calling and Dedication	4.64	.67
			Awareness of Students	4.73	.67
			Integration of Faith and English Teaching	4.09	.94
			Christian Teacher Character Development	4.36	.81
2. Practice of Piety	4.36	.81	Practice of Service	4.55	.69
			Practice of Altruism	4.55	.69
3. Professional Content Knowledge	4.27	.91	Content Knowledge	4.64	.67
			Extracurricular Content Knowledge	4.55	.52
			Curriculum Development	4.45	.82
			Professional Teacher Development	4.45	.52
4. Pedagogical Skills	4.82	.41	Understanding Students' Characteristics	4.55	.69
			Instructional Design & Development	4.64	.51
			Materials Development & Using ICT	4.36	.81
			Lesson Management	4.82	.41
			Assessment & Feedback	4.82	.41
			Learning Assistance & Empowerment	4.45	.69
5. Administration/ Management	4.09	.70	Understanding School Environment	4.45	.82
			Classroom Management	4.45	.69
6. Students' Character & Life Guidance	4.55	.69	Counseling Skills	4.73	.47
			Student Life Guidance	4.45	.69
			Student Career Guidance	4.55	.69
			Student Character Guidance	4.55	.69
7. Self-management	4.64	.67	Conflict Management	4.55	.69
			Perseverance	4.64	.67
			Self-improvement	4.45	.69
			Self-autonomous Learning	4.55	.69

<continued>

Core Competencies	Relevance of Core Competencies		Relevance of Content and Behavioral Indicators		
	M	*SD*	Sub-Competencies & Behavioral Indicator	*M*	*SD*
8.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4.45	.69	Understanding Future Society	4.27	.79
			Understanding Educational Environment	4.55	.69
			Convergence Thinking	4.64	.81
			Adaptability to Social Changes	4.64	.51
9. Creative Problem-solving	4.45	.82	Creative Innovation	4.45	.82
10. Information & Technology Utilization	4.55	.69	Resource Utilization & Development	4.55	.69
11. Communication	4.73	.65	Verbal Communication	4.64	.67
			Nonverbal Communication	4.45	.82
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4.64	.51	Interaction Skills with Students	4.73	.47
			Coordination of Student Relationships	4.73	.47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4.45	.82
13. Ethical Behavior	4.45	.69	Ethical Behavior	4.64	.51
14. Social Participation	4.36	.67	Understanding Local Communities	4.55	.82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4.18	.75
			Civic Responsibility	4.55	.52
15. Community Building	4.36	.67	Multicultural Understanding	4.64	.67
			Community Building	4.82	.41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4.73	.47
M	4.50			4.55	

전공 핵심역량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과지도역량’이 적절성에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4.82, *SD*=0.41), ‘의사소통역량’(*M*=4.73, *SD*=0.65), ‘영적감수성역량’(*M*=4.73, *SD*=0.47)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정/경영역량’이 평균 4.09로 적절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수업운영과의 직접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15개 핵심역량의 적절성 평균을 살펴보면 4.50으로 나타나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에 포함된 역량들이 대체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각 역량별 하위구성요소 및 행동지표에 대해서도 전체 평균이 4.55로 나타나 모든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의 설문응답 결과로 볼 때 적절성 수준이 낮아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에서 삭제해야 할 역량이나 행동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핵심역량 문항 채택을 위해 역량개발 진단도구 관련 선행연구(김희연 외, 2018; 문은경 외, 2016; 이현우・조명희, 2012)를 참고하여 설문지 응답의 5점 척도 중 ‘그렇다’(4점)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 평균이 4.0보다 높은 핵심역량 및 하위구성요소들은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전공 핵심역량과 하위구성요소, 행동지표 각 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균이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역량과 행동지표 모두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단,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제시된 의견 중 중복 항목 조정 및 용어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다소 중복되고 있는 하위구성요소('자기주도적 학습') 중 1개는 삭제하였고, 영적감수성 역량의 하위구성요소인 '소명의식과 헌신'은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 인식'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듯이, 15개 전공 핵심역량과 43개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로 구성된 틀을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으로 확정하였다.

Table 6 Revised core competencies of Christian English teachers

Cor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 Indicators
1. Spiritual Sensitivity	Christian Teacher Identity	Awareness of Christian teacher identity based on stewardship and calling/ Awareness of teacher as a missionary in school
	Awareness of Students	Awareness of students as God's image bearers and spiritual beings/ Love and care for each student's development
	Integration of Faith and English Teaching	Attempt to integrate faith and Christian worldview in teaching
	Christian Teacher Character Development	Mature character(sincerity, honesty, courage, integrity, forgiveness, gratitude, humility, sacrifice etc.)
2. Practice of Piety	Practice of Service	Servant leadership and sharing from ethical and moral domain
	Practice of Altruism	Putting other's happiness first and caring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3. Professional Content Knowledge	Content Knowledge & English Communication	Understanding and attainment of professional content knowledge(English teaching)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Extracurricular Content Knowledge	Display of general knowledge conducive to English teaching
	Curriculum Development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ntents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Keeping up with the field through research, self-diagnosis and reflection, collaboration with peers, and teacher learning

<continued>

Cor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 Indicators
4. Pedagogical Skills	Understanding Students'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theori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 characteristic of students' learning
	Instruction Design & Development	Effective design lesson plan and instructional contents, use of a variety of techniques to motivate students in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 Using ICT	Use of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creatively adapts textbook material, use up-to-date ICT
	Lesson Management	Use of appropriate principles of classroom management
	Assessment & Feedback	Plan a variety of assessment methods and provide optimal feedback to students
	Learning Assistance & Empowerment	Provide assistance and stimulate learning (creative thinking, intellectual curiosity, self-autonomous learning, problem-solving)
5. Administration/ Management	Understanding School Environment	Understanding general school management and teacher tasks
	Classroom Management	Providing optimal classroom environment and processing of other managerial tasks
6. Students' Character & Life Guidance	Counseling Skills	Understanding and use of counseling skills working with students
	Student Life Guidance	Guiding students' school life, student councils, activities, etc
	Student Career Guidance	Understanding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providing appropriate career guidance
	Student Character Guidance	Developing students' character and teaching of virtues
7. Self-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and overcoming fatigue
	Perseverance	Emotional control and expression of emotion in an appropriate manner
	Self-improvement	Setting goals for continued professional growth
8.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Understanding Future Society	Understanding and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and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Understan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s including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context
	Convergence Thinking	Exploring and adopting interdisciplinary and convergent approach in thinking
	Adaptability to Social Changes	Sensitivity and flexibility to social changes, finding and execution of countermeasures toward changes

<continued>

Cor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Behavior Indicators
9. Creative Problem-solving	Creative Innovation	Attempting and challeng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creative problem-solving
10. Information & Technology Utilization	Resource Utilization & Development	Use of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available resources for problem-solving, conscientious use of big data and ethical management of resource materials
11.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	Effective verbal communication and listening skills
	Non-verbal Communication	Effective nonverbal communication using appropriate gesture, eye contact, and nonverbal codes
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action Skills with Students	Establishing good relationship with students through effective interaction skills
	Coordination of Student Relationships	Understanding and coordinating students' peer relationship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Building relationship and cooperating harmoniously with colleagues
13. Ethical Behavior	Ethical Behavior	Understanding and following social rules with high ethical and moral standards
14. Social Participation	Understanding Local Communities	Understanding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ng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Understanding global environment and care for the natural creation
	Civic Responsibility	Awareness of and taking responsibility as a local/world citizen
15. Community Build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sensitively toward cultural differences and cultural diversity
	Community Building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 attitude to build truly meaningful community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Perform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cooperative works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2. 기독예비영어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을 도출한 후,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각 역량별 중요도와 현재 자신의 보유 정도를 질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Survey results of perceived importance and attainment of competencies (N=63)

Cor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Importance (I)		Attainment (A)		I-A
		M	*SD*	*M*	*SD*	*t*
1. Spiritual Sensitivity	Christian Teacher Identity	4.10	.86	3.92	.85	1.420
	Awareness of Students	4.40	.79	4.11	.88	2.609*
	Integration of Faith and English Teaching	4.10	.95	3.94	1.03	1.236
	Christian Teacher Character Development	4.30	.89	3.98	.89	2.449*
2. Practice of Piety	Practice of Service	4.16	.81	3.97	.88	1.801
	Practice of Altruism	4.26	.79	3.98	.92	2.655**
3. Professional Content Knowledge	Content Knowledge & English Communication	4.49	.72	4.16	.72	2.946**
	Extracurricular Content Knowledge	4.37	.70	3.95	.99	3.408**
	Curriculum Development	4.25	.65	3.89	.90	3.207**
	Professional Teacher Development	4.40	.71	3.95	.97	3.540***
4. Pedagogical Skills	Understanding Students' Characteristics	4.43	.69	4.03	.86	3.283**
	Instructional Design & Development	4.40	.75	3.95	.87	3.484**
	Materials Development & Using ICT	4.30	.78	3.86	.97	3.599***
	Lesson Management	4.43	.73	4.05	.94	2.789**
	Assessment & Feedback	4.48	.74	3.95	.96	3.921***
	Learning Assistance & Empowerment	4.44	.69	4.05	.91	3.173**
5. Administration/ Management	Understanding School Environment	4.15	.70	3.69	1.00	3.335***
	Classroom Management	4.27	.69	3.67	1.05	4.040***
6. Students' Character & Life Guidance	Counseling Skills	4.57	.69	3.87	.85	5.576***
	Student Life Guidance	4.40	.66	3.89	.90	4.107***
	Student Career Guidance	4.48	.76	3.89	.99	4.176***
	Student Character Guidance	4.52	.74	4.08	.93	3.368***
7. Self-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4.32	.78	4.02	.87	2.370*
	Perseverance	4.48	.78	4.08	.89	3.615**
	Self-improvement	4.43	.78	4.03	.80	3.227**

<continued>

Core Competencies	Sub-Competencies	Importance (I)		Attainment (A)		I-A
		M	*SD*	*M*	*SD*	*t*
8.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Understanding of Future Society	4.17	.73	3.73	.97	3.380**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Environment	4.19	.76	3.90	.89	2.609*
	Convergence Thinking	4.27	.83	3.87	.98	3.028**
	Adaptability to Social Changes	4.40	.75	3.84	.90	4.499***
9. Creative Problem-Solving	Creative Innovation	4.35	.77	3.87	.86	4.100***
10. Information & Technology Utilization	Resource Utilization & Development	4.32	.72	3.90	.99	3.103**
11.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	4.62	.68	4.30	.64	3.323**
	Non-verbal Communication	4.54	.71	4.13	.81	3.295**
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action Skills with Students	4.56	.69	4.11	.79	4.115***
	Coordination of Student Relationships	4.44	.78	4.03	.82	3.675***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4.37	.75	4.06	.72	3.268**
13. Ethical Behavior	Ethical Behavior	4.41	.71	4.16	.81	2.809**
14. Social Participation	Understanding Local Communities	4.03	.84	3.84	.92	1.723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4.22	.87	4.02	.87	1.718
	Civic Responsibility	4.22	.79	3.98	.81	2.075*
15. Community Build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4.48	.76	4.17	.77	2.801**
	Community Building	4.43	.78	4.10	.76	2.946**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4.43	.76	4.16	.70	2.795**
M		4.36		3.98		

* $p<.05$, ** $p<.01$, *** $p<.001$

먼저, 전문가 집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핵심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하위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능력'(*M*=4.62, *SD*=0.68) 이었고, 그 다음 '상담 기술'(*M*=4.57, *SD*=0.69),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능력'(*M*=4.56, *SD*=0.69),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M*=4.54, *SD*=0.71)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영어교사들이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중요한 하위구성요소로 인식한 것은 전공교과가 영어인 예비교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성지도, 그리고 상담 기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부상되고 로봇 교사가 인간

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교사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이 학습자와의 참된 상호작용 및 상담에 있다고 이해한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치의 하위구성요소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능력'(*M*=4.03, *SD*=0.84)이었다. 이는 영어교사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능력은 영어교과지식이나 교과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중요도 인식의 수치는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영어교사에게도 상식적 수준에서 이 능력도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은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 인식'(*M*=4.10, *SD*=0.86)이나 '신앙과 영어교육의 통합'(*M*=4.10, *SD*=0.95)에서도 평균 4.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기는 했어도 이는 다른 하위구성요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1, 2학년 저학년이기 때문에 기독영어교육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의 기회가 아직 충분치 못한 데에 따른 결과로 짐작된다.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구성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한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36이었고 모든 역량들에서 4.0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이 모든 역량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핵심역량 채택 기준(김희연 외, 2018; 문은경 외, 2016; 이현우・조명희, 2012)을 참고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후 수정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최종본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전공 핵심역량의 현재 보유도에 대한 인식을 각 하위구성요소 및 행동지표별로 살펴보았다. '언어적 의사소통능력'(*M*=4.30, *SD*=0.64)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문화 이해능력'(*M*=4.17, *SD*=0.41), '교과지식 및 영어의사소통능력'(*M*=4.16, *SD*=0.41), '윤리적 행동능력'(*M*=4.16, *SD*=0.77), '공동작업능력'(*M*=4.16, *SD*=0.70)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보유도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인식한 하위구성요소는 '학급경영기술'(*M*=3.67, *SD*=1.05), '학급 운영 이해능력'(*M*=3.69, *SD*=1.00),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M*=3.73, *SD*=0.9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설문 응답자들이 예비영어교사이다보니 학급경영이나 학급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하고 미래사회 측면에 대한 노출 역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설문 응답자 중 교육실습을 마친 고학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

던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 핵심역량 보유도 인식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98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요도에 대한 응답 평균 4.36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였다. 또한, 중요성 인식 대 보유도 인식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해 각 하위구성요소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7 참조),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 인식', '신앙과 영어교육의 통합능력', '봉사실천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능력'. '글로벌사회에 대한 이해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38개의 하위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95%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하위구성요소들에 있어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비해 보유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은 양성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범대학 재학생이 인식하는 교수자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에 대해 조사 한 이현우와 조명우(2012)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교사들은 각 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이 대부분의 하위구성요소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신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역량들을 중심으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들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도전과 변화에 대비하여 영어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교사양성을 위해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 융·복합적 지식 생성과 활용, 사회구조망과 인간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영어교사로서의 전문 소양 겸비 외에도 다각적 차원에서의 역할 변화가 기대된다. 이에 기독영어교사가 광범위한 변화와 요구를 민첩하게 인식하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며 후속세대를 양육해나갈 수 있기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독영어교사양성기관의 목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직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독영어교

사 핵심역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미래교사의 핵심역량, 기독교사 핵심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총신대학교 대학 전체 차원에서 수립되어있는 6개 핵심역량과 9개의 하위역량과 연계하며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변화하는 현장교육 추세에 맞게 15개 전공 핵심역량으로 세분화하였고, 각 역량의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 초안을 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된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각 역량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전체 15개 전공 핵심역량, 44개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채택하되,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용어는 수정 제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15개 전공 핵심역량, 43개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로 구성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수정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교사 핵심역량,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역량, 기독교사로서의 역량을 모두 섭렵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구체적 전공 핵심역량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 포괄성 및 구체성, 실효가능성을 갖춘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핵심역량 수정안을 기독예비영어교사 63명을 대상으로 진단하였다. 즉, 이들이 핵심역량 수정안에 포함된 역량들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현재 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역량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의사소통역량, 인성 및 생활지도역량, 대인관계역량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 수정안의 내용들을 모두 채택하여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최종본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현재 자신은 각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지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독영어교사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보다 보유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기독영어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사개발의 방안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거할 때,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과 기독영어교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을 각 교과목에서 실제적으로 구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목별 핵심역량 메트릭스 작업이 요구된다. 즉, 기독예비영어교사의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의 교과목들은 각각 어떤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각 교과목에서 중점으로 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향해 교과목을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수업내용뿐 아니라, 수업방법, 평가방법에 걸쳐 일관성있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목 수업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목 차원, 학과 차원에서 핵심역량과 교과목 목표에 대한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교과목협의회를 통해 교과목의 콘텐츠와 교수방법에 있어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역량 증진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독영어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영적감수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학년에서는 영어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구축하도록 한 후 고학년에 신앙과 영어교육의 통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년별 요구가 충족되도록 교육과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기독영어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학습,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일반 영어교사가 아닌 기독영어교사라면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고민과 접근이 있어야하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별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독예비영어교사들도 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 이해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접근에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God's image bearer) 존재로 보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존중, 사랑 등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 필요에 민감하도록 하는 영적감수성(강영택, 2015) 증진을 기독영어교사 차별화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적감수성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기술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상담실습 프로그램 제공, 예비교사들의 멘토링체험 확대,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비교과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포함된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학년 간 분포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수를 더 늘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독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표수립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학의 핵심역량들과 연계하면서 전공특성에 맞춘 구체적 전공 핵심역량 수립과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전공 핵심역량과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바탕으로 기독예비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역량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교육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역량 신장 및 성공적인 현장수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8.

[Kang, Y. T. (2015). Key competencies needed in a future society and tasks for a Christian school. *Faith & Scholarship*, 20(1), 7-38.]

강현주・조대연 (2017). 델파이 조사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및 과제 탐색. **HRD 연구**, 19(4), 1-34.

[Kang, H. J., & Cho., D. Y. (2017). A Delphi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9(4), 1-34.]

계보경・김현진・서희전・정종원・이은환・고유정・전소은・김영애 (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ye, B. K., Kim, H. J., Seo, H. J., Cheong, J. W., Lee, E. H., Ko, Y. J., Cheon, S. E., & Kim, Y. A. (2011). *A Study on Future School 2030 Model for the Adoption of Future School System*.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교육부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80.]

김선웅 (2018). 4차 산업혁명과 영어전공자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어교육** (p. 181-211). 서울: 한국문화사.

[Kim, S. W. (2018).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English major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English Education* (pp. 181-211). Seoul: Hankuk Moonwha-sa.]

김수환 (2017). 미래 기독인재 역량으로서의 Computational Thinking에 대한 고찰. **총신대논총**, 37, 339-367.

[Kim, S. H. (2017). A review of computational thinking as competency for future Christian talent.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7, 339-367.]

김영숙 (2009). 기독교인 예비영어교사들의 영어교육과 현장학교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총신대논총**, 29, 252-276.

[Kim, Y. S. (2009). Christia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English teaching and role of Christian English teachers in school context.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9, 252-276.]

김영숙 (2017). 4차 산업사회의 영어교육에 대한 초등교사 및 교사교육자 인식. **교육논총**, 37(3), 123-150.

[Kim, Y. S. (2017).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 idea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society. *The Journal of Education*, 37(3), 123-150.]

김이경 (2017, 11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 교원양성 체제 혁신: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2017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주제발표논문, 서울.

[Kim, Y-K. (2017, November). *Innovation of Teacher Development System for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Cases of Model Countries and Implications*. KPFAC Science & Creativity Annual Conference, Seoul.]

김형순・김혜영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영어교사 미래준비도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3), 179-205.

[Kim, H-S., & Kim, H. Y. (2017). A study of Korean English teachers' future readines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3), 179-205.]

김희연・민경석・정지영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3), 63-85.

[Kim, H. Y, Min, K. S., & Jung, J. Y.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llegiate core competency assessment: Focused on the case of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3), 63-87.]

김희자.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교육의 학습미디어의 활용방안. **총신대논총**, 37, 5-33.

[Kim, H. J. (2017). Application of Christian education learning media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7, 5-33.]

류은정 (2018).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2), 91-117.

[Ryu, E. J. (2018). Industrial revolution & Christian education: Sunday school movement. *Faith & Scholarship*, 23(2), 91-117.]

문은경・신원석・박인우 (2016). 중등예비교사의 교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1), 183-209.

[Moon, E. K., Shin, W. S., & Park, I. W. (2016). An analysis of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n the core competence of teach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2(1), 183-209.]

박광옥・이정원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는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ESP Review**, 1(1), 55-69.

[Park, K. O., & Lee, J. W. (2019).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 of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SP Review*, 1(1), 55-69.]

박선화・전효선・이문복・장근주・김영은・이재진・임철일・문무경・장은희・김선영 (2017).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II):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ark, S. H, Chun, H. S., Lee, M. B., Jang, G. J., Kim, Y, E., Lee, J. J., Lim, C. I., Moon, M. G., Jang, E. H., & Kim S. Y. (2017). *Education Vision for the Future Curriculum, Instruction, and Evaluation in South Korea (II): Future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n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박채희・윤성규・조인희 (2016). 대학교육 핵심역량과 전공핵심역량: 영어학 전공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2(2), 147-165.

[Park, C. H., Yun, S. K., & Jo, I. H. (2016). The core competence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ents majoring a specific field: Focused on English maj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2(2), 147-165.]

성태제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55(2), 1-21.

[Seong, T. J. (2017). Suggestions for the human character and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5(2), 1-21.]

안성호 (2018). 4차 산업혁명과 영어교육.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어교육** (pp. 9-39). 서울: 한국문화사.

[Ahn, S. H. (2018).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glish educ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English Education* (pp. 9-39). Seoul: Hankuk Moonwha-sa.]

이근호・이광우・박지만・박민정 (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Lee, K. H., Lee, K, W., Park, J. M, & Park, M. J.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s Reconstructing Core Competencies-Focused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이성희 (2009). 기독인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 **기독교와 어문학**, 6(1), 137-171.

[Lee, S. H. (2009).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ian English teacher. *The Christian Literary Studies*, 6(1), 137-171.]

이영미・이윤석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 교육. **신앙과 학문**, 23(2), 215-243.

[Lee, Y. M., & Lee Y. S. (2018). Coding skills and church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aith & Scholarship*, 23(2), 215-243.]

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및 운영: 한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2), 177-207.

[Rhee, E. S., & Jei, Y. G. (2016).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s in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A cas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Faith & Scholarship*, 21(2), 177-207.]

이주호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이주호, 이민화, 유명희 편, pp. 158-189).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Lee, J. H. (2017). Educational paradigm shift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Lee, J. H., Lee, M. H., & Yoo, M. H. (E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ding Nation*(pp. 158-189). Seoul: Hansun Foundation.]

이하원・이화선 (2017).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 검사(K-CCCA)의 개발. **교양교육연구**, 11(1), 97-127.

[Lee, H. W., & Lee, H. (2017). Development of Korea-collegiate core competencies assessment (K_CCCA). *Korea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97-127.]

이현우・조명희 (2012). 사범대학 재학생의 학년별 교수자 역량 진단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521-540.

[Lee, H. W., &Jom M. H. (2012). Teacher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by grade level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521-540.]

정미경・김갑성・류성창・김병찬・박상완 (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Jeong, M. K., Kim, K. S., Rhu, S. C., Kim, B. C., Park, S. W.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Development Curriculu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정제영・강태훈・김갑성・류성창・윤홍주 (201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임교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Jeong, J. Y., Kang, T. H., Kim, K. S., Rhu, S. C., & Yoon, H. J.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ice Teachers' Competencies in the Era of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정채관 (2017). "번역기가 있는데 영어를 굳이 배워야하나?" 조선일보, 월드와이드웹: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40&nNewsNumb=20170524800&nidx=24801 에서 2018년 12월 30일에 검색했음.

[Jung, C. K. (2017). *Do I Have to Learn English Even Though I Have a Translator ?* Chosun Ilbo (2017.5.24.). Retrieved from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40&nNewsNumb=20170524800&nidx=24801 (2018. 12. 30.)]

정채관・안성호・홍선호・이완기・심창용・이재희・김해동・김명희・김선웅 (2018).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Jung C. K., Ahn, S. H., Hong, S. H., Sim, C. Y., Lee, J. H., Kim, H. D., Kim, M, H., & Kim, S. W. (2018).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English Education*. Seoul: Hankuk Moonwha-sa.]

조상식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 **미디어와 교육**, 6(2), 152-185.

[Cho, S. S. (2016). Task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education. *Media & Education*, 6(2), 152-185.]

주형미・최정순・유창완・김종윤・임희준・주미경 (2016).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I):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Joo, H. M., Choi, J. S., Yoo, C. W., Kim, J. Y., Lim, H. J., & Joo, M. K. (2016). *Vision Research for Curriculum, Instruction-Learning, and Educational Assessment Preparing for the Future Society: Direction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Content-area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총신대학교 (2017). **총신대학교 핵심역량 고도화 결과보고서**.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2017). *Chongshin University Core Competencies Advancement Report*. Chongshin University.]

허계형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기독교 유아양성 교회교육 실천방안 연구. **신앙과 학문**, 22(4), 227-252.

[Heo, K. H. (2017).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church education to teach young Christian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ith & Scholarship*, 22(4), 227-252.]

허희옥・임규연・서정희・김영애 (2011). **21세기 학습자 및 교수자 역량 모델링. 미래학교 지원을 위한 21세기 교수·학습 활동 개발 시리즈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eo, H. O., Lim, K. Y., Seo, J. H., & Kim, Y. A. (2011). *Modeling for 21st Century Learner and Teacher Competency. 21st Century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Series I in Support of Future School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홍선주・남민우・이영태・이동원・박수정 (2017).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할 및 역량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ong, S. J., Nam, M. W., Lee, Y. T., Lee, D. W., & Park, S. J. (2017). *Exploration on Teacher Role and Competency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Brown, D. H., & Lee, H. K. (2015).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4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Jones, S., Richards, A., Cho, Y., & Lee, Y. (2018). The effe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general English education: A case study of native English instructors' perceptions at Korea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169-197.

Prince, K, Saveri, A., & Swanson, J. (2015). *Exploring the Future Education Workforce: New Roles for an Expanding Learning Ecosystem*. Retrieved from http://iowaascd.org/files/4114/4476/2472/future-ed-workforce-roles-learning-ecosystem.pdf (2018. 9. 28)

Smith, D., & Carvill, B. (2001). *The Gift of the Stranger: Faith, Hospitality,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Yim, S. Y. (2017). Analysis of the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in Singapore. *Journal of the Korean English Education Society*, 16(3), 139-153.

논문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탐색

김영숙 (총신대학교)
이지연 (교신저자/총신대학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영어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탐색하고,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의 전공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최종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핵심역량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 종합하고 본 연구의 대상 기독대학교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들에게 적절성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기독예비영어교사 63명을 대상으로 수정안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보유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예비영어교사들은 제시된 모든 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5개의 전공 핵심역량, 43개의 하위구성요소와 행동지표로 구성된 수정안을 기독영어교사 핵심역량 최종본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과 기독영어교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핵심역량, 기독영어교사, 교사양성 프로그램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3)『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을 위한 재 투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할 경우 게재하도록 하되,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 · 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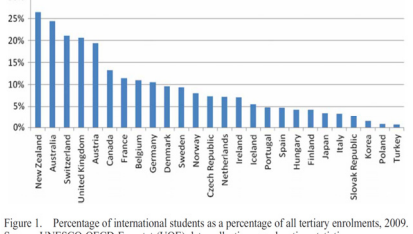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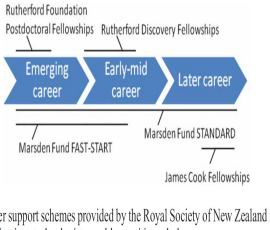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0.05$나 $p<0.01$, $p<0.001$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Mothers' report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Fathers' report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Children's report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 · 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 · 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은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임춘택 (경남대학교)
총 무	이상무 (평택대학교)
학회이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총신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편집위원장	손병덕 (총신대학교)
편 집 위 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훈 (성신여자대학교)
	손창민 (University of Virginia Tech, 미국)
	이명헌 (인천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윤매옥 (한일장신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신앙과 학문 제24권 제4호 (통권 81호), 2019년 12월호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